



들어가며

「우리가 바다에 다녀 온 후에」 - 하성민	06
「손 인사 한 번에, 그 편지 한 장에」 - 임의현	10
「'있던 것을 새롭게' 앵커의 시선과 기대」 - 송주민, 이정인, 권민정	14

부록

박시호	220
연옥	222
위단비	224
이유리	226
한승완	228

1부 시로 만든

고요하고 쓸쓸한	22
경계에 서서	40
영영 사라져 버리는 것	64

2부 질문과 편지로

어느새 찾아온	128
껍데기 하나, 박시호	130
껍데기 둘, 이유리	140
껍데기 셋, 위단비	152
껍데기 넷, 한승완	162
껍데기 다섯, 연옥	174
낮선 곳으로	184
단비의 편지 「고흥을 겪을 사람들에게」	186
승완의 편지 「미지의 하이커에게」	192
유리의 편지 「이곳에 남겨진 산들에게」	198
연옥의 편지 「소멸에게」	202
시호의 편지 「신동이에게」	208



「우리가 바다에 다녀 온 후에」

하성민

해변의 카카카 기획자

2023년 11월, 고흥 오취-사도마을의 자원 아카이빙을 위한 아티스트 체류 프로그램 '채굴채굴'이 진행되었습니다. 마을자원 아카이빙과 아티스트 체류 프로그램이 무슨 연유로 관계가 있는지 의아하신 분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우선 이 맥락을 설명하기 위해서는 본 사업을 통해서 규정하고 있는 '기록'에 대한 언급을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무엇을 위한 기록?

종종 마을 자원을 아카이빙하는 사업을 살펴보게 됩니다. 전국 각지에서 펼쳐지는 각기 다른 사업에서 '발굴·기록하는 행위'의 목적은 무엇일까요. 지역 현황에 따라 다르겠지만, 본 오취-사도마을 자원 아카이빙의 목적은 이후 3년간 진행되는 '어촌신활력증진사업' 중 로컬 콘텐츠와 프로그램 영역에서의 정체성과 방향성을 설정하기 위함입니다. 이런 배경을 생각하게 되었을 때, 선형적인 과정을 거치면서 안전하게 진행되는 자원의 기록보다는 앞으로의 변화를 언급해줄 수 있는, 보다 더 적합한 기록의 방식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것이 3년 후를 역동적으로 상상하게 도움을 줄 수 있을 테니까요. 그렇게 아직 앞으로의 무엇도 알지 못했던 2023년 9월 11일, 낯설고 외진 마을 두 곳을 방문하게 됩니다

아름다운 고흥의 오취-사도마을을 거치고 집으로 돌아와 침대에서 마을의 모습을 담은 핸드폰 사진을 살펴보았습니다. 왜인지 모르겠지만 그날 저녁, 마을 곳곳을 돌아다니는 이방인들의 모습을 상상하게 되었습니다. 다른 이들의 시선이 마을의 이곳저곳을 훑고, 옆에서 그 모습을 잘 담아내는 것. 이런 기록물로 말하고 보여주는 것이 마을의 모습과 이야기를 상상하게 하는 방법이 될 것 같았습니다. 조금은 모호하고 흐릿한 이미지를 안고 있지만 그럼에도 이 사업에서는 무언가 새로운 시선을 필요로 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기록을 통해서 본 지역과 관련된 사람들이 앞으로의 3년을 마음껏 상상하면서 소통하는 것이 가능하지 않을까요.

무엇을 위한 체류?

마을의 것을 살피고, 수집하고, 발굴하고, 찾아낸 것들을 재분류하고 큐레이션하는 작업을 거치면서 기록물이 나오게 됩니다. 그렇게 마을에서 시작된 '어떠한 것'을 엮어내게 되죠. 전술한 것처럼 이 마을에서 시작하는 '무엇'을 바라보는 이방인들이 필요했습니다. 그것도 여러 가지 관점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필요했죠. 아티스트 체류 프로그램 '채굴채굴'은 이런 배경에서 기획되었습니다.

오취-사도마을은 아름다운 경관을 지닌 고흥군 포두면에 위치한 어촌 마을입니다. 해창만의 풍경, 겹겹이 쌓인 산 능선과 넓게 트인 논과 밭, 듽성듬성 작은 섬이 눈에 띄는 조용한 바다, 그렇게 어촌 마을에 들어서면 굴막들이 즐비하게 늘어섭니다. 이런 풍경을 찬찬히 살피면서, 이곳의 '기록'을 위해서는 예술가의 체류가 필요하다고 판단하게 되었습니다. 낱것의 이야기와 이미지, 삶과 세상을 바라보는 각기 다른 시선의 교차점이 이 마을에 위치하게 되었을 때, 그제야 마을에 어떤 자원이 실재하는 지, 앞으로 어떤 이야기와 이미지가 이곳에 쌓여 나가게 될지 감각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보았습니다. '지붕 없는 미술관'이라는 슬로건을 가지고 있는 고흥이 더욱 미술관처럼 보였습니다.

본 책자는 5인의 아티스트가 5일간 오취-사도마을에서의 체류했던 과정을 기록하고, 여기서 나오는 산출물을 거칠게 엮어내고 있습니다. 이 결과가 마을의 서사와 이미지, 자원을 온전하게 담아내고 있다고 자신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한 장 한 장 넘기는 체류의 시간과 예술가들의 시선이 층층이 쌓여가면서 그들의 관점을 엿보게 된다면, 조금씩 변화하는 그들의 생각과 이야기를 이해하게 된다면, 우리는 새로운 시선으로 오취-사도마을을 바라볼 수 있는 여유가 생겨나지 않을까 기대하게 됩니다. 5인의 아티스트는 오취-사도 마을 체류 전과 후의 삶이 변화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여전히 마을의 '어떤 것'이 기능하고 있는 것이 아닐까요. 이 기록물을 읽는 분들에게 그 '어떤 것'이 감각되기를 바랍니다.



「손 인사 한 번에, 그 편지 한 장에」

임의현

해변의 카카카 기획자

이 글의 제목은 권나무의 노래
<어릴 때> 중 한 소절 “손 인사
한 번에, 그 편지 한 장에”를
차용했습니다. (2014, 권나무,
『그림』 © 미러볼 뮤직)

마을에 들어선 예술가들은 입 모아 조용한 걸 넘어서
적막하다고 말했습니다. 지나가는 사람도 없고, 길가에는 굴 껍데기만
수북하게 쌓여 있었으니까요. 그렇게 낮은 풍경에 놓인 채 익숙하지
않은 속도로 닳새를 보냈습니다. 인간이라는 존재는 자신이 처한
환경에 영향받기 마련입니다. 도시에 사는 예술가들은 그간 복잡하고
시끄러운, 모든 게 혼재된 와중에 끊임없이 뭔가를 해내느라
바빴습니다. 뒤처질세라 아등바등, 안간힘을 다해 버티고 있었던
거지요.

굴막 아카이빙 프로젝트 ‘채굴채굴’은 예술가의 시선을
빌려 고흥군 오취-사도마을을 기록하는 작업이었습니다. 지친
예술가들에게는 환기의 시간이 되기를 바랐습니다. 산 좋고 물 좋은
작은 마을에서 얼마간 지내며 각자의 예술을 채굴하고, 그걸 도구 삼아
이곳에서도 뭔가 채굴해 내는 게 있을 거라고 기대했습니다.



첫날 밤, 우리는 동그렇게 모여 마인드맵을 그려 5개의 공통
키워드를 뽑았습니다. ‘소멸’, ‘변화’, ‘적막’, ‘경계’, ‘부조화’로 정리되었고,
개별 키워드도 3개씩 정했습니다. 호기심 어린 눈빛, 시간의 흐름, 본질
등의 단어가 툭툭 튀어나왔습니다. 생각 이상으로 순조로운 출발이었고
알게 모르게 저마다 조금씩 들떠 있었습니다. 본격적으로 채굴할 의지를
다지며 생소함과 설렘을 베고 잠들었습니다.

두 번째 날은 마치 관광객처럼 돌아다녔습니다. 방송에 나온
백반집에서 밥도 먹고, 여유 있게 카페에서 커피도 한 잔 마셨습니다.
고흥이라고 다 굴뿐인 게 아니구나, 유자도 있고 커피도 유명하구나,
몰랐네 하면서요. 한갓지게 마을 구경을 마치고 나니 문득 이곳
사람들에게 궁금한 점이 생겼습니다. 굴 말고 다른 일을 하고 싶었던
적은 없는지, 굴을 까면서 무슨 생각을 하시는지, 마을이 어떻게
바뀌었으면 좋겠는지와 같은 질문이 생겨났습니다. 아마도 이들도
우리처럼 비밀상성을 엿보고 꿈꾸길 내심 기대했던 걸지도 모릅니다.

사흘째 되던 날은, 소설의 구조로 따지면 ‘위기’에 해당합니다.
이른 오전 바다로 나가 굴을 따고, 굴막에서 손질했습니다. 시원한
바닷바람을 느낄 새 없는 그야말로 생업의 현장이었습니다. 우리가
겪어온 삶의 지층을 순식간에 깨트리는 압도감에 모두 말을 잃었습니다.
머릿속은 복잡해졌습니다. ‘아, 이게 맞나... 집에 가고 싶다...’ 감히
힘들다 투정을 부리지도 못했습니다. “이렇게 잡고 하면 쓰나, 여기를
잡고 썬서, 그래 갖고 껍다구를 벌려, 그러든 요래 알이 썬 이쁘게
나온께.” 이들에게 굴은 삶 그 자체였습니다.

어느 시인은 “한 사람이 온다는 건 그 사람의 일생이 오는 것”
이라 했지요. “부서지기 쉬운, 그래서 부서지기도 했을 마음이 오는 것”
이라는 시구를 더듬거리며 당신들의 삶 앞에서 속죄하듯, 회개하는
마음으로 굴막을 나왔습니다. 그날 밤 함께 쓴 시에는 “쓸모없는 순간이
모여 빛나는 순간이 된다”는 오묘한 진심이 채굴되었습니다.

나흘째에는 마을 어르신 들을 만나 보였습니다. 부녀 경로당에서, 어민회관에서, 굴막 안에서요. 제철 맛은 굴처럼 우리의 이야기도 절정에 다다른 듯합니다. 손 인사 한 번에, 호탕한 웃음 한 자락에 같이 기뻐다가도 왈칵 슬퍼졌습니다. 또 오겠다고 약속조차 못 하겠는 마음을, 과연 우리가 이곳에 와서 뭘 할 수 있었지, 꼬여버린 이동 경로를 펼치고 다녀내었던 마지막 밤이었습니다.

떠나는 날에는 편지를 썼습니다. 그 편지는 미래의 우리에게 보내는 것이기도 합니다. 이 책은 지나가 버린 과거를 미래처럼 살다 온 사람들이 남겨둔 작업과 기록물을 키워드에 따라 재구성한 총체입니다. 시로 만든 질문과 편지로 상상 속 전시장을 꾸려보고자 했습니다. 1부에는 미래 같은 과거가, 2부에는 과거 같은 미래가 담겨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이 책에는 촘촘히 쌓아 만든 그럴싸한 채굴물이 들어있지 않다는 점을 미리 밝혀둡니다. 그러나 분명한 건 저를 포함한 우리 모두는 환기 이상의 시간을 보냈다는 것입니다. 약간의 바람만 통하도록 열어둔 창문이 어느새 깨져버렸기 때문입니다. 내 의지대로 창문을 여달을 수 없는 상태가 된 것이지요. 바깥에 있던 것들이 삼시간에 밀려 들어와 내외부가 섞여버리고 말았습니다. 프레임이 깨지는 경험을 통해 우리는 오취-사도마을의 광활한 자연과 열은 굴 내음을 피부에 묻히고 왔습니다. 어르신들의 단단한 삶의 태도와 강인한 표정도 깊이 묻었습니다.

그로 인해 덩달아 튼튼해진 몸과 마음으로 돌아왔습니다. 의도치 않았지만, 우연에 기댔던 것들이 우리에게 가능성을 열어줬습니다. 깨진 프레임을 성긴 테두리로 다시 엮어보니 예상을 비껴간, 계획되지 않은 무언가 새로운 것이 채굴되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공간은 원래 존재하는 게 아니라 관계에서 탄생한다'는 사실을 자명하게 체감했습니다.

그러므로 이 책을 마침표가 아니라 쉼표로, 일시 정지의 상태로 읽어주길 바랍니다. 더 나아가 마을에 대한 각자의 진실을 상기하기 위한 가닿음을 조금이라도 도울 수 있는 안내서가 된다면 좋겠습니다.



「'있던 것을 새롭게' 앵커의 시선과 기대」

송주민, 이정인, 권민정

(취)도島와 (사)도渡를 연결하는 어촌앵커조직 '도도'

우리는 '어촌앵커조직'이다. 어촌에 닻(anchor)을 내리고 정착해 주민과 함께 생활하며 지역의 대안적 활성화를 위해 어촌신활력증진사업을 실행한다. 어촌과 바다 본연이 품은 수려함, 어민들의 삶, 생업과 정취, 자연스럽게 멋스러운 풍경, '리얼 어촌'을 제대로 맛보고 경험할 수 있는 곳으로 만들고자 현장에서 노력 중이다.

취도와 사도는 어촌마을이다. 취도(섬이름)는 취도마을, 하오, 오취마을, 취도항(항구이름) 등 다양한 명칭으로 혼합해 불리며, 사도도 사도마을, 금사마을, 사도항, 금사항 등 통일되지 않은 이름으로 주민들 사이에서 불리거나 각종 표지나 문서상 기록되어 있다. 이 마을은 규정적, 행정구역의 공간이라기보다 삶의 터전이고, 암묵지(개인에게 체화(體化)되어 있지만 겉으로 드러나지 않는 지식) 정보와 생활상 지혜가 주민 사이에 전승되고 있는 곳이다.

(사실, 고흥을 보면 전반적으로 이런 결의 공간이 많다. 비석에 새겨진 마을 이름과 버스정류장 이름이 다르고, 주민 사이에 알려진 이름과 공문서상 명칭이 다른 경우도 자주 보인다. 지역에 처음 오거나 여행자 입장에서는 매우 불편한(예컨대 목적지 버스정류장이 맞는지 헷갈린다) 현실이고 이를 개선하고자 하는 노력도 보이는데, 한편으론 무엇인가 딱 '규정'되지 않은, 현대사회에서 잊혀진 로컬 공간의 정서를 담고 있는듯하여 흥미롭다.)

취도와 사도는 굴 따는 마을이다. 품질 좋다고 소문난 고흥굴의 주요 산지다. 실제 굴 양식 등 어업에 종사하는 어민들이 웅기종기 모여 삶을 영유하는 어촌. 바다로 향하는 어선, 굴 따러 가는 어부와 따온 굴을 웅크리고 앉아 캐는 할머니, 그들 생업의 터전인 아름다운 바다를 끼고 매일의 삶을 유유하게 살고 있는 곳.

“아따, 어디서 왔소?”, “오메, 자네들 보니 우리 자숙들 생각이 나네”, “여기 꿀(이곳 발음은 '굴'이라기보단 '꿀'이다)이 얼마나 맛있는지 알랑가몰라, 통영꿀과 차원이 다르당께, 잡쉬보소” 마을을 둘러보다가 주민을 만나면, 구수한 전라도 사투리와 일상 그대로의 풍채, 굴막 작업장 근처에 가면 전해지는 비릿한 어촌의 향까지, 여기는 어느 것 하나 인위적으로 가꾸거나 과장한 것이 아닌 '리얼 로컬'임을 체감한다.

테마화, 관광지화되지는 않은, 그러나 무언가 거칠고 꾸밈이 없으면서도 남해안의 온화한 기후처럼 안온한 바다를 품은 채 '찐' 로컬의 수려함도 품은 곳, 이런 삶과 생업의 공간으로서 어촌을 어떻게 사람들에게 알리고 소개할 수 있을까? 주요한 로컬의 자원, 특징, 매력을 포착하고 이를 기반으로 인위적이지 않은 고유의 정체성을 만들어갈 수 있을까? 두 리얼 어촌을 무대로 한 어촌신활력증진사업을 준비하면서 가졌던 질문이고, 금번 아카이빙 작업은 로컬 본연의 모습을 비추고 조명하는 시도이다. 마을을 방문한 젊은 예술가들의 낯설고도 깊은 시선으로부터, 일상과 생업에 묻혀 그대로 흐르거나 가려져 있던 대안적 가능성들을 끄집어내고 싶었다.



두 마을이 갑자기 유명 관광지화 되거나 소위 '트래픽'이 급증하는 핫플레이스가 되지는 않을 것이다. 그러나 이곳을 1년 넘게 드나들고 정착해 살펴본 바에 따르면, 두 마을은 양보다 질로 승부하는 고흥굴처럼, 질적으로 재발견하고 활성화할 거리들이 본연의 바다, 굴, 수산물, 어민들의 정과 삶, 이순신 역사자원 등을 필두로 많이 보임이 분명하다. 요란스럽게 뽐내는 것 없이, 모순적이지만 특별하지 않은 특별한 여전함을 지닌 곳. 이미 있었으나 알려지지 않은, 모르기 때문에 몰랐던, 심지어 저평가된 우량한 원석과 같은 공간을 대안적으로 활성화해 소멸 지역이라 부르는 곳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었으면. 과거와 같은 일률, 대규모 개발 같은 방식이 아닌, 지역 특색을 살리면서 소규모의 실험과 다양한 도전을 통해 도출된 작은 결과들이 축적되어 지역의 고유함을 지켜나가며 만들어 나가는 과정이 무엇보다 중요할 것이다.

이 과정을 함께하는 로컬콘텐츠로서 금번 작품이 탄생했다. 마을에 산재하는 굴막, 생업이자 지루하고 고된 일상의 공간을 '작업장이자 전시장'과도 같이 재발견하여 포착한 시선이 프로젝트 기획서를 보는 순간 눈에 확 들어왔다. '지붕 없는 미술관'이라는 고흥의 캐치프라이즈처럼, 예술가들이 마을에 깊게 시선을 담갔던 순간을 전시도록으로 정리한 '지붕 없는' 어촌유람기를 있는 그대로 만끽해보았으면!





1부 시로 만든

22 고요하고 쓸쓸한
40 경계에 서서
64 영영 사라져 버리는 것

각기 다른 장르에서 예술활동을 펼치고 있는 5인은 오취-사도마을로 흘러왔습니다. 두 마을
입구에서는 굴막을 만나볼 수 있습니다. 이들은 굴막을 바라보고, 단어들을 내뱉습니다.
적막에 관해서, 구분에 관해서, 소멸에 관해서, 수많은 단어와 단어 사이에 머무는 것들을
들여다 봅니다.



고요하고 쓸쓸한

꽤 많은 시간이 흐른 것처럼 느껴진다. 하루를 일찍 시작하고 많은 야외 활동을 해서일까? 필요한 물건을 사러 시내로 나갔는데 갑자기 그 많은 간판과 네온사인, 인위적인 불빛들이 낯설게 느껴졌다. 도시에서 해야 할 일들이 생각나며 약간의 불안한 감정이 다시 밀려왔다. 적막 속에서 찾은 평온함을 잃고 싶지 않았는지 폴로 뒤덮인 공간이 그리워졌다. 그렇지만 나는 오늘 밤도 도시에서 누리던 편리함을 그리워하며 잠에 들 것 같다.

- 이유리, 체류일지 중 일부



굴막

홀로 살아있는 무덤 안에서
아동바둥 오늘도 버틴다
수많은 껍데기 중 그냥 한 겹일 뿐
하지만 그런 껍데기 하나 없어도
쓸모없는 순간이 모여
빛나는 순간이 된다



굴막 안에서 바라보는 마을의 바다
사진 한승완

첫 풍경은 강렬했다. 차가운 남색에서 뜨겁게 타오르는 붉은색까지. 물이 빠진 자리에는 잔잔하게도 물빛이 놓여 있었다. 이렇게 조용한 바다가 있을 수 있다니. 몇 시간이 지난 지금, 내 눈앞의 풍경은 여전히 호수와 같다. 지는 해는 가려주듯 산을 덮고 있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을 것 같은 풍경. 고요하고 잔잔한 사람들이었다. 인사하면 웃었고 반가움이 묻어났다. 바다를 닮은 호수. 꼭 그것과 같았다. 어제의 투박함은 어쩌면, 어제의 경계심은 어쩌면 나로부터 비롯된 것이었을까. 스스로없이 오가는 말들 속에서 자연스러움을 느꼈다. 자연스러움이란 무엇인가. 호수같은 바다를 보며 생각한다. 자연을 닮는다는 것은 무엇인가. 자연에게 우주란, 우리의 삶과 같지 않을까. 우주라는 평생을 살아가는 자연은 그 모든 것을 받아들인 것처럼 보인다.

나는 오늘 두 곳의 우주를 보았다. 조금은 다듬어진 우주와 그보다 덜 다듬어진 우주. 내가 외계인처럼 느껴질까 조금은 긴장한 나와 달리 어떤 이들은 스스로없이도 말을 걸었다. 그들을 따라서 인사를 하다 보니 나도 웃을 수 있었다. 사람들은 솔직하나 부드러웠고 나는 지금 내 눈앞에 보이는 연분홍의 하늘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가질 수 있었다. 나는 그들에게서 자신의 삶을 받아들임을 느꼈다. 몇시간이고 앉아서 반복적인 작업을 해야 하는 그 안에서 그 모든 일들을 받아들였음을 깨달았다. 눈빛을 보았기 때문이다. 강인하지만 모나지 않고, 투박하지만 공격적이지 않은 그들의 눈빛은 고흥의 자연을 닮아 있었다. 잔잔함은 파도를 품고 있는 것이다. 파도와 물결을 받아들였기에 그들은 잔잔한 모습을 할 수 있는 게 아닐까. 물결을 닮은 미소를 짓는 게 아닐까.



마을의 일출
그림 위단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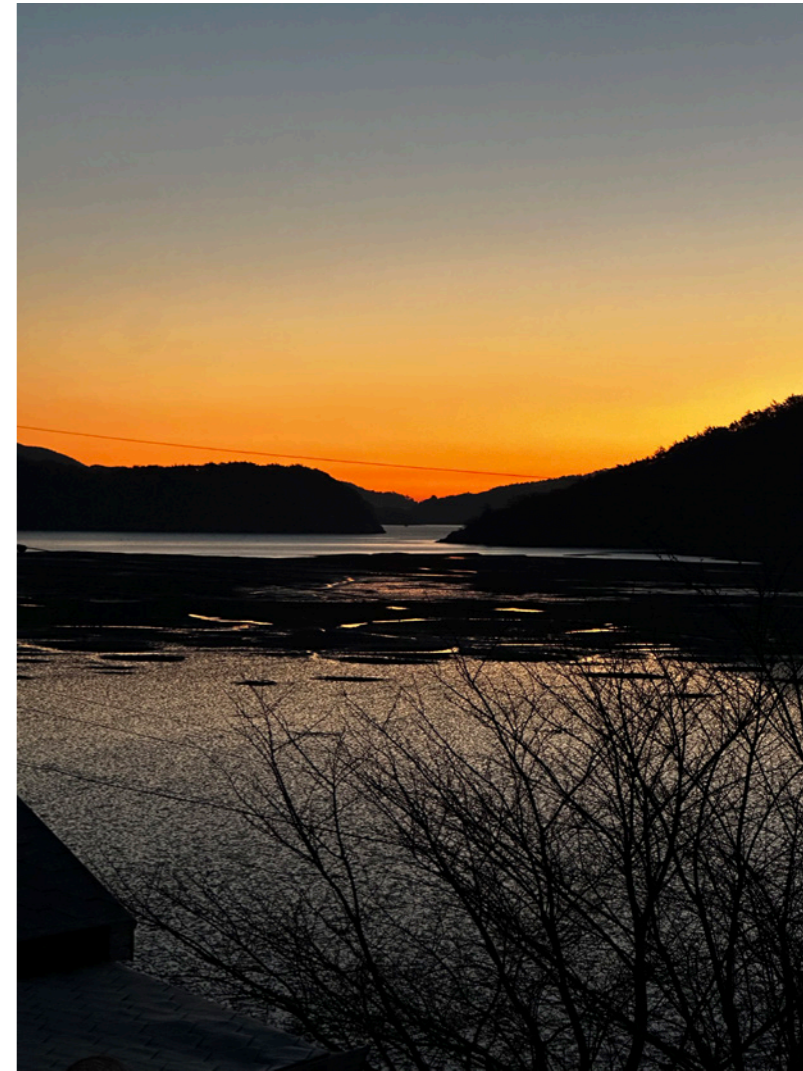
뿌리의 증명

위단비

답아 있었다

그들과 닮은 나의 뿌리는
이미 타오르고 없었으나

살아 움직이는 무덤의 냄새는
나의 입으로 들어오고 있었고



마을의 일출
사진 위단비



마을 풍경
그림 이유리

이유리 체류일지

일기, 이유리
23.11.20

서울에서 5시간을 넘게 달려 고흥에 도착했다. 기차도 오지 않는 이곳에 뚜벅이가 올 수 있는 방법은 버스뿐이었다. 난생처음 발을 딛는 오도에 들어서 마을을 살펴보았다. 길에는 풀과 나무들이 가득했다. 서울과는 달리 나무들은 곧고 길게, 그리고 크게 자라고 있었다. 내가 보는 서울의 나무들은 항상 같은 자리에서 일정한 간격을 가지고 비슷한 크기로 자란다. 모두 쓰임과 역할이 있다. 미관을 해치지 않는 선에서 적당한 그늘을 만들어 주어야 했다. 보호수가 되지 않는 이상 허용되는 범위 이상으로 자라날 수 없다. 그러나 이곳의 나무들은 그냥 있었다. 버스가 다니는 길 저 너머에 그냥 존재하고 있었다. 그래서인지 그 나무들은 계속해서 크게 자라날 수 있었다. 버스 너머로 보이는 순간 사진을 찍으려고 했지만, 일정하게 자라지 않는 그들은 금방 사라졌다. 모든 풍경들이 관광지가 아님을 보여주고 있었다. 표지판은 어디에도 없었고, 마을의 이름을 알리는 비석조차 안 보이는 전봇대 뒤에 자리한다. 목줄을 하지 않은 강아지가 다가와서 우리를 속 보고 가거나, 주민들이 이방인들을 관찰한다.

새로운 것이 들어올 틈이 없어서인지 항상 조용하다. 어쩌면 소멸하는 중인지도 모르겠다. 시간이 갈수록 사라지는 사람들과 원래의 모습을 잃는 생태계의 모습은 모두 조용히 그 자리에서 없어지고 있었다. 그럼에도 그 고요함을 느낄 수 있는 이곳이 마음에 들었다. 소란스러움에 싸여 주변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도 모르던 내가 이곳에서의 체류로 인해 어떤 변화를 갖게 될지 궁금했다. 해가 지면 칠흑같이 까만 어둠이 시야를 아예 차단해 버린다. 그 너머에 무엇이 있었는지도 알 수 없게 색을 모두 잃어버렸다. 사실은 빛이 없다면 이 공간의 색은 원래 이랬을까 상상하며 내일의 탐색을 기대해 보았다.



오취·사도마을의 풍경들
사진 한승완



조금은 여유롭게 아침을 맞이하지 않을까 했지만, 생각과 달리 바쁜 아침을 맞이했다. 하지만 아무 소음도 없이 자연의 소리로 아침을 맞이할 수 있었던 게 얼마 만인가 싶을 정도로 좋았다. 공간만 바뀌었을 뿐인데 삶의 방향이 조금은 달라진 느낌이다.

아침 산책 때 어제 미처 보지 못했던 풍경을 마주하고 다른 시선으로 사물을 바라보며, 모두들 일터로 떠나 공터가 되어버린 마을이 온통 내 것인 양 즐기며 걸을 수 있었다. 도시에서는 어떻게 해도 누릴 수 없는 특별한 호사를 누린다는 기분 좋은 착각 속에 하루를 시작했다.

이곳은 겨울철이면 작은 굴막에서 이른 아침부터 늦은 오후까지 엉덩이를 바닥에 고정해 자리를 뜨지 않고 말 한마디 없이 묵언수행처럼 하루를 보내는 게 일상화된 곳이지만, 그런 삶의 터전에 낯선 이들이 호기심 가득한 눈으로 들어온다는 것이 비단 즐거운 일이 아닐 수도 있을 것이다. 하지만 가벼운 인사에도 반갑게 맞아주시고 시덥잖은 물음에도 이야기를 멈추지 않으시던 어르신들의 모습을 바라보고 있으면, 한겨울 추위에도 언 손을 녹여가며 굴을 까던 거친 손이, 뜨거운 햇살에 검게 물든 얼굴이 무엇보다 아름답고 고와 보였던 건 어쩌면 당연한 일일지도 모른다. 그런 어르신들의 모습들을 계속 보고 싶다는 생각에 연신 셔터를 누르던, 그 순간을 기억하고 싶은 날이다.



오취·사도마을의 풍경
사진 한승완

아침 아홉시

박시호

은 빛이 하물하물 갯벌 진흙 위
고요한 중 보골보골 방울 오른다

무어지 누구일까 다가가보니
구멍만 뚫 만들고 망을 보는 듯

누가 더 버티나 섬을 해볼까
기둥 두 개 세웠다가 다시 후다닥

고동은 그러던 동 가던 길 가고
나 혼자 땡볕 아래 못 이길 싸움



노을지는 갯벌의 윤슬
사진 한승완



경계에 서서

요거프레소 창 밖, 가게 옆 계단에 앉아있는 어르신의 뒷모습은 진분홍색이었다. 그 나이가 아니라면 쉽게 입지 않을 선명한 형광색 경량 패딩. 가게 밖에는 그 분 말고 보이는 행인이 한 명도 없었고, 카페 안 역시 혼자서 6인석을 차지한 나 말고는 손님이 한 명도 없었다. 서울이었다면 커피를 찾는 직장인과 학생들로 한참 북적일 평일 오후 2시, 전남 고흥 읍내의 그 카페가 그나마 익숙한 프랜차이즈 카페처럼 느껴진 건 배경음악으로 에스파의 'Spicy'가 흥겹게 울려 퍼지는 덕분이었다.

- 연옥, 체류일지 중 일부



결국은 연결이었다. 오늘의 일을 되새겨보니 그렇다. 어제와
오늘의 연결, 나와 너의 연결, 세대와 세대의 연결, 육지와 바다의 연결.
섬이지만 섬이 아닌 것처럼 육로가 연결된 오도의 오취마을처럼 말이다.
공식적인 일정도 그랬지만 그 외 시간에도 그러하니 신기한 일이다.
사람이란 무엇일까. 삶이란 무엇일까. 치열하게 고민하던 문제였다. 그러나
생의 최전선, 노동 앞에서 나는 많은 것들을 잊어버렸다. 그것이 잠시의
망각일지라도. 그보다 내가 보는 세상, 내 눈앞의 노동과 내 옆의 사람을
더 많이 감각했다. 그리고 그 순간마다 연결을 느낄 수 있었다.

노동이란 언제나 내겐 너무나 무겁고 부담스러운 것이었다.
세상과 나의 연결은 마치 매트릭스에서 뒷골에 링크가 되듯 강제적이고
괴로운 것이었다. 그러면서도 끊임없이 고민했다. 어떻게 하면 세상과
어울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나도 지우지 않고 너도 지우지 않고
세상도 지워지지 않은 채로 살아남을 수 있을까.

호기심이었다. 인간에 대한 호기심이 날 누군가와 연결하듯,
세상에 대한 호기심이 세상과 연결시키는 것이었다. 배 위에서 굴을
탈 때, 과연 어떻게 탈 것인가에 대한 호기심은 나를 적극적으로
만들었고 노동을 재밌는 일로 만들었다. 또한 솔직함이었다. 내가 느낀
바를 솔직하게 표현하는 것. 내가 느낀 나와 너를 그대로 표현하는 것.
누군가의 생일로 인해 우리는 서로에 대해 조금 더 솔직해졌다. 서로의
모습을 내보여야 우리는 연결될 수 있다. 스스럼없이 다가갈 수 있고
서로를 알아가고 나를 알아갈 수 있다.

그리고 바라봄이었다. 편견 없이 있는 그대로 바라보는 것.
그제야 사람이 보였고, 그제야 그 안에 숨을 쉬는 역사가 보였다. 이미
불타 없어져 버린 과거를 안타까워하며 도움이 필요하다고 말하는
계장님을 바라보며 우리 할머니를 떠올렸고, 우리를 붙잡고 마냥
이야기하고 싶어 하시던 할머니를 보며 외로움에 대해 생각했다. 그들과
나는 그렇게 연결되었다.

사람이란 무엇일까. 삶이란 또 무엇일까. 연결을 갈구하고 연결을
필요로 하는 존재, 그러한 존재들이 서로 연결되어 가는 과정. 어쩌면
깊은 고민보다는 직관적인 감각이 삶에 더 중요한 때도 있을지 모른다.
나는 오늘 연결을 감각했고 또 그로 인해 삶에, 생에 한 발짝 더 나아감을
느꼈다. 많은 일이 잊히겠지만, 오늘 느낀 연결에 대한 감각만큼은 꼭 내
삶 속으로 가지고 들어가고 싶다. 그리고 그 안에서 굴을 손질하듯 그
안의 의미들을 알아내고 싶다.



굴 캐시는 할머니
사진 한승완



물고기 낚시
사진 한승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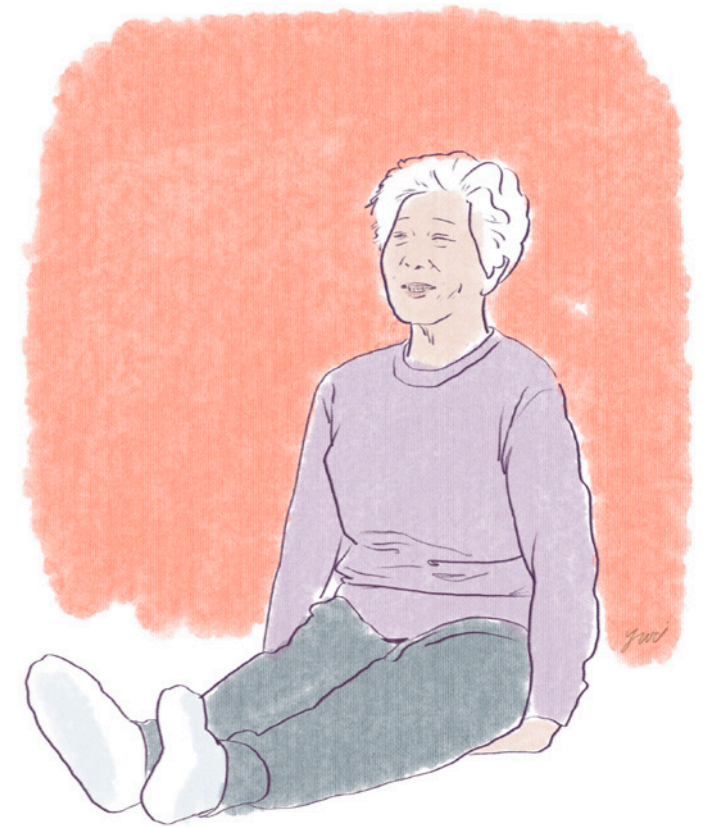
이유리 체류일지

일기, 이유리
23.11.21

오늘은 아침 6시 반에 기상을 했다. 처음 보는 고흥의 일출은 정말 아름다웠다. 하늘이 너무 넓었다. 해는 언제나 떠 있었지만, 건물에 가려진 채 조명에 의지하며 아침저녁이 언제인지 분간이 되지 않는 삶과는 또 다른 감각을 느낄 수 있었다. 햇빛을 쬐지 않고, 해보다 큰 조명 아래에 살고 있던 나는 밤에 쉽게 잠들 수 없었다. 새벽이 밝아올 때 스쳐 가는 빛과 함께 아침을 맞는 일이 많았다. 그렇지만 이곳의 해는 존재감이 컸다. 반투명한 유리 너머로 해는 여기 있다는 것을 강렬하게 내비쳤다. 여기에서는 밖의 시간과 맞추어 지낼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아무래도 오늘의 가장 기억에 남는 일은 주민들과 짧은 만남이라고 할 수 있겠다. 이곳 어르신분들은 이방인에게 관심이 많으셨다. 젊은 사람이어서 그런지 더 반갑게 맞아주셨다. 혼자였다면 선뜻 다가가지 못했겠지만, 함께 이야기를 나누게 되어 따뜻한 기억으로 남을 것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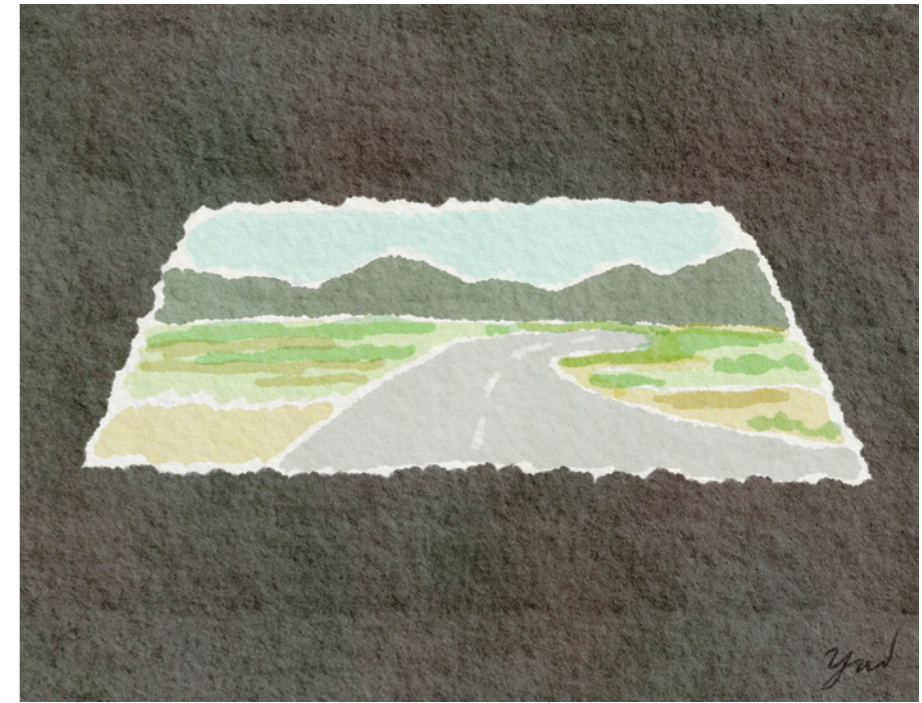
아직 2일 차인데 꽤 많은 시간이 흐른 것처럼 느껴진다. 하루를 일찍 시작하고 많은 야외 활동을 해서일까? 필요한 물건을 사러 시내로 나갔는데 갑자기 많은 간판과 네온사인, 인위적인 불빛들이 낯설게 느껴졌다. 도시에서 해야 할 일들이 생각나며 불안한 감정이 약간 다시 밀려왔다. 적막 속에서 찾은 평온함을 잊고 싶지 않았는지 폴로 뒤덮인 공간이 그리워졌다. 그렇지만 나는 오늘 밤도 도시에서 누리던 편리함을 그리워하며 잠에 들 것 같다.



오늘은 자유시간이 생겨서 그림을 3개나 그렸다. 3일 만에 처음 그림을 그렸다. 여기서는 내가 무얼 하고 사는 사람인지 보이기가 쉽지 않다. 매일 쓰는 글로 나타나는 사람도 아니고, 그림을 보여주는 일도 없어서 나는 가끔 아무것도 안 하는 사람인 것처럼 느껴진다.

그림을 그리고 있는데 숙소 사장님이 오셔서 관심을 보이시며 이야기를 하신다. 내 진로도 모르겠는데 자꾸 막내딸이 그림을 잘 그린다고 어떻게 하면 좋을지 물어보신다. 그래서 그냥 “그림 그리면 돈 못 벌어요~” 했다.

석 달 정도 된 느낌인데 3일이 됐다. 어제도 보고 오늘도 마주친 할머니가 우리가 떠나는 게 아쉬우신지 휠체어에 내려오셔서까지 말을 거신다. 평소에는 할머니, 할아버지분들과 대화도 거의 없는 내가 이럴 때만 미련이 남는다. 좋은 말과 표정으로 대신 대답해 주는 시가 나왔으면 좋겠다고 생각한다. 그러면 모두 영혼 없이 좋은 이야기만 오가는 세상이 될 수도 있겠지.



탁 트인 도로
그림 이유리

삶은 어느 것 하나 녹록지 않다. 이른 아침부터 부산을 떨며
굴을 따기 위해 양식장이 있는 곳으로 향했다. 굴이 덩굴 덩굴 매달린
양식장에 도착해서는 모두 흔들리는 눈빛을 하고 있었다.

평소에는 10망 이상을 가득 채워 굴막으로 돌아왔을 터인데,
겨우 2망을 하는 동안에도 어떻게 움직여야 할지, 어떻게 도와드려야
할지 몰라 종종걸음으로만 선장님의 뒤를 따라가기에도 힘겹기만 했다.
애써 키운 굴을 끌어 올리다 실수로 굴을 바다에 떨어트려도 헛헛한
웃음으로 넘겨주시고 아무 일 없다는 듯이 굴막으로 돌아와 굴을 까기
시작했다. 이 단순하고 반복 작업이 굴을 따는 것보다 더 어려운 일이라는
것을 그때는 알지 못했다.



조그마한 껍데기 사이에 꼬챙이를 넣어 굴을 온전한 형태로
꺼내는 일이 어제 굴막을 둘러보며 바라볼 때만 하더라도 한두 번 하면
할 수 있지 않을까 했지만, 쉬운 일이 아니었다. 헤어짐을 허락하지 않는
아웅다웅 붙어있는 껍데기를 기어이 잔혹한 이별을 고하며 떼어 냈지만,
결과는 판매할 수도 없는 비극적인 드라마의 연속일 뿐이었으니깐...

허리 한번 펴지 못하고 한평생 겨우 내내 굴막에 웅크리고 굴을
까는 어머님들의 담소에는 어느 소설보다 진한 감동과 메아리가 담겨
있을 것이다. 그 이야기가 계속되기를 바란다.

어선 위 오취마을 어촌계장님
사진 한승완

굴에도 나이트가 있다

한승완

파도가 심한 날에는 조금 더 촘촘히
살랑이는 바람에는 조금 더 넉넉히

각각의 날들의 간극을 좁히고서야
비로소 한 겹의 껍데기를 올려둔다

치열했던 그날들의 합이 모이고서야
비로소 영글어진다



캐내어낸 굴
사진 한승완

투둑, 빠지직,

으악! 엄마, 이게 뭐야?

/굴 껍질이야.

굴? 바다 냄새 많이 나는 거??

/응.

굴은 다 어디 갔는데?

/안에 있던 뽀오얀 굴은 이미 누군가의 뱃속에 호로록 들어갔을 거란다. 후후.

아까 물속에 있을 때는 검정케 보이더니 왜 이젠 하얘?

/그건, 네가 밟아서 굴 껍질이 부서졌기 때문이지.

우와! 멋지다!

/왜?

저렇게 하얀색을 숨기고 있었잖아! 아무도 모르는데. 나 그런 거 좋아!

/숨기는 거 좋아?

응! 난 숨는 거 좋아. 사람이가 나 안보이는 거 좋아.

/그래도 너무 자주 숨으면 안 돼.

왜? 엄마가 걱정하니까?

/그렇기도 하고, 자꾸 숨다 보면 네가 어디 있는지 까먹게 돼.

엄마가?

/아니, 네가 말이야.

나 알아. 내가 어디로 숨는지 알아.

/처음엔 알지. 그런데 찾아주었으면 하고 바라면서도 숨고 싶어서 자꾸만 더

멀리, 더 멀리 숨다 보면 아예 다시 돌아올 수도 없는 곳으로 가 있다고.

그럼 아무도 못 찾잖아...

/그렇지?

그건 싫어...

/그건 싫지?

응. 그래도 빠지직, 내가 하얀 거 알게 되는 거는 좋아.

/하하하, 완전히 부수어지기 전에는 스스로도 자기 속을 모르는 법이야.

엄마가 하는 말은 너무 어렵다. 헉.

/지금은 몰라도 돼. 지금은 그냥 굴 껍질은 까맣더라 하고 알기만 해도 돼.

그런 게 어딴어. 이미 알아버렸잖아.

/미안.



굴 까는 할머니
사진 한승완



연옥 체류일지

일기, 연옥
23.11.20

요거프레소 창밖, 가게 옆 계단에 앉아있는 어르신의 뒷모습은 진분홍색이었다. 그 나이가 아니라면 쉽게 입지 않을 선명한 형광색 경량 패딩. 가게 밖에는 그분 말고 보이는 행인이 한 명도 없었고, 카페 안에도 혼자서 6인석을 차지한 나 말고는 손님이 한 명도 없었다. 서울이었다면 커피를 찾는 직장인과 학생들로 한참 북적일 평일 오후 2시, 전남 고흥 읍내의 그 카페가 그나마 익숙한 프랜차이즈 카페처럼 느껴진 건 배경음악으로 에스파의 'Spicy'가 흥겹게 울려 퍼지는 덕분이었다. 곳곳에 흩어진 어르신 말고는 사람의 흔적을 찾기 어려운 동네 한복판에 왜 생겼는지 모를 세련된 가게에서 최신 아이돌 노래를 들으면서 생각했다. '참으로 기묘한 부조화다.'

그런데, 어쩌면 지금 내가 바라보고 있는 저 뒷모습이 나의 미래일 수도 있지 않을까?

사람은 누구나 늙는다. 늙음의 끝에는 모두에게 공평한 소멸이 기다리고 있다. 하지만 그걸 매 순간 상기하며 사는 건 너무 끔찍하기에 대부분 자신을 불멸의 존재처럼 여기며 치열하게 혹은 게으르게 살아간다. 난 대체로 후자에 가깝다. 마치 젊음이 무한한 샘물처럼 샘솟을 것 같으니 굳이 그 일을 지금 하지 않아도 언젠가 얼마든 할 수 있을 거란 착각 때문이다. 자원과 가능성이 넘치는 도시에 있으니, 핑계를 대기 더 쉬워진다. 지금 어떤 기회를 잡지 않아도 또 찾아올 거란 막연한 믿음이 있다.

그런 내가 서울로부터 4시간 반 거리에 있는 연고 하나 없는 지방 소도시로 이주할 계획을 세우며 생각이 달라지기 시작했다. 사전답사 겸 신혼여행지로 그 동네를 골라 머물렀다. 한적한 마을을 둘러보는데, 주민 대부분의 연령대가 나와 남편의 나이를 합친 걸 훌쩍 뛰어넘는다는 걸 실감하며 낯선 섬찝함을 느꼈다. 우리 역시 이들과처럼 이곳에서 늙어갈 텐데, 그때 우리 모습은 어떠할까? 대도시와는 또 다른 방식으로 늙어갈 이 마을의 미래는 어떠할까? 이미 곳곳에 폐가가 생기기 시작한 동네인데, 수십 년 뒤에는 병원을 다니기 쉬운 시내 근처로 이사를 가게 되려나?

만약 그렇게 된다면, 그때의 나는 아마도 30대의 나처럼 노트북을 충전할 수 있는 프랜차이즈 카페를 찾아다니지 않을 것이다. 그런 카페에서 흔히 틀어주는 멜론차트 상위권 아이돌 노래가 무엇인지도 관심이 없을 것 같다. 하지만 어쨌든 어딘가는 여전히 변화할 것이고, 나 역시 원하던 원치 않던 일상의 일부를 거기에 섞여 보낼 것이다. 지금보다는 훨씬 더 느린 발걸음과 굵은 등을 가지고 말이다. 그러다가 무릎이 아파 잠시 쉬기 위해 보도에 잠시 쏙그려 쉬고 있으면 누군가는 나의 뒷모습을 보고 오늘의 나와 똑같은 생각을 할지도 모른다. '케이팝을 들으면서 보는 풍경이 어느 할머니 뒤통수라니. 이 동네도 많이 변했네.'

문제는 그때의 나는 카페에서 한가로이 요거트를 짹짹거리며 바깥 구경을 하는 한가한 젊은이가 아니라, 앉기 위해 접은 무릎을 고통 없이 펼 수 있을지 걱정해야 하는 늙은이일 거란 사실이다. 그 모습이 도저히 상상이 가지 않는다. 아니, 앓았었다. 그러나 오늘 나는 나의 미래

뒷모습을 보았다. 천천히 소멸하는 지역에서 장소와 함께 소멸해 가는, 도시의 소음과 젊음에 취해 한 번도 깊이 생각해 보지 않았으나, 이제는 생생하게 고민을 해봐야 하는 늙은 나의 미래 말이다.



굴 까는 할머니들
사진 한승완

돌아오는 배
사진 한승완



영영 사라져 버리는 것

나즈막한 굴막에는 사람의 손을 떠난지 오래된 굴까는 도구가 언제 올지 모르는 주인을 기다리며 자리를 지키고 있었고, 한쪽에서는 한때의 영광을 재현하기라도 하듯이 몇몇이 익숙한듯 나른한 표정으로 굴막을 지키고 있었다. 어쩌면 바다와의 시간이 그만큼 얼마 남지 않았다는 반증일지도 모른다. 바다에서 얻었던 수많은 생명과 양식들로 이곳 사람들을 배불리고 입혔을 시간들이, 오래된 연인들의 이별처럼 그 순간이 무디게 다가오는 것이 느껴지는 오후다.

- 한승완, 체류일지 중 일부



굴 껍데기

연옥

껍데기는 죽어서 다시 갯벌로 돌아간다

하나의 생명을 품어 키우며 단단히 세운 가시가
무참히 부서져 쓸모없는 조각들이 되었다고 생각한 순간,

자신이 태어난 곳으로 다시 돌아갈 수 있게 된다

부서졌지만 또 다른 모습으로 생명을 품는다



바다에서 올라오는 굴
그림 이유리

거칠다. 두껍고 투박하다. 굴 껍데기다. 냄새가 났다. 죽음의 냄새였다. 죽음 속에서 움직이는 무언가의 냄새다. 죽음의 구역을 벗어나면 쉬이 사라져 버리는 부질없는 것. 그만큼 강렬하게 몸부림치고 있었다. 투박한 것은 그것만은 아니었다. 날 바라보는 그들의 눈빛과 내 귀에 들리는 목소리 또한 투박했다. “서울에서 왔어요? 담배 참 맛있게 피우시네.” 날 서 있는 목소리는 아니었다. 그보다는 투박하고 울퉁불퉁한 굴 껍데기의 목소리였다.

굴 껍데기를 품고 있는 것은 장난감 같은 햇빛이었다. 햇빛은 어린아이의 통통배를 감싸 쥐고 있었고 나는 그 광경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한참을 고민했다. 아니, 감각했다. 오돌토돌하고 딱딱한 표면이 감각되었다. 그러나 그 안에 담겨있는 매끄러운 결의 햇빛은 이렇게나 여린 것이었다. 나는 그 햇살 아래 다듬어지지 않은 나를 보았다. 나는 길게 빠져나온 빨간 머리칼처럼 튀어나온 존재였다. 담배를 문 입은 거리낌이 없었으나 나의 눈빛은 그럴 수 없었다. 두려웠고, 짜릿했다. 시선은 나를 그렇게 만들었다. 녹아들고 싶지는 않았다. 그보다 목격하고 감각하고 싶었다. 타인으로 남는다면 가능한 일이다.

햇살에 비친 것은 굴 껍데기 같은 바다. 그리고 그런 나를 투박하고 투명하게 바라보는 그들이다. 어쩌면 죽음에서 피어난 강렬한 생명의 몸부림처럼 멈춰있는 듯한 햇살 안에도 생동하는 그들이 있을 것이다. 다듬어지지 않은 그 세상에서 나는 타인으로 남을 것이다. 그렇게 그들과 나를 비춰 볼 것이다. 멈춰있는 듯하지만 새로운 낯섦이 피어나는 그 지점을 목격할 것이다.



굴껍데기
사진 위단비



앉아계신 할머니들
사진 한승완

살면서 처음 해 보는 인터뷰. 굴막에 들어가기 전에 심호흡을 몇 번이나 했는지 모른다. 용기 내서 들어간 굴막에는 어느 노부부가 있었다.

위단비 안녕하세요.

할머니 누구요?

위단비 혹시 얘기 좀 나눌 수 있을까 해서 왔거든요. 바쁘신데 뭐 제가 도와드릴 건 없을까요?

할머니 남편 없어요.

위단비 없어요? 아, 그냥 편안하게 몇 가지 여쭙보고 싶어서 왔어요.

할머니 이런 거 도와줘도 하지도 못해.

위단비 그래요? 힘들죠? 제가 여기 월요일에 왔거든요. 막 도와드리기도 하고 했는데, 어우 너무 힘들어서 어머님들 대단하시다, 그랬거든요.

할머니 아가씨들 이런 거 못 해. 말은 감사한디,

위단비 아까 저기 어르신들 계신 노인회관 갔다 왔어요.

할머니 남편 갔더니 노인들이 뭐라 그래?

위단비 어머님들 되게 고생 많으셨더라고요. 나중에 이 마을 이야기 담아서 책으로 만들어보려고 왔어요.

할머니 남편 근데 여기선 일할 게 없어.

할머니 해도 이런 거 못해.

위단비 두 분은 여기서 계속 사신 거예요?

할머니 네.

위단비 어저께 굴 따러 나갔었거든요. 계장님 배 타고 같이 나갔었는데 마을이 너무 예뻐가지고. 일하시면서 불편하시지 않으시면 몇 가지 좀 여쭙보고 싶어서 왔어요. 혹시 어머님은 성함이 어떻게 되는지 여쭙봐도 될까요? 저는 위단비고 소설책 쓰고 있어요.

어르신은 한참이나 망설이다 입을 열었다.

할머니 이생금.

위단비 아이고, 감사합니다. 근데 올해 굴 수확이 안 좋다던데, 그렇죠?

이생금 응, 안 좋으니까 그래.

위단비 아이고, 걱정이 많으시겠어요. 근데 이렇게 외부에서 놀러 오고 하면 좀 불편하세요? 아니면 좋은 것도 있어요?

이생금 바쁠 땐 불편하고 그라제.

위단비 빨리하고 갈게요. 죄송해요.(웃음) 마을 돌아다녀 보니까 가게가 없던데, 혹시 마을이 어떻게 변했으면 좋겠다, 이런 게 있으세요? 아까 얘기 들어보니까 목욕탕 있으면 좋겠다고 하시더라고요.

이생금 보건소에서 목욕탕도 했는디, 하다가 말아부렸어. 일주일에 한 번씩 젊은 사람들이 가서 도와주고 그랬어, 옛날에는.

위단비 가게도 없고 목욕탕도 없으면 심심하시고 외로울 때 있지 않으세요?

이생금 가게는 매일 차가 들어오니까 상관이 없어.

위단비 그렇구나. 저 어제 굴 손질해 봤는데 진짜 안 되더라고요. 굴 다 찢어지고 막. 죄송했어요.

이생금 옷 다 망치고.

위단비 네, 그래서 이렇게 힘든 일을 하신다니 되게 강한 분들이구나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도 살다 보면 힘들 때 있지 않으세요?

이생금 굴 까면 힘들지. 잠을 못 자서 힘들어. 여름엔 편한데 겨울 되면 힘들어.

이생금 굴 까면 힘들지. 잠을 못 자서 힘들어. 여름엔 편한데 겨울 되면 힘들어.

위단비 저도 살다 보면 힘들 때 있는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는 거예요. 어머니는 힘들 때 어떻게 하는지 궁금해요.

이생금 힘들 때는, 힘들 때는... 잊어야지. 사람 많이 모여서 이야기하고. 아는 데 가서 놀고 스트레스를 풀어줘야지.

위단비 맞아요. 저도 사람들이랑 있으면 좀 낫더라고요.

이생금 결혼했어?

위단비 결혼 안 했어요.

이생금 애인은 있어?

위단비 애인은 있어요. 결혼하려고 하는데 남자애가 아직 안 하겠다고.

이생금 왜 결혼을 안 해?

위단비 아직 자기가 준비가 안 됐다고.

이생금 그러면 당신하고 안 산다고 그래. 결혼 안 하면 딴 데로 간다 그러고. 배짱 있게 나가야지. 아들이 있으면 우리 아들하고 연결시켜 줄티디, 다 장가가고 없어. 자식 낳으려면 결혼을 빨리해야지, 30 되면 너무 늦어, 여자는. (굴을 주며) 이거 하나 먹어.

위단비 감사합니다. 잘 먹을게요. 마지막 질문인데요, 어머니, 혹시 산다는 게 어떤 거라고 생각하세요?

이생금 사는 것이? 즐겁기도 하고.(웃음)

위단비 힘들기도 하고?

이생금 힘든 건 세상 사는 거 다 그래. 자식 낳고 살다 보면 뭐 재미로 살고 그렇지 뭐. 즐거운 것은 즐겁게 하고 살아야지.

위단비 맞아요. 오늘 너무 감사해요. 애기도 같이 나눠주시고.

정말 궁금했다. 오취리에 사는 분들의 강인한 모습을 보면서, 삶을 받아들이는 눈빛을 보면서 어떤 마음으로 그렇게 강인해질 수 있는지. 인생에 대한 이야기를 나눌 때 느낄 수 있었다. 힘든 것보다 즐거운 것을 보고 살아가는 것이 어머니의 삶의 비법이라는 것을.

너무나 빠른 이야기일지도 모르지만 굴막에서 나와 어머니, 아버님의 대화는 뻔하거나 익숙한 느낌이 아니었다. 굴과 굴을 주고받는 것처럼 우리는 마음을 나눴다는 느낌이 들었다. 나는 즐거운 것도 힘든 것도 진하게 느끼는 사람이어서 훌훌 털어버리는 게 쉽지 않은데 어머니는 어떻게든 털어내려는 노력 끝에 방법을 터득하신 분으로 보였다. 마음의 따뜻함을 충분히 느끼고 돌아오는 길, 오취리의 바다처럼 마음이 맑아진 기분을 느꼈다. 그리고 언젠간 나도 삶을 받아들일 수 있기를 기대해 본다.



꽃무늬

이유리

할머니들은 온통 꽃을 달고 다닌다
모자에도, 스카프에도, 옷에도

할머니들에게는 꽃무늬가 일상이다

지나가 버린 세월을 감추고 싶으신지
꽃들은 자꾸만 화려해져 간다

그런 게 없어도 예쁘시다는 걸 잘 모르시나보다



굴 까는 할머니
그림 이유리



굴막에서 작업 중인 할머니들
사진 한승완

위단비 체류일지

일기, 위단비
23.11.23

질문은 어쩌면 처음부터 필요가 없었던 걸지도 모른다. 답은 그 안에 있었다. 삶이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 어떻게 하면 그 모든 것들을 받아들일 수 있는지. 묻지 않아도 알 수 있었다. 그들의 입에서 흘러나오는 세월에서, 눈과 눈으로 나눈 대화들에서.

즐겁게, 즐겁게 살으라고 그녀는 내게 말했다. 짧은 대화 안에서 몇 번이고 나를 걱정했다. 굴을 까서 입에 넣어주고 감귤과 고구마까지 내 손에 끝내 쥐어줬다. 고돼 보이고 힘들어 보이는 인생에서도 그녀는 늘 즐겁게, 즐거운 기억만 꼭 쥐고 살라 했다. 그녀의 눈과, 그녀가 준 굴과 굴과, 고구마와 낮은 웃음들이 내게 그렇게 말하고 있었다.

지난날은 오늘을 위한 날들이었던가. 다듬어지지 않은 자연스러움과 연결, 삶과 사람은 전부 오늘에 있었다. 결국 모든 것은 사람과 시간과 세월 안에 있었다. 사람을 만나고 대화를 나누는 이 순간이 결국 내가 이곳에 온 이유였다. 사는 건 무엇인가요. 즐겁게 좋은 것만 생각하고 사는 거지. 너무도 뻘한 질문과 예상에서 벗어나지 않는 답변. 그러나 그 안에 담긴 뻘하지 않은 진실. 언어화하기엔 너무나 벅찬 것들.

마음을 나누고 서로의 마음을 감각하는 것. 울퉁불퉁한 굴 껍데기에서 호수와 같은 바다를 지나온 길의 끝에서 만난 진실이다. 다섯 시간을 달려온 끝에, 5일의 시간 끝에 얻은 진실치고는 너무나 값진 것. 떠오르는 얼굴들과 순간들과 그 안에 담긴 이 깊은 마음들을 간직한 채로 나는 또다시 내 생의 최전선으로 돌아갈 것이다.

한승완 체류일지

일기, 한승완
23.11.20



남겨진 도구들
사진 한승완

어젯밤에 짐을 다 준비했다고 생각했는데 버스에 올라 음악을 듣기 위해 주머니를 뒤졌더니 책상 위에 올려놓았던 이어폰을 미처 챙기지 못하고 왔다면 얼마나 자신을 질책했는지 모른다. 이곳에 도착하고서야 비로소 이런 실수가 행운을 가져다 줄 수도 있다는 것을 느꼈다. 도시에서는 소음을 피하기 위해, 혹은 나만의 시간을 위해서라도 이어폰이 필수였지만, 이곳에서 만큼은 도시의 소음도 없이 자연에서 들리는 소리로 오후 내내 편안한 시간을 보낼 수 있었다. 기분 좋은 콧노래를 흥얼거리며 한적한 바닷마을을 걸을수록 이곳이 어쩌면 바다가 아니라 호수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다. 바람 한 점 불지 않는 바다는 한때나마 이곳을 드나 들었던 어선들의 무용담을 뒤로하고 지금은 자그마한 배들이 미동조차 없이 수면에 일렁이는 파도 한 점 없이 본연의 자신의 의무도 잊은 채 고요하게 자리를 지키고 있는 어선을 나무라 하지 않는 바다를 한참이나 바라보며 길을 걸었다.

그렇게 걷다 보니 마치 고요한 호수에 누군가 장난삼아 던진 조그마한 돌덩이에도 일렁이는 파도처럼 나지막한 굴막에는 사람의 손을 떠난 지 오래된 굴까는 도구가 언제 올지 모르는 주인을 기다리며 자리를 지키고 있었고, 한쪽에서는 한때의 영광을 재현하기라도 하듯 익숙한 듯 나른한 표정으로 굴막을 지키고 있었다. 이런 모습이 어쩌면 바다와의 시간이 그만큼 얼마 남지 않았다는 방증일지도 모른다.

당연한 듯 바다에서 얻었던 수많은 생명과 양식으로 이곳 사람들의 배를 불리고 입혔을 시간이 이제 곧 담담히 이별을 준비하는 오래된 연인들처럼 그 순간이 무디게 다가오는 것처럼 느껴지는 오후다.

“그런 거 안해! 이야기하려면 저기 가서 해! 이야기할 것도 없고 할 이야기도 없으께~”

어머님들의 이야기가 마을을 알리는 책으로 나온다는 소리에 어느새 78세 막내 어머님의 말문이 열렸고, 경계는 한순간에 허물어져 버리고 말았다. 이야기가 계속될수록 어머님들의 평생이 고스란히 전해졌다. 150가구가 넘어가던 마을은 이제 100가구도 남지 않았지만, 그때의 추억을 이야기하는 어머님의 눈빛은 그 시절 가장 빛났을 열여덟 소녀로 돌아가 있었다. 젊은 사람들이 없어서 자꾸 다운되고 힘이 없어진다는 말에 괜히 미안한 마음과 안쓰러움이 동시에 밀려왔다.

며칠 동안 살랑이는 바람처럼 불었다가 내일이면 흔적도 없이 사라질 우리들이 어머님들의 마음을 또 한 번 후벼 놓고 오는 건 아닐까 하는 생각에서부터 인터뷰를 마치고 돌아가는 우리를 향해 손을 잡아주고 뒤에서 들리는 “또 놀러와”라는 말에 어떻게 대답해야 하나 한참을 망설이다 끝내 대답 없이 돌아서는 우리의 뒷모습을 보고 어떤 생각을 하셨을지... 대답 없는 우리를 보고 한평생 바라보셨을 바다를 떠올렸을지도 모른다.

어머님들은 평생 바다를 향해 가슴속에 담아두었던 이야기를 다 꺼내 놓으셨을 것이다. 대답도, 말 한마디 없는 바다가 서운했을까? 아니면 후련했을까? 그래서 앉은 자리에서 보이지도 않는 바다를 바라보며 그 시절 건넸던 말들에 대한 바다의 대답을 듣기 위해 항상 그 자리에 있는지도 모르겠다.



최덕례 할머니
사진 한승완

여보세요, 바빠? 웬일은 무슨, 그냥 생각나서 잘못 눌러봤다. 통화 괜찮아? 10분?
그래 뭐 널널하네.

나 고흥. 고흥 알지? 어 고흥 유자. 어흥! 같은 농담 하려던 거 아니지? 하하하.

그러게, 뭐 어찌다 보니 그렇게 됐어. 알잖아 나 서울에 살지 않는 서울 사람인 거.
온 지 이제 3일째가 사실 시간이 별로 없었어. 첫날은 시차 적응하려고 바빴고. 무슨
시차냐니, 서울 떠나면 어디든 시차가 있지.

예를 들면 부산은 시간대는 비슷한데 초침이 서울보다 조금 더딘 느낌이야. 열추
비슷한데 내 걸음이, 아. 응 그래 버스카드 찍고 말해. 응 찍었어? 아냐 아냐 괜춘.
어디까지 말했지? 아, 부산 시차. 그래서 내가 걷는 게 너무 빠르다는거야. 적어도
서너걸음씩은 앞서 간다고 하더라. 이거 네가 한 얘기였나? 아 아니구나. 포항? 아마
3주쯤 됐을걸. 좋더라. 포항의 시간은 또 엄청 느린 거야. 내가 완전 외진 데 있어서
그랬는지 몰라도 시차가 한 -3시간 정도 나는 거 같더라고. 아 그리고 왜 그렇게 맨날
졸린지.

고흥은... 고흥은 좀 이상해. 시차는 별로 없는 것 같긴 한데... 중간중간 시간과
소리가 함께 멈춰있는 곳이 있더라고. 아니 아니, 시적인 표현이 아니고 진짜.
오취마을이라는 곳이 있거든? 그래그래 오취리 할 때 그 오취. 냄새가 다섯 가지는
아닌 거 같고. 아닌가? 진짜 냄새가 다양하긴 해. 1순위는 굴 냄새고. 내가 말했나?
나 굴 따러 왔다고. 아 너한테 한 말 아니구나, 미안.

어디까지 말했더라? 아, 오취. 그러니까 이게 무슨 프로젝트라서 이 마을을 탐방해야
하는데 관광지도 아니고, 뭘 느껴야 할지도 영 막막한 거야. 정말 습습하달까, 그
왜 엄청 오래된 냉면 맛집 가면 육수가 너무 습습하다 못해 잉? 하잖아. 꼭 그런
느낌이야. 동네가 너무 습습해. 아, 걷다 보면 썩어가는 굴 껍데기 냄새는 아주
강렬했다. 그거 하나는 아주 제대로 취두부 맛.

여보세요? 듣고 있지? 아 그래 택시 내리고 말해. 기다릴게. 너 아직도 택시 타냐.
택시값 엄청 올랐던데. 그래 뭐 이 시간에 어쩔 수 없지. 응.

근데 너 여기 와보면 좋을 거 같아. 아니, 갑자기가 아니고, 오늘 숙소에서 보는데
저 멀리 연두색 발이랑 거무튀튀 바다 한가운데 길이 주욱 나 있더라고. 그런데
해가 아주 천천히 지고 있는 거야. 반 정도는 이미 컴컴하고, 아직 햇살이 남은 곳이
그렇게나 따듯해 보이더라고. 달려 나갔지. 일부러 천천히 걸었어. 어쩐지 음미하고
싶은 기분이어서. 그렇게 걷는데 딱 다섯 발짝 정도 앞에서 계속 그 노랑 옷자락이
끌려가는 거야. 아니, 옷이 아니고 햇살이 닿은 부분이. 그리고 딱 다섯 걸음 앞에서
왜가리들이 푸다닥 날아가고 말이지. 너 그런 거 좋아하잖아. 나도 좋아하지. 그런
묘한 순간. 아무튼 여기는 그런 곳이 꽤 군데군데 있어. 재밌어. 그래, 그러니까 유자
타령 그만하고 고흥 오는 빠른 길 찾거나 해봐. 하하하.

아, 나 이제 밧데리 별로 없다. 끝자. 아? 우리 통화 꽤 오래 했네. 뭐야, 너 10분 밖에
없다더니.



임영애 할머니
사진 한승완



임영애 할머니
그림 이유리

일기, 박시호
23.11.23

인정할 건 해야 한다. 마음을 버려낸 구구절절 설명은 좀 구차한 것 같기도 하고 생각한 바를 글자로 풀어내는 능력도 요새는 그만 휴업하신 듯하여 좀 에둘렀다. 그런데 이제는 마지막 날이라 더 이상 갈 곳이 없다. 꼼짝없다. 꼼짝없다니? 고흥의 사도/오취마을에 올 때의 마음이 딱 그러했을 거다. 꼼짝없이 해야 하는 일들과 만나야 하는 사람들이 있었고 언제나 그렇듯 어중간한 11월이 되면 업으로 하는 일들은 매듭이 지어져 가고 새삼 모든 것들이 약간 성가시면서 2023년을 그만 조기 마감해 버리고 싶은 기분이었달까.

유자향을 생각했던 마을에서는 바다를 힘껏 농축한 굴 내음이 진동했고 사방에 굴 무덤이 그렇게나 많은데 걸어 다니는 사람은 하루에 네 명 정도가 최대. 무슨 인터뷰를 한다고 했었는데, 여기 사람이 살긴 사는 걸까?

새로운 곳에 가면 늘 그곳의 시간차와 온도(특히 사람의 온도)를 각인하는 나는 이틀째에 시차 적응을 끝냈으나 온도는 아직이었다. 도무지 사람과 마주해 이야기할 일이 없었으니까. 그 흔한 슈퍼, 분식점, 세탁소도 없었다. 아니, 사실 굴막을 제외하고는 아무것도 없는, 사도 오취마을은 그런 곳이었다. 오늘, 마을 사람들을 만나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듣는 날. 내가 하려던 질문은 ‘어르신에게 굴은 무엇인가요?’ 였다. 그리고 이 마을이 어떻게 변하면 좋겠냐는 (지금 생각하면 너무나 전형적이어서 진정성까지 의심되는) 질문이다.

첫날부터 궁금했던 여자 노인정에 방문했다. 할 것이 없다고 손사래 치는 모습을 웃음으로 닦고 엉덩이를 들이밀며 들어가 앉는다. 아직 아무런 대화도 시작하지 않았지만 단단한 눈빛들 속에서 이들의 지난한 세월이 한 켠씩 읽힌다. 대화라는 것이 필요할까? 질문은? 오히려 손이, 발이, 얼굴이, 그 넉넉한 치마폭이, 꽃무늬 덧신이 나는 만지고 싶었지만 그럴 용기는 없었다. 누군가 젊은 시절이 그리지 않으신지 물어보자 “젊음은 안 돌아와. 돌아 오도 않을 걸 머더러 그리워 함서

살것어. 우리는 혼잔께. 다 혼잔께 이라고 그냥 매일 노는 거지”

살아온 세월이 살아갈 날들을 한참 덮은 할머니들은 내가 바라는 것이 무엇인지, 하고 싶은 것이 무엇인지도 모른다고 하셨다. “뭐가 있는지 알아야 하고도 싶은데, 뭐슬 할 수 있는 지를 몰라. 우린” 이후로 무슨 대화들이 꽤나 오갔다. 아흔이 넘으신 할머니가 참 정정하달지, 여기 슈퍼는 도대체 왜 없어졌는지, 아들내미는 찾아오는지 같은 시시콜콜한 이야기로 오랜만에 노인정은 북적였다.



정채례 할머니
사진 한승완

사실, 나는 이 복적임이 싫다. 왠지떨린 방문 뒤에는 으레 찾아오곤 하는 곱절의 공허함. 그것을 다시 우리가 채워주리라고 약속할 수도, 담보할 수도 없기 때문이었다. 든 자리보다 커질 난 자리를 생각하면, 애초에 떠들썩하게 든 자리를 만들기가 싫은 느낌이라 해야 할까. 뭐 그런 종류의 복잡하고 각이 진 감정들로 대화에 온전하게 집중하지 못했다.

슬슬 허리가 아파 오기도 하고, 있은지도 꽤 오래되어 자리를 마무리하고 나오려는데 말하는 것을 다 잊어버렸다며 가장 말씀이 없으시던 할머니가 나의 계산적인 손등 위에 손을 차곡하게 덮으신다. 응응, 잘 가. 잘 가.

아차... 안됩니다 할머니, 이러면 제 손이, 제 마음이 차디찬 게 들통나 버리잖아요. 제가 괜히 정들까 봐 눈도 오래 맞추지 않던 게, 혹여나 또 오라고 하시면 따뜻이 웃으며 거짓말하기 싫어서 성급히 일어난 나쁜 사람인 게 들켜 버리지 않나요. 이걸, 이 따듯하고 갑작스러운 손은 저는 너무 곤란해요, 라고 생각하며 한 손을 더 엮는 나.

감사합니다. 할머니. 건강하셔야 해요. 미지근하게 말하고 신발을 꺾어신는 밖에는, 이제는 철없던 시절처럼 또 온다거나, 다시 뵈어요 같은 백지 어음은 발행하면 안 되니까. 나는 쉬이 쓴 편지지만, 그네들은 또 곱씹고 또 곱씹을 수도 있다는 걸 아니까. 우리 할머니도 나의 그 말을 마지막까지 기다리고, 곱씹고, 또 올 거라고 믿다가 고만 못 기다리고 가셨다는 걸 이제 아니까.

할머니들의 손을 잡으며, 여전히 서툴게 안녕을 고하며, 추스르지 못한 감정과 웃음을 같이 어미며, 마지막을 어떻게 매듭지어야 할지. 이 글의 마지막을, 나의 2023년의 마지막을 꼼짝없이 마주할 아무것도 할 것이 없는 영겁의 시간을.



손 인사하는 서경엽 할머니
사진 한승완

박시호 어머니, 저 간단한 인터뷰를 하나 하고 싶은데 시간 괜찮으세요?

할머니 아이구, 무슨 인터뷰를 한다구. 그런 건 저기 사람 많은 데 가서 해야지.

박시호 아네요. 제가 어머님 한 분하고 일대일로 이야기를 좀 하고 싶어서요. 꿀따는 애기랑. 저 여기 살짝 앉아도 될까요? 제가 어제 꿀 따보니까 이게 보통 어렵지 않더라고요.

할머니 그래요 그럼. 여 앉아. 보니까 어제 여 옆에 오셨던 그 팀인갑네.

박시호 아, 어제 보셨구나. 아니 뭐 외지 사람들 왔다 가면 다 알지 뭐. 그런데 어머님은 여기 온 지 얼마나 되셨어요? 원래 여기서 태어나셨어요?

할머니 아니 뭐 여기서 결혼했지 저 딴 곳에서 왔지. 나로도에서.

박시호 아~ 나로도! 그럼 여기 오셔서 꿀 따는 거 얼마나 하신 거예요?

할머니 한 50년 했어, 세상에 내가 나이가 이제 70인데.

박시호 엄마야, 제가 산 세월보다 훨씬 오래 이거 만지셨구나. 저는 서울에서 왔는데, 서울 사람들은 고흥 하면 유자밖에 모르거든요. 그래서 여기 와가지고 유자차나 좀 먹으려나 했는데 유자가 도통 없는 거예요.

할머니 유자 하는 곳이 있어. 저기 풍양이라고 그리 가야 돼. 여기는 다 부락이 다 다르니까. 이 지역은 또 꿀만 하고. 또 저기 나로로 가면은 거기는 또 바지락을 하고.

박시호 세상에, 고흥이 또 너무 크기도 너무 큰 거예요. 저쪽 동네는 또 커피 농장한다 그러고.

할머니 지역마다 다 다르니까. 석류도 고흥 석류라고 그러는데 또 하는 곳이 있어.

박시호 그럼 고흥 사람이라고 뭐 유자가 천지에 다 달린 게 아니네.

할머니 옛날에는 많이 심었는데 다 없애버렸어. 왜 그러냐 하면 굴이랑 유자랑 같이 작업을 하니께. 여기는 지금 꿀 작업을 하고, 거기는 유자를 하고 시기가 겹치니까. 근데 올해는 흉년이 들어가지고.

박시호 그러게요. 꿀도 예전같지 않죠. 물이 따뜻해서 그런가.

할머니 물이 따뜻해서 그런 거 같애.

박시호 원래는 더 커요? 더 많이 잡히고?

할머니 하나도 폐사가 없었지 옛날에는 거의. 근데 지금은 다 벌어져 버렸잖아 저렇게. 옛날에는 잘 됐는데 지금은 다 못해. 다 이래 나쁘게 되었지 뭐.

박시호 수입도 줄고 아주 힘드시겠어요.

할머니 아이고, 여기 여자분들이 굉장히 힘들어. 잠을 못 자니까.

박시호 어머, 잠을 왜요?

할머니 이거 한다고 밤에 나와요. 많이 하면 많이 버니까. 잠을 안 자고 새벽에 나와. 이것도 한 철이니까 새벽 한두시 반 되면 다 나와브러. 도시는 한참 잘 때지.

박시호 힘드시겠어요. 그럼 주로 남자분들이 꿀을 따오고 여자분들이 손질하시는 거죠?

할머니 전부 수작업이니까. 기계로 할 수도 없지 뭐. 모양이 다 다르니까. 전부 수작업을 해야 하는데 옛날에 계신 분들이 다 돌아가셨거든. 그러니까 그렇지. 젊은 사람들은 안 하려고 그러잖아. 사람도 없고 거의 외국 애들 데려다 하는데 그 사람들도 인건비가 비싸. 일 년 열두 달 하는 게 아니니까.

박시호 그렇구나, 아, 어머니 이거 오만둥이죠? 이걸 어떻게 먹는 거예요?

할머니 자잘한 거 아구찜 할 때 하고, 깨끗이 세척을 해가지고 삶아 가지고 먹어야지. 이게 이빨 조금 시원찮은 사람들이 먹기가 힘들어도 맛은 있어. 이걸 막 방망이로 갓고 후드려 패야 돼. 갓은 양념을 해서 볶아놓으면 아주 맛있어. 힘드니까 다 안 하지.

박시호 이게 미더덕처럼 툭 터뜨려서 줌만 먹는 게 아니구나. 아 참, 저희가 이렇게 얘기한 거는 모아서 책으로 내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어머니 이야기가 책에 실려요.

할머니 책에를? 음마.

박시호 그럼요. 그래서 성함과 나이가 필요합니다. 성함이 어떻게 되세요?

할머니 강상임. 수풀림 아니고 임자 할 때 임. 말은 임무 할 때 임.

박시호 네네. 그리고 나이가 일흔이 맞으세요? 솔직히 믿기지 않거든요. 저희 어머니보다 10년은 젊어 보이시는데.

강상임 해산물을 싱싱한 걸 먹어싸서 그렇지. 꿀을 많이 먹어서. 여기 장수한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여기 107세 할머니도 계시고 그래요. 거의 97세, 8세도 많아. 근데도 할머니들이 건강하시고.

박시호 그러니까요. 등도 안 굽으시고 엄청 정정하셔서 놀랐어요. 만날 쪼그려서 일하시는데 어떻게 그렇게 건강하신지.

강상임 일을 워낙들 많이 하니까 무릎은 많이 아파. 이것만 하는 게 아니라 봄 되면 바지락을 까요. 까서 꿀처럼 택배로 보내. 그것도 전부 여자들이 다 해.

박시호 남자분들은 일 안 하고요?

강상임 그때는 놀아. 제주도처럼 여자들이 벌어서 먹고. 남자들은 바다일 하다가 칠팔십 되면 안 해요.

박시호 저는 어제 굴 깔 때도 어디다 찍어야 되는지를 몰라서, 다 시커머니까 찾지를 못해서 막 헤맸는데 바로바로 찾으시네요.

강상임 이거는 입술 있는 데다가 해야지. 요다가 딱. 이것도 다 기술이니까. 우리 다 몇십 년씩 하니까.



강상임 할머니
사진 박시호

박시호 안 보고도 하실 거 같아요. 굴은 씨를 뿌려갖고 하는 거예요? 가리비에 붙여서 한다면데.

강상임 여기서 붙이는 것은 안 되고 저기, 사천 그런 데 가서 동표를 붙여 와요. 여기 것은 바로 여기서 하면 폐사가 돼.

박시호 그렇구나 희한하네요. 그것도 하시는 분들이 또 따로 있다면서요.

강상임 아이고 요것도 굉장히 과정이 복잡해요. 포자를 갖다가 떼다가, 거는 과정도 엄청 복잡하고. 그것도 시기를 맞춰서 해야지 안 그러면 안 붙어. 이거 붙이는게 우리 친정이에요. 해가지고 붙여놓으면 우리들은 가서 사 와. 몇 개 이렇게 줄 치대는 거 하나에 얼마씩 그렇게 주고 사 와. 그래 갖고 이렇게 줄에다가 쪽 묶어놔. 이거는 딱 양식처럼 이렇게 밥을 준다거나 약을 친다거나 그런 건 전혀 없어요. 자연으로 큰 거야. 그냥.

박시호 이렇게 큰 거를 자연이라고 하는 거죠?

강상임 자연으로 크는 거지. 양식이다 그러면은 모르는 사람들은 뭐 약도 치고 먹어도 주고 그런 줄 알아. 고기 키우는 것처럼. 근데 이거는 달라요. 그냥 두고 줄을 묶어두면 자기들이 크고 그런거지. 그런데 올해는 크다가 중간에 이렇게 폐사가 된 거지. 일기 때문에 그런지. 한 번씩 폐사가 되면 돈이 엄청 까지지.

박시호 듣다 보니 어머님은 꿀에게 애정이 엄청 많으신 것 같아요.

강상임 많지. 이게 없으면 나는 안되지.

박시호 어머님한테 꿀은 뭐예요?

강상임 삶의 직업이지. 이것이 없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못해. 겨울에 놀아야 돼요. 돈도 벌지 못하고. 근데 이게 있으므로 우리가 이놈을 팔아서 벌어먹고 사는 거지.

박시호 고마운 거네요.

강상임 고마운 거지, 우리들한테 꿀은 굉장히 중요한 고마운 존재예요. 요거 없다 하면 아주 실망해. 이게 안 됐다 그러면 정말 힘들어. 여기 다 이걸로 돈벌이 하고 살잖아요. 잘 된 해는 3월까지 계속

일하는데, 올해는 한 달 되면 끝날지도 몰라. 완전히 손해지 손해. 근데 올해 못 해 먹으면 내년에 잘 될 거라고 생각하고 살아. 보상이 있으면 몰라도 그것도 아니고, 올해 못 하면 다음에 또 하겠지 그런 기대로 살아요.

박시호 처음엔 굴 까는 거 우습게 보고 와서 아르바이트해야지 했다가, 아이고 30분도 못 앉아 있는데.

강상임 요게 위험해. 손도 찌히고. 우리들도 다 몇십 년 해도 깜짝하면 큰일 나요. 연장으로 하다 보니까. 아니 그런데 식사나 들고 다니나 모르겠네.

박시호 아직이에요. 슈퍼가 없어서 멀리 나가서 장 봐와서 해먹고 그랬어요. 다들 식사를 어떻게 드세요?

강상임 멀리 마트에 가서 시장 봐서 먹고살고 그래요.

박시호 그렇구나, 너무 좋은 얘기 들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사도마을 어촌계장님
사진, 한승완

굴을 양식하면 굴만 생기는 게 아니다. 바다서 끌어올린 양식 굴을 태어나서 처음 마주한 오늘 알게 된 사실이다. 삐죽삐죽한 성게, 미더덕을 닮은 오만둥이, 이름 모를 작은 물고기, 그리고 게. 세상에, 굴에 함께 붙어있던 게가 얼마나 많은지 발을 잘못 옮겼다가는 실수로 일가죽을 말살시킬 것만 같았다. 마치 죽은 듯 굴에 붙어있는 오만둥이나 능숙한 몸놀림으로 손가락 사이를 빠져나간 물고기와는 다르게, 게는 자신이 살아있다는 걸 허둥거리는 몸짓으로 분주하게 알리면서도 제 힘으로 갑판을 빠져나가지 못했다. 오늘 나에게 주어진 임무는 굴을 까는 거였지만 자꾸만 게들이 눈에 (그리고 발에) 밟혔다. 이들도 엄연한 생명인데, 하나하나 건져서 바다로 돌려보내야 하는 게 아닐까? 최소한 함부로 죽는 일이 없도록 조심스럽게 발을 디뎌야 하지 않을까?

아니다. 양식장에는 그런 여유가 없었다. 그곳은 오직 하나의 목적을 위해 존재하는 공간이다. 바로 굴을 키우고, 까서 속을 꺼내고, 껍질을 버리는 것. 하루 종일 까야 할 굴이 한가득 쌓여있는데, 굴에 우연히 붙어있었다는 이유만으로 함께 끌어 올라온 다른 생명까지 친절하게 신경 쓸 여유는 없어 보였다. 끌려온 게에겐 아무런 잘못이 없었고, 게를 구석으로 썩 밀고 굴을 까는 데 열중하는 나에게도 역시 잘못이 없었다. 우리는 그저, 생명과 생명이 교차하는 길목에서 마주쳤고 가급적 안전하게 각자 갈 길을 가길 바라는 존재에 불과했다.

거기에서 나는 조금 다른 질문을 떠올렸다. '이 게가 신의 미움을 사서 이렇게 굴 까는 인간들에게 밟혀 죽을 운명을 타고난 것인가?' 게가 무슨 대단한 죄를 지을 지능이 있겠는가. 그저 다른 게들에 비해 조금 불운했을 뿐. 하지만 하찮은 확률과 무작위의 장난으로 오늘 죽게 된 것이다. 그게 바로 모두에게 공평한 자연의 섭리다. 마치 누구에게나 아무 이유 없이 자연재해와 사고가 닥칠 수 있는 것처럼 말이다. 자연 속에서는 원하지 않아도 태어나고 원하지 않는 순간에 죽는구나. 나 역시 자연의 일부로서 그 원리에서 결코 자유롭지 못할 것이다. 그런데 왜일까. 그 사실이 나를 오히려 홀가분하게 만들어주었다.

아주 어린 시절부터, 나의 마음 한 편에는 늘 억울함이 꺾꺾 눌러 담겨있었다. 나를 세상에 나오게 한 엄마가 나를 죽일 듯 미워했고



괴롭혔기 때문이다. 그래서 억울한 마음에 물을 수밖에 없었다. '나는 왜 태어났을까? 난 태어나고 싶었던 적이 없는데, 아무도 나에게 선택권을 주지 않았는데, 왜 생으로 소환되어서 이렇게까지 고통받아야 할까?' 나의 엄마마저 나를 원하지 않으니 살아야 할 이유가 없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내 의사와 상관없이 주어진 생명과 마찬가지로, 죽음 역시 나의 마음대로 쉬이 선택할 수 없는 현실이 원망스러웠다. 끔찍한 부조리라고 생각하며 이를 박박 갈았다. 삶에 대해 이렇게까지 힘들게 고민하는 삶은 너무도 피곤했다. 그래서 고흥에 처음 왔을 때도 고민에 짓눌려 꾸벅꾸벅 잠이 왔던 것 같다.

그런데 이제는 조금 알 것만 같다. 삶이란 양식 굴에 붙어 사는 게에게도, 숨이 붙어있는 세상 모든 존재에게도, 나에게도 똑같이 아무 이유 없이 찾아오는 것이다. 그 사실을 게가 억울해하지 않듯 나 역시 억울할 이유가 없다. 대단히 슬퍼하거나 분노할 이유도 없었다. 자연이란 그냥, 그렇게 자연스러운 것이다.

그렇게 탄생각을 하다가 굴 껍질을 까는 날카로운 도구를
굴이 아닌 오른손에 박아버리는 바람에 하마터면 패혈증에 걸려 죽을
뻔했다. 통통 붓는 손을 붙들고 병원으로 실려 가며 많은 사람에게
심려를 끼쳤고 한 분을 울게 만들기까지 했다. 나도 이리다가 손가락을
자르거나 쇼크가 와서 급사하는 게 아닐지 아예 걱정하지 않은 건
아니다. 그런데 뭐, 오늘 내가 밟아 죽인 게 몇 마리인데 이렇게
쥐똥만 한 생채기 때문에 진짜 죽는다면 그 역시 충분히 일어날 수 있는
일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었다. 물론 파상풍 주사를 맞고 항생제를
먹은 덕분에 멀쩡히 살아서 이렇게 글을 쓰고 있지만 말이다.

구태여 죽음을 찾아다니지 않아도 언젠가 나를 자연스럽게
찾아오겠지. 그렇게 살다 보면 굴을 까다가 죽음에 골몰하다가 진짜
죽을 뻔하기도 한, 이런 괴상하고도 우스운 날도 만끽할 수 있지
않겠는가.



고양이
사진, 한승완

지역은 결코 좁지 않다. 좁은 건 나의 시야였다.

‘인구소멸’이라는 단어를 활자로 접했었다. 유입되는 인구는 없고 남아있는 사람들은 떠나거나, 늙는 지역. 그래서 인구가 점점 줄어들어서 아예 없어질 위기에 처한 곳. 머릿속에서 상상한 인구소멸 지역은 이미 사실상 소멸에 가까운, 텅 비고 황폐하고 아무도 찾지 않는 장소일 것만 같았다.

하지만 소멸이란 그저 몇 글자로 함축되지 않는 긴 시간이자 과정이었다. 20년, 30년 뒤에는 정말 지도에서 지워질지언정 그 시점이 닥치기 전까지의 인구소멸 지역에는 여전히 인구가 남아있다. 아니, 그냥 남아있는 정도가 아니라 꽤 큰 소리를 내며 존재감을 뽐내기도 한다. 굴막 뒤편에서 무언가 우르르 쏟아지며 갈리는 굉음이 들려서 가봤더니 트럭 위로 굴 꺾데기가 쏟아져 내리고 있었다. 주렁주렁 매달린 굴 덩어리를 배 위로 꺼내어 작은 덩어리로 자르고, 두드려 부수는 과정이 부산했다. 소리뿐인가. 낭만적인 바다 내음과는 꽤 거리가 있는 진한 비린내 역시 무시할 수 없었다. 아마도 굴 꺾데기에 말라붙은, 살아있던 무언가의 살점이 썩어가는 냄새일지는 모르겠으나 나에게서는 죽음보다는 생명에 가깝게 느껴졌다. 그런 냄새가 진동할 정도로 굴 꺾데기가 산처럼 쌓으려면 그걸 키우고 잡아 올려 다듬는 시간이 수십, 수백 시간 쌓였을 것이니까. 마을 곳곳에서 쉽게 발견할 수 있는 굴무덤을 보면서 생각했다. 이 동네가 소멸의 길을 걷고 있을지언정, 종말이 찾아오는 날까지는 강렬하게 생동하고 있겠구나.

올해 들어서 굴을 까는 일을 처음 배웠으며, 새벽 세 시부터 저녁 다섯 시까지 계속되는 일이 고되다고 웃는 한 여성분을 만났다. 굴막에서 대체로 일을 하는, 주름이 자글자글한 어르신들에 비하면 꽤 젊은 나이인 것 같았다. 인도네시아에서 왔다는 외국인 노동자분도 만났다. 비록 능숙한 솜씨로 굴 덩어리를 해체하고 있었지만, 이주노동자들이 받을 수 있는 비자를 생각하면 마을에서 평생 굴을 다루신 분들보다는 일한 시간이 더 길지는 않을 것이다. 누군가는 이곳에 새롭게 뿌리를 내리고 낯선 일을 배우며 살아간다.

그렇다고 고흥에 사는 모든 사람이 굴 양식에만 종사하는 것도 아니다. 고흥이 커피 재배로 유명하다는 것도 오늘 처음 알았다. 일출이 멋진 해수욕장 근처에서는 서핑을 할 수 있다는 것도, 한 시간 동안 천천히 회전하는 전망대가 있다는 것도 배웠다. 언젠가 다시 고흥에 올 날을 준비하기 위해 지도 앱을 켜고 각 장소의 위치를 확인하는데 아무리 줌아웃을 해도 보이는 땅 모두가 고흥이었다. 세상에, 이곳이 이렇게 큰 줄이야. 인구 밀도가 곧 면적의 크기와 비례하는 서울에 너무 익숙했던 나머지 인적이 드물다는 이유로 지역이 클 수 있다는 걸 생각조차 못했다.

문득 지난주에도 갔었던 신도림역 승강장을 떠올렸다. 비좁은 공간 속 터질 것 같은 인파에 끼어서 당장 환승하려면 어느 계단을 올라가야 하는지 찾느라 마음이 급했었다. 그때 나의 시야는 눈앞에 보이는 좁은 승강장 입구, 딱 그 정도로 좁았던 것 같다. 그 바닥을 벗어나면 서울보다도 더 작고 아무도 살지 않는 어느 황량한 황무지밖에 없을 거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그게 지금 당장은 아니다. 소멸 속에서도 생명이 생동한다. 난 지금 그 생동의 현장 한가운데에 서 있다.



떨어지는 굴 한 알
사진 한승완

연옥 체류일지

일기, 연옥
23.11.23

나는 누구를 위해 여기에 와서 기록을 남긴 걸까?

솔직히 말하자면, 이 프로젝트에 지원할 때는 오직 나 자신만 생각했었다. 몇 년 안에 서울을 떠나 4시간 반 거리의 지역으로 이주할 준비를 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고향에서 보내는 4박 5일이 내게 유용한 지식이나 통찰을 가져다주길 바랐다. 그리고 뭔가 막연하게 우리가 고향에서 하게 될 일이 그 지역에 도움이 되는 거니까 이런 기획이 나왔겠지, 하면서 내심 내가 무슨 대단한 기여를 한다는 생각에 뿌듯했었다. 여기에 오기 전까지는 고향이 지도 어디쯤 있고 얼마나 큰지도 몰랐던 서울 촌뜨기의 큰 오산이었다. 그런 오해의 연장선에서, 오늘 할 예정이었던 인터뷰 질문으로 이런 걸 준비했었다.

- 마을에 청년들이 많이 왔으면 좋겠나요?

- 마을에 어떤 것들이 새로 생기면 살기 좋을 것 같나요?

그렇게 노인정에 방문해 80, 90대 정도 연령의 어르신들께 두 질문을 드렸고, 처음 들은 답변은 예상을 크게 벗어나지 않았다. 마을에 청년이 오면 활기를 띠어 좋을 것이고, 뜨거운 물이 펄펄 나오는 목욕탕이 생겼으면 좋겠다는 기대. 그런데 그 뒤에 모두가 입을 모아 덧붙이시는 말씀이 하나 더 있었다.

“어차피 곧 죽을 건데 우리가 뭘 더 바라겠어.”

그 뒤에 어민회관에서 50, 60대 어른들을 만나 마을의 과거와 미래를 열심히 이야기하다가 돌아 나올 때 이런 말씀을 하셨다고 한다.

“여기는 미래가 없어. 돌아가면 다시 오지 말어.”

마을을 살기 좋게 정비하고 시설을 보수하는 데에 반대할 주민분들은 아무도 없을 것이다. 그래서 동네를 활성화하기 위한 다양한 개인과 단체들의 노력이 무용하거나 불필요하다고 말하고 싶은 건 아니다. 그것과 별개로, 지나가듯 툭툭 던지는 주민분들의 말씀에서 묻어나오는 어떤 진실은 차마 무시할 수 없었다. 바로 마을이 불가항력적인 소멸의 길을 걷고 있다는 사실. 그걸 덤덤하게 받아들이며

농담 반 진담 반처럼 던지는 선언. 우리는 어차피 다 죽고 사라질 것이니, 여기서 구태여 애쓸 필요가 없다.

겨우 일주일도 목지 않은 외지인인 내가, 그 앞에서 무슨 말을 할 수 있겠는가? 더 잘될 거라는 응원도, 또 찾아와서 뭐라도 해보겠다는 빈 약속도 할 수 없었다. 그런 마음을 주민분들이 고마워할 수는 있을지언정, 어떤 유의미한 변화나 기여까지 나아갈 수 있다고 말할 자신은 없다. 난 그저 잠시 머무르며 조금 더 빨리 떠나는 사람들보다 좀 더 많은 것들을 본 목격자에 불과하다. 내게 주어진 일은 기록이니 지금처럼 매일 본 것을 성실히 적고 있을 뿐이다. 그게 다다. 최선을 다해 쓰면 쓸수록 이상하게도 할 수 있는 말이 없어져 간다. 거스를 수 없는 무언가에 있는 힘껏 저항하는 영웅이 웅장한 전율을 선사한다면, 시류에 몸을 맡기고 닥쳐오는 모든 걸 품을 줄 아는 지혜 앞에서는 저절로 고개가 숙여지고 숙연해진다.

여기에서의 경험은 이제 더 이상 오직 나를 위한 것이었다고 말할 수 없게 되었다. 그렇다고 마을이 나로 인해 어떤 대단한 희망을 얻은 것도 아니다. 나는 누구를 위해 여기에 와서 기록을 남긴 걸까. 소멸을 마주한 장소를 스쳐 지나가는 이방인의 역할과 가치는 무엇일까.



손 인사하는 할머니들
사진 한승완

한승완 아버님은 이곳에서 태어나셨어요?

할아버지 여기서 태어나서 84년 살았지.

연옥 팔십넷이요? 전혀 그렇게 안 보이는데요.

할아버지 그렇게 안 보인다고? 아까 점심 먹으러 갔는데 거기 아줌마는 나보고 90살 같다고 글든디.

한승완 말도 안 되죠! 그게 90이면 너무하지!

할아버지 날마다 놀러 다닌께 그려.

연옥 아버님 성함이 어떻게 되세요?

할아버지 뭐 할라고?

연옥 마을 돌아다니면서 마을 분들 이야기 듣고 책 쓰려고요. 성함이 어떻게 되세요?

할아버지 정자 문자 수자. 정문수.

한승완 아버님은 여기서 무슨 일 하셨어요?

정문수 농사도 짓고 양식도 하고 다 했네. 내가 굴 양식을 고흥군에서 제일 먼저 한 사람이야! 한 줄을 선창 끝에 시작한 것이 잘 되더라고. 그때부터는 동네 사람들이 너도 나도 달려든 거야. 그래가지고 고생했다고 한 구간이 50m 구간인데 다섯 줄을 주더라고. 71년도에 전국 양식 교육이 있다고 해서, 고흥에서 다섯 명을

연옥 어떻게 굴 양식을 할 생각을 하셨어요?

정문수 굴 양식이 토석식, 송지식, 그리고 소화식이 있는데 처음에는 여기서 포자를 해도 잘 되었어. 한 2년간 잘 되었는데 안 되더라고. 보통 되는데 잘 안되고 굴이 싹 벌어져 버리더라고. 올해도 10월 15일 안에 굴이 많이 벌어져 버렸어.

한승완 평소에 굴 양식하면서 제일 힘들었을 때가 언제예요?

정문수 너무 가정 얘기까지 할 필요가 없는데 집사람이 아파가지고 병원에서 32년간 병원에 신고 다녔어. 작년 봄에 떠났는데 그때가 제일 힘들었어.

한승완 실 때는 뭐 하세요?

정문수 할 거 없잖아.

연옥 그럼 낮에 소일거리로 뭐 하세요?

정문수 친구들이 전화하면 나가서 점심먹고 놀다가 들어오고 그게 일이야.

이유리 여기 젊은 친구들이 별로 없잖아요. 젊은 친구들이 많이 오는게 좋아요? 아니면 없는게 나아요?

정문수 들어오면 좋지만 안 들어오잖아.

이유리 젊은 친구들이 와서 뭐 했으면 좋겠어요?

정문수 딱히 할 게 없어. 농사짓는 것보다 양식이 좋지만, 굴이 잘되면 좋지만 안되면 망하는 것이라... 양식 수입이 고정적으로 되는 게 아니라서. 그래도 많이 와서 일하면 좋지.

한승완 마을에 뭐가 있으면 젊은 친구들이 많이 올까요?

정문수 양식밖에 없잖아. 축사 같은 것도 자리가 있어야 하는데 자리가 없어.

연옥 아버님 젊을 때는 마을에 몇 명 정도 계셨어요?

정문수 학교 관사까지 해서 147호까지 있었어. 그때는 사람들도 버글버글하고. 일하려고 하면 젊은 사람들이 다 해주고 엄청 좋았어. 그런데 요즘은 누가 여기 살겠어. 그러니깐 사람들이 없지. 젊은 사람들이 그래서 없는 거야.

연옥 아버님은 마을을 떠나고 싶으신적 없으세요?

정문수 떠나고 싶은 생각은 못해봤어. 먹고 살기 바빴으니깐... 한때 순천으로 가려고 했지만 노부모 있지, 한계가 있었어. 아이들 교육하려면 돈도 있어야 되지. 없는 서러움, 못 배운 서러움 때문에 여기 있는 거야. 고향 지킴이야 내가. 지방에 살면서 어촌계장, 새마을 지도자 등 안 해본 게 없어.

이유리 고맙습니다. 좋은 말씀 너무 많이 잘 들었어요.



오래된 가게
사진 한승완

마을주민 인터뷰

아티스트 5인 - 김재순, 최덕례, 이귀임,
정채례, 서경엽, 임영애
오취마을 부녀 경로당,
23.11.23, 85m 39s

의현 안녕하세요. 저희 마을 돌아다니면서 책 하나 만들려고 왔어요. 어르신들한테 궁금한 것 좀 가져왔어요. 편하게 말씀해 주시면 돼요.

재순 책 만들라고? 글은 여기까지 오겠네 책이.

승완 마을에 저희처럼 못 보던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잖아요. 그게 좋으세요, 싫으세요?

채례 우리하고 같이 거석을 안 한께. 대화도 안 해보니까 몰라.

재순 자기들끼리 왔다가 그냥 구경하고 가본께. 우리들하고는 직접 대화는 안 해봤제.

채례 글고 늙어서 우리는 암것도 몰라. 나이가 다 80이 넘었으께.

승완 나이 드신 만큼 동네에 대해서 제일 잘 아는 게 어르신들이지.

채례 근디 늙은 사람들은 뭐 말귀도 못 알아들으니까.

승완 나중에 마을이 점점 작아지고 사람도 별로 없으면 걱정되는 게 뭐예요?

재순 없지 뭐.

채례 자식들이 걱정이지, 뭐 죽어블은 뭐.



승완 옛날에 사람 많았을 때랑 지금이랑 느낌은 어때요? 분위기랑?

재순 오메, 분위기가 다운이제. (일동 웃음) 완전히 다운이제. 사람이 없으니까 우리가 통 힘이 없어. 인자 우리 없어지면 이 동네에 사람들도 없어. 젊은 사람들이 많아야 할 것인데 지금 4~50명도 못 돼.

연옥 그러면 마을 떠나는 분들은 왜 떠나시는 거예요?

재순 직장이 옛날부터 객지에 있었으니까. 직장을 못 잡은 아기들은 여기 와서 많이 살고 있어요. 하우스에 농작물 심어서 벌이 하고 있어. 소도 키우고.

시호 혹시 마을이 변할 수 있다면, 어떻게 변하면 좋겠다 하는 게 있으실까요? 이렇게 되면 살맛 날 것 같은데 하는 것들요.

채례 우리는 늙은게 신경이 안 쓰여. 내일모레 곧 죽을 사람들이 그런 신경을 누가 쓸 거요.

재순 늙은 사람들은 뭣이 어차면 좋겠다 그런 마음도 없어. 인자 벌이를 못 하러 나간게 맨날 아침밥 먹고 여기 와서 놀다가, 또 저녁에 집 가서 밥 먹고 자고.

승완 만약에 목욕 시켜주시고 그런 분들이 일주일에 한 번 오는 거 두 번 오면 더 좋지 않으시겠어요?

재순 일주일에 한 번씩 목욕 시켜주면 얼마나 좋아. 목욕탕 갈라든 지팡이 짚고 고흥까지 가야 돼.

재순 목욕탕을 아예 이 동네에다가 지면 좋겠는데, 누가 여기다가 목욕탕을 지어 주겠어.(웃음)

귀임 옛날에는 보건소에 있었는데 고장 나고. 시방도 다리 건너가면 남탕은 있어.

채례 그때도 늙은 할매들만 했지. 우리같은 젊은 사람들은 하지도 않았어. 인자 나이를 많이 먹어 갖고 어디 가도 모다고 오도 모다고. 우리 서울 바닥 갔다가는 어디 찾아가도 모대 진짜.

시호 여기 모여서 할 수 있는 놀이나 재밌거리가 있으면 좋으실까요? 뜨개질이나 바느질이나.

채례 인자는 우리 배우도 못 해. 글고 사람이 쪼까 숫자가 많아야 되는데 사람이 없어.

의현 어르신은 뭐 필요한 거 없으세요?

영애 내가 나이가 제일로 여기서 많은게 저 사람들 따라 가야지.

승완 그러면 입 심심할 때 드실 주전부리 같은 거 갖다 놓으면 어때요?

재순 처음에 저런 사람들이 가게 지어갖고 어찌고저찌고 한다 하드만 아무 소리도 없어. 우리 동네는 원래 옛날부터 가게를 전부 없애 버렸어. 부녀회에서. 근디 가게 없어도 살아지것드만. 고흥 가서 사 오고. 있으면 좋겠지만 누가 살 사람도 없어.

채례 시장 가서 된장이나 계란 같은 것도 이런 거 다 싣고 온게. 노인들이 읍내까지 가는 게 힘이 들어. 술 잡수는 분들이 술 한잔 여기서 사서 먹을 데가 없어. 음료수 하나도 못 사 먹고.

의현 어른신들은 전부 굴 따면서 사셨어요?

재순 여태까지 하다가 인자 몸이 이렇게 망가져버려갖고는 못 해.

의현 어제 저희 굴, 두 망 겨우 깎다고 깎는데 진짜...

재순 우리도 늘상 해도 죽어. 그러니까 몸이 다 망가져 버렸잖아.

채례 사 먹은 사람들이야 편하게 한 지 알고, 말도 못 하게 되제잉.

재순 그거 깎 기계는 없어. 다른 것은 기계가 나오디, 기계를 못 만든다요.

유리 여자분들이 굴 손질하고 남자분들은 배 타러 나가잖아요. 반대로 해보고 싶다는 생각하신 적 있으신가요?

재순 여자들은 힘이 없어서 못해. 젊을 때는 같이 가기도 했는데. 옛날에 우리가 할 때는 손으로 하지만 지금은 기계로 다 해줘. 기계가 그냥 이렇게 올려서 망태에다 담아 버려. 그러니까 지금 꿀한 사람들은 옛날에 우리들 하던 거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여.

의현 어른신도 일 오래 하셨어요?

영애 나 혼자 있으니까 암것도 안 해.

재순 (임영애 할머니를 쳐다보며) 구십 두살 묵었어.

승완 그러면 시집 오기 전에는 어디서 사셨어요?

영애 뒷마을에서 살다가 여기서 살다가 또 광주 가서 살다가 광주 사태가 나서 그냥 와버렸어. 전에는 꿀도 많이 하고, 농사도 짓고 그랬는데 인자 집에 암것도 없어. 자식들은 서울에 다 있고 나 혼자 이려고 있는게 쓸쓸해.

승완 굴막에서 굴 까실 때 무슨 생각들을 하세요?

채례 뭘 생각을 해, 많이 까서 많이 벌어야지. (일동 웃음)

승완 조금 쉬고 싶거나, 내가 여기서 왜 이걸 하고 있나 이런 생각 안 드세요?

재순 왜 안들것어. 그러면 화장실 갔다가 잠깐 서있다가 드러 누워있다가 들어와서 또 까고 그래. 우리들도 시간이 안 가서 죽것어.

경엽 사람 죽이는 동네제, 힘들어. 쌀 짓는 것도 편한지 아는데 그것도 힘들어.

단비 젊고 바쁘게 움직이는 사람들 보면 어떤 생각이 드세요?

채례 우리도 저리 젊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 뿐이지 뭐.

승완 젊었으면 뭐 하시려고. 서울에 살았으면 어땠을까, 이런 생각들 하세요?

재순 젊음은 돌아오지도 않거니와 만날 생각해 봐도 안 돌아와. 그만큼 나는 아예 생각도 안 해브러. 돌아오도 아닐 것을 뭐더러 생각을 해. 공계 지금부터 딸애들이나 며느리들한테 항시 몸 생각하고 살라고 그러지.

유리 이 마을은 남자랑 여자랑 노인정이 나눠져 있잖아요. 이유가 따로 있나요?

재순 처음에 여기를(현 부녀경로당) 쓰라 그랬어. 동네이장이. 남자들은 저 위애가 비어 있으니까 쓰라 그랬고.

승완 여기서 누가 제일 막내세요?

재순 내가 제일 막내여. 78살 묵었는디. 지금 한참 살림할 나인디 수술을 해서 아무것도 못해. 아퍼서. 작년에 어촌계장네 집에 꿀을 까러 가서 3일 까고 하루 쉬고 간다 그랬는데 한 열흘을 아파 버렸어. 그래 갖고는 우리 아들이 이제 절대 가지 마라 그래서 인자 안 가.

의현 근데 어른신들, 꿀을 왜 꿀이라고 하세요? 꿀 따러 간다고.

재순 사투리어 우리 사투리.

의현 그럼 진짜 벌꿀은 뭐라 그래요?

전원 그것도 꿀이제. (일동 웃음) 그거이 진짜 꿀인디 우리는 꿀을 보고 꿀이다 그래브러.

시호 저희가 밤마다 모여서 글을 쓰는데, 어젯밤에는 시를 썼어요. 유리 님이 할머니들한테 시를 썼거든요. 그거 여기서 읽어드리면 어때요?

유리 제목은 꽃무늬입니다. 할머니들은 온통 꽃을 달고 다닌다. 모자에도 스카프에도 옷에도 할머니들에게는 꽃무늬가 일상이다. 지나가 버린 세월을 감추고 싶으신지 꽃들은 자꾸만 화려해져 간다. 그런 게 없어도 예쁘시다는 걸 잘 모르시나 보다. (전원 박수)

재순 늙어서는 맨 고운 것만 입고 싶어. 나는 원래 젊어서부터 화려한 걸 좋아했어.

승완 이 마을에 외국에서 일한다고 사람들 오잖아요. 그런 분들 보면 어떤 생각 드세요?

전원 짠하제, 먼 나라에서 여까지 와서 돈 벌고 있으니까 짠하지.

승완 만약에 앞으로 겨울에 굴을 못 하게 되시면 어떨 것 같아요?

재순 어떻게든 꺼내야지. 다른 거 하고 싶어도 못해. 할 것도 없고.

의현 그것도 궁금하다. 굴 어떻게 먹어야 제일 맛있는지 추천해주세요.

재순 피굴이 제일 맛있어. 껍떡채로 구워 가지고 먹으면 더 맛있고. 찌서 목고, 초장에다가 양념 무쳐서 횡굴로 목어도 맛나고.

시호 저희 이만 일어날까요? 어르신들 힘드시겠어요.

의현 어르신들, 저희가 시간 많이 뺏았네요. 가볼게요.



오취마을 부녀경로당에서
사진 한승완



2부 질문과 편지로

128

어느새 찾아온

184

낮선 곳으로

마을에 들어설 때 굴껍데기가 쌓인 곳을 지났습니다. 어느새 오취-사도마을이라는 낯선 곳이 더이상 낯설지만은 않습니다. 체류의 시간을 거쳐 도시로 돌아온 일상에서의 낯섬을 마주하는 순간들이 생겨나기도 합니다. 고흥의 어촌 마을 사람들을 만나고, 마을의 곳곳을 거닐던 시간들이 기억으로 남았습니다. 이전과 다르게 무언가 변화한 것이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어느새 찾아온

껍데기 하나
껍데기 둘
껍데기 셋
껍데기 넷
껍데기 다섯

박시호
이유리
위단비
한승완
연옥



썩데기 하나

박시호, 연극

하는 게 너무 많아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 모르겠다는 시호의 고민에 동료 예술가는 “그게 장점이지. 유니크하잖아.”라는 답을 해줬다고 합니다. 맞아, 시호는 정말 그래. 세차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자신이 전생에 인어였을 거라고 믿는 사람, 욕심을 버리고 싶다고 하지만 그 누구보다 많이 앞장서서 무언가를 하는 사람, 예술과는 떼려야 뗄 수 없는 사람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시호는 날마다 과제처럼 써야 했던 체류일지를 조금 힘들어했습니다. 괜히 부담을 준 게 아닌가 하여 걱정했던 밤에도, 야심한 새벽까지 노트북 앞에서 고민하며 한 글자, 한 문장씩 푹푹 눌러 담은 마음을 기록해줬습니다. 이 인터뷰는 할머니의 투박하지만 따뜻한 손이 자기 손을 잡을 때 그 손을 냉큼 잡아버리지 않는 사람과 비밀 얘기하듯 속삭이던 날의 대화입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시호님은 낙관적인가요? 비관적인가요?

저는 굉장히 낙관적으로 사는 비관적인 사람이거든요. 기본적으로 사람을 잘 믿지 않고, 부정적인 상황에 대한 생각이 먼저 드는데요. 근데 제가 그런 사람이라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일부러 더 낙관적인 생각을 많이 해요. 낙관을 많이 주입시키는 노력형 낙관자라고 하겠습니다.

고흥 오기 직전 어떤 마음이 드셨나요?

채굴을 하면서 마음이 좀 비워지길 바랬어요. 굴 따는 일이 고난이도의 단순 노동이니까. 뇌파 측정 같은 걸 한 적이 있는데, 항상 두뇌가 과부하되어 있대요. 머리가 너무 많은 일을 하고 있다는 뜻이라더라고요. 요새 불명이다 뭐다 해서 멍 때리는 기술이 많지만 전 그것도 잘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집중해서 굴을 따고 손질하다 보면 시간이 잘 갈 테고, 머리도 좀 쉴 수 있겠지 하는, 그런 기대가 가장 컸던 것 같아요.

생각 정리를 위해서였네요.

근데 그렇게 어려운 작업일 줄은 몰랐죠. 그래도 되게 많이 비워졌다고 생각해요. 약간의 위험과 리스크도 있고, 돈과 직결되는 행위니까 굉장히 고도로 집중해야 했어요. ‘이 비싼 걸 망치면 안 되는데’하는 생각으로 다들 집중해서 했던 것 같아요. 그때 뇌파 측정을 했으면 아마 초록색이 아니었을까. 목표한 바가 잘 이뤄졌다고 생각합니다.

개인 시간이 많이 주어졌다면 뭘 하면서 시간을 보냈을 것 같으세요?

저는 고흥에서 시간을 길게 쓰는 훈련을 좀 해봤는데요. 체류일지에도 썼지만, 해를 따라간다면 하는 식의 여유는 도시에서 없었던 터라, 낮부터 어두워질 때까지 한 곳에서 시간이 가는 걸 몸으로 느껴볼 수 있었으면 어땠을까 싶어요. 그런 시간을 영상으로 담아가서 다른 동료나 친구들에게 보여주고 싶었고요.

산책 또한 그런 훈련이 아니었을까 싶은데, 그때 주로 무슨 생각을 하셨나요?

산책을 시작할 때는 분명한 목적이 있었는데 오히려 뭘 찾으려고 하니까 뭐가 보이지 않더라고요. 그리고 인스타에 올릴 만한 사진 거리를 찾다가 별로 찍을 게 없네 하고 느끼는 순간들이 있었고. 그래서 그냥 특별한 걸 찾지 말고 젓어 있자, 그냥 존재하고만 있자, 최대한 비운 채로 걸었어요. 걷다 보면 마주치는 곳들이 있겠지 하면서. 목적 없이 가는 게 굉장히 사치스럽다고 느껴졌고, 그게 너무 좋았어요. 가다가 소 키우는 아저씨가 분재랑 꽃 같은 거 엄청 자랑하셨는데, 3~40분을 서서 얘기를 듣고 있었는데도 재밌는 거죠. 그러다 본능적으로 배고프니 뭘 좀 먹어야겠다 하고 또 천천히 발걸음을 돌려서 돌아오는 거죠. 아무것도 끼어들지 않았던 그 시간이 너무 좋았어요.



유독 더 좋았던 산책이 있으셨어요?

많이는 못 했는데, 햇빛을 따라갔던 때가 되게 좋았어요. 이게 병인 것 같은데 그 산책도 목적 없이 나갔거든요. 촬영을 하려고요. 내가 해를 따라가는 걸 촬영해야지 하는 목적으로 처음엔 굉장히 천천히 걸었거든요. 부자연스럽게 천천히 걸었어요. 4배속 돌렸을 때 본래 속도가 보이려면 그랬어야 돼 갖고. 근데 그렇게 걸었더니 햇살이 너무 빨리 갔던 거죠. 거리가 좁혀지지 않는 거예요. 그때가 저는 제일 기억에 남아요. 나중에 와서 찍힌 거를 돌려보니까 되게 느리게 걷는다고 생각했는데도 여전히 빨라요.

그럼 누군가에게 찍어줄 수 있겠냐 부탁하거나, 같이 해보고 싶은 마음은 안 드셨어요?

사실은 이걸 약간 프로토타입 같은 거였는데, 같은 시간에 그런 걸 할 여유는 없었어요. 매일매일 사람들이 다르게 느끼는 것들을 얘기 나눌 수 있었으면 좋았겠다 싶어요. 누군가 오늘 뭘 느끼고 왔는데 재밌어 보이면 내일 동참하거나 같이 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런 부분은 좀 아쉬워서 시즌 2를 기대해야 하나 싶었죠.

만약 시즌 2가 있다면 새로운 사람들과 가고 싶으세요? 아니면 이번에 함께한 멤버들과?

좋은 건 사실 같은 사람들이죠. 같은 사람들이랑 두 번 세 번 갔을 때에 달라지는 것들이 더 재미있을 것 같고, 그게 쌓여야 의미 있는 거고요. 사실 한 번 가서 알 수 있는 건 없다고 생각해요. 사실은 표면이죠. 지금 보고 있는 것은. 우리는 일종의 오리엔테이션 하고 온 거예요. 고흥이 넓다는 걸 알고 온 거죠. 아직 오취에 들어가지 못했어요. 그래서 레지던시와 같은 방식이 되게 유효하겠다 생각했거든요. 시간을 두고 살면서 그곳의 시간에 적응하고 사람들도 좀 알게 되고, 무언가를 만들게 되고 그러는 거죠. 살아야죠, 살아봐야 얘기할 거리들이 생기는 거고. 방문해서는 그냥 이방인의 시선일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시호님은 주변 사람들에게 어떤 예술가, 어떤 사람으로 설명되고 있나요?

정의 내리기 어렵지 않나요? 설명하기 너무 힘든 사람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애초에 저를 대신 설명해 줄 수 있는 사람이 많지 않고, 결국 제가 저를 설명해야 하고. 그리고 장소에 따라 제가 어떤 사람인지 바뀌는 것 같아요. 소위 본캐, 부캐 이런 게 있잖아요. 저는 근데 다 본캐인 것 같은 거죠. 그래서 정리가 필요하다고 느끼는 것도 있어요. 누군가 나를 소개할 때 “시호는 진짜 재능이 많은 친구인데 원래 연극했다가 기획하고, 예술단체도 운영하고 있고, 환경 관련한 활동하고, 다이빙도 하고, 그러면서 가끔 번역도 해.” 2개가 넘어가면 제가 느끼기엔 비전문적으로 보이는 거예요. 어떤 걸 잘라서 말해야 될지, 본캐가 되게 유동적이라서 어려운 것 같아요. 그리고 어떤 정체성도 부캐로 보내고 싶지 않아서. 그래서 가는 곳마다 돌려 쓰는 것 같아요. 누군가 저를 유니크한 사람이라고 칭해줬는데 그 말이 굉장히 마음에 들었어요.

고흥에서 본인의 좌표를 찍는다면 어디에 계실까요?

X축, Y축이 있는 도표를 생각했어요. 다른 분들이 축에서 많이 올라가 있다고 생각하고, 전 ‘재 아직 원점에 있는 것 같은데’ 느껴질 정도로 굉장히 미미하게 올라와 있는 것 같아요. 이 축은 되게 상대적일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누군가는 “시호 님 꽤 많이 보고 느낀 것 같은데 여기쯤 아니야”라고 할 수도 있겠죠. 근데 저는 오취·사도마을의 가능성이랄까, 할 수 있는 걸 넓고 크게 봐서 그런 것 같아요. 더 발굴해낼 것들이 많다고 생각이 들어서 아직은 원점 가까이 있는 거죠.

마을의 그래프 자체가 되게 큰 거네요.

첫날에 도착했을 땐 그래프가 되게 작았어요. 그래서 볼 게 별로 없나 보다 싶었죠. 슈퍼도 없고, 뭐 없네. 5일이나 있을 필요가 있나?(웃음) 아마 그날의 느낌으로는 절반 이상 와 있었을 건데, 하루 이틀 지나니까 나는 그대로 있고 마을이 계속 커지는 거예요. 사실은 마을이 숨어 있었던 거죠. 굉장히 작다고 믿었던 그래프가 실은 끝이 안 보일 정도로 컸구나. 희미해서 내가 발견하지 못했을 뿐, 내가 그 위에 서 있던 거구나 했죠.

걷다가 잠깐 이야기 나눴을 때 의욕을 버리고 가고 싶다고 하셨죠. 두고 오셨나요?

제가 하고 싶었던 말은 욕심을 버리고 싶다는 말이었을 거예요. 그 짧은 5 일 동안 글을 써야지, 영상을 만들어야지, 콘텐츠를 올려야지 의욕이 되게



많았는데요. 오히려 비어 있으면 담을 수 있는 게 더 많았겠다 싶어요. 슈퍼가 없는 걸 확인하면서 욕심이 많이 사라졌어요. 무언가를 살 수 있는 곳이 아예 없고 갖고 있는 것만으로 해결했어야 됐잖아요.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식탐이라던가 돈 쓰고 싶은 마음이 되게 많이 줄던데요. 뭐가 없으니까 오히려 풍족한 느낌이 드는 거예요. 원하는 것이 명료해지고. 그동안 너무 많은 것들에 둘러싸여 살고 있었다는 느낌도 들고요. 내가 욕망했던 건 진짜 욕망이 맞나? 매체로 접한 수많은 이미지 때문은 아니었을까? 우리 막 마을에 슈퍼도 없고 트럭이 와서 생필품을 산다는 얘기를 듣고 경악했었잖아요. 처음에는 안쓰러운 마음이었다가, 그렇게 많은 기능과 다양한 맛이 필요한가 싶더라고요. 아휴, 우리는 선택지가 너무 많잖아요. 그에 비하면 거긴 심플라이프 그 자체죠.

그럼 욕심을 잘 두고 오신 거네요.

꽤 두고 온 것 같아요. 서울에서 멀리 떠나 있을 때마다 훈련 같다는 생각을 해요. 고흥에 가서 마음이 편했다 해도 결국 다시 돌아올 곳은 도시잖아요.

돌아오기 싫어도 현실적으로 이곳에 살아야 되고, 여기서 돈을 벌어야 하는데, 계속 '오취마을 좋았는데...' 라는 마음만 갖고 살 수는 없는 것이라서, 그곳에 있을 때 좋았던 생각이나 마음가짐을 여기에서도 가능하게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느낀 좋았던 마음, 감정, 비워짐 같은 것들을 도시에서도 해볼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경험해 봤으니까 마치 내가 거기 있는 것처럼 속도를 조절해 보고, 선택을 줄여보고. 그런 예행 연습을 할 수 있는 좋은 곳이 아니었나. 일상에서도 '내 방 안에 작은 오취마을', '사도마을 버전의 오늘 하루', 뭔가 그렇게 내가 덧씌우는 연습을 해볼 수 있는 거죠. 여기도 가끔은 그곳과 비슷하고 살만해. 세미 오취마을 정도로는 가능해 같은 느낌으로. '오취력'이 떨어지면 또 가야겠지만.(웃음) 아직은 땀감이 좀 있다.

가져온 것은 그런 마음일까요? 땀감 같은.

네네. 땀감이라는 비유를 하고 보니까 도시에서는 계속 부탄가스를 쓰는 느낌이거든요. 엄청 빨리 닳고, 화력도 엄청나서 확 태우고, 좀 있으면 또 딸깍 딸깍 하면서 새걸로 바꿔줘야 돼. 땀감은 미친 듯이 화르르 타지는 않아도 오랫동안 적당하게 따뜻함을 주면서 계속 타고. 쓰레기를 남기지 않고. 적어도 내년 겨울까지는 버틸 수 있는 마음의 땀감을 가져온 것 같네요.

소멸, 변화, 적막, 경계, 부조화 중에 현재 적절한 키워드가 있나요?

왜 그렇게 부정적인 단어가 많았을까요?(웃음) 저에게는 적막이 가장 와닿네요. 그간 찍은 사진과 SNS 타임라인을 쭉 훑어볼 기회가 있었는데요. 뭔가 붕 떠 있고 늘 떠나 있고, 새로운 것, 새로운 사람, 새로운 환경에 매번 노출되고 있더라고요. 너무 날아다니는 듯한 제가 자꾸 보여서, 지금은 딱 추를 매달고 가라앉아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적막에 가까운 조용한 시간을 보내려고요. 삶과 죽음에 대한 생각도 많이 하게 됐어요. 그리고 이런 질문이 있나 모르겠지만, 저희가 억지로 해야 하는 글쓰기 숙제가 있었잖아요. 다른 분들은 어땠나 모르지만 저는 글쓰는 습관이 잘 안 되어서 힘들었거든요. 근데 불과 5일만에 약간의 습관이 된 거예요. 예전만큼 글 쓰는 게 힘들지는 않구나. 그래서 글쓰기도 습관이라고 하나 봐요. 많이 도움이 됐습니다. 심지어 마지막 체류일지는 새벽까지 쓴 거 생각나요?

(웃음) 네. 기억나요.

새벽 4시 반에 났나. 근데 그 글 보고 친구들한테 연락이 많이 왔어요. 너는 브런치 먹다가 쳐 울게 만드냐 그러길래, 브런치 먹다가 왜 울어(웃음) 그러니까 너 굴 따는 애기인 줄 알고 열심히 읽고 있었는데 그렇게 편치 날리냐고 하면서.

고흥의 기억이 어떻게 기억될 것 같나요?

어쨌건 하루를 마무리하면서 그날을 복기하고 기록했던 게 정말 좋았어요. 저는 혼자 또 막 편지글이었다가 시였다가 했잖아요. 그게 오늘은 시로 써야지, 오늘은 귀찮으니까 대화체로 가야지는 아니었고, 그날의 온도나 기분에 따라서 쓰고 싶은 대로 썼던 것 같아요. 근데 5일 동안 다른 장르의 글을 썼다는 게 그곳에서 다른 면면을 봤었다는 증거죠. 할 게 없다고 생각했지만 사실은 보고 들은 게 되게 많았던, 영감을 많이 주는 곳이었던거죠. 결국 그러고 보면 영감은 뭘 보고 생김다기 보다는, 내 안에 있던 게 어떤 걸 보거나 경험함으로 인해 튀어나오는 것 같아요. 안에 있던 걸 꼬집어내는 힘을 여기서 키워준 거죠. 할머니들을 보는 게 대단한 일이 아니잖아요. 경로당도 동네마다 하나씩은 있는 건데. 근데 거기에 들어가서 할머니들과 이야기를 나눌 수 있었던 기회랄지, 그리고 마을의 특성이 있잖아요. 모두가 열심히 일했다가 다 그만두신 어머님들의 현재 상태나 마음들을 보는 게 특별한 경험이었죠.

마지막 질문입니다. 시호 님에게 오취·사도 마을이란?

나를 들여다보게 하는 곳. 내 안에 갖고 있었지만 몰랐던 것들을 찬찬히 꺼내게 해주는 곳.

박시호

컬렉티브 지구숨숨의 리더(Reader)이자 여러가지 의미로, 작가.
@diver_raut / twinklesiho@gmail.com

갯벌 위 갈매기
사진 한승완



껍데기 둘

이유리, 회화

가능하다면 유리의 작업실에서 인터뷰하고 싶다는 말에 유리는 흔쾌히 그러자고 했습니다. 간밤에 쌓인 눈이 녹지 않아 길이 미끄러워서 천천히, 조심해서 걸을 수밖에 없었는데, 이 과정도 참 유리를 만나는 날 답다고 생각했습니다. 근처에서 봉어빵을 사 갔더니 동그래진 눈으로 대체 어디서 파느냐며 좋아하더니, 마지막 질문에 대한 답도 봉어빵으로 하더군요. 그러니까 이런 면모, 작고 소소한 마음에 크게 기뻐하고, 쉬이 지나쳐 버릴 법한 것들도 오래 기억하는 사람이라는 점에 마음이 봄처럼 몽근해졌습니다. “좋았던 기억도, 사람도 결국 소멸하기 때문에 오래 기억하고 남기기 위한 그림을 그린다”라는 유리에게 고흥의 시간을 어떻게 기억하고 있는지 물었습니다.

유리님은 낙관적인 사람인가요, 비관적인 사람인가요?

저는 낙관적인 사람이라고 생각하는데 주변 상황이 비관적으로 생각하도록 만드는 것 같아요. 계속 제가 뭘 만들어내야 하고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해야 할 일들이 계속 생기니까요. 그런 상황에 감혀있다는 생각 때문에 자꾸 비관적인 생각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고흥에 올 때 무엇을 기대하고 왔나요?

1년 동안 반복적인 생활을 하다 보니 리프레쉬할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어요. 자연 보는 거 좋아하니까, 서울의 복잡함과 단절된 상태에서 5일동안 지내면 재밌겠다 생각했고, 다른 예술가분들이 어떻게 생활하는지, 어떻게 지내는지도 궁금했어요. 졸업 이후에 혼자 작업을 하다 보니 사람을 어디서 많이 만나는 것도 아니었고요. 새로운 사람들과 같이 이야기 나누면 재밌을 것 같았어요.

1년 동안 그런 시간을 보낸 특별한 이유가 있었나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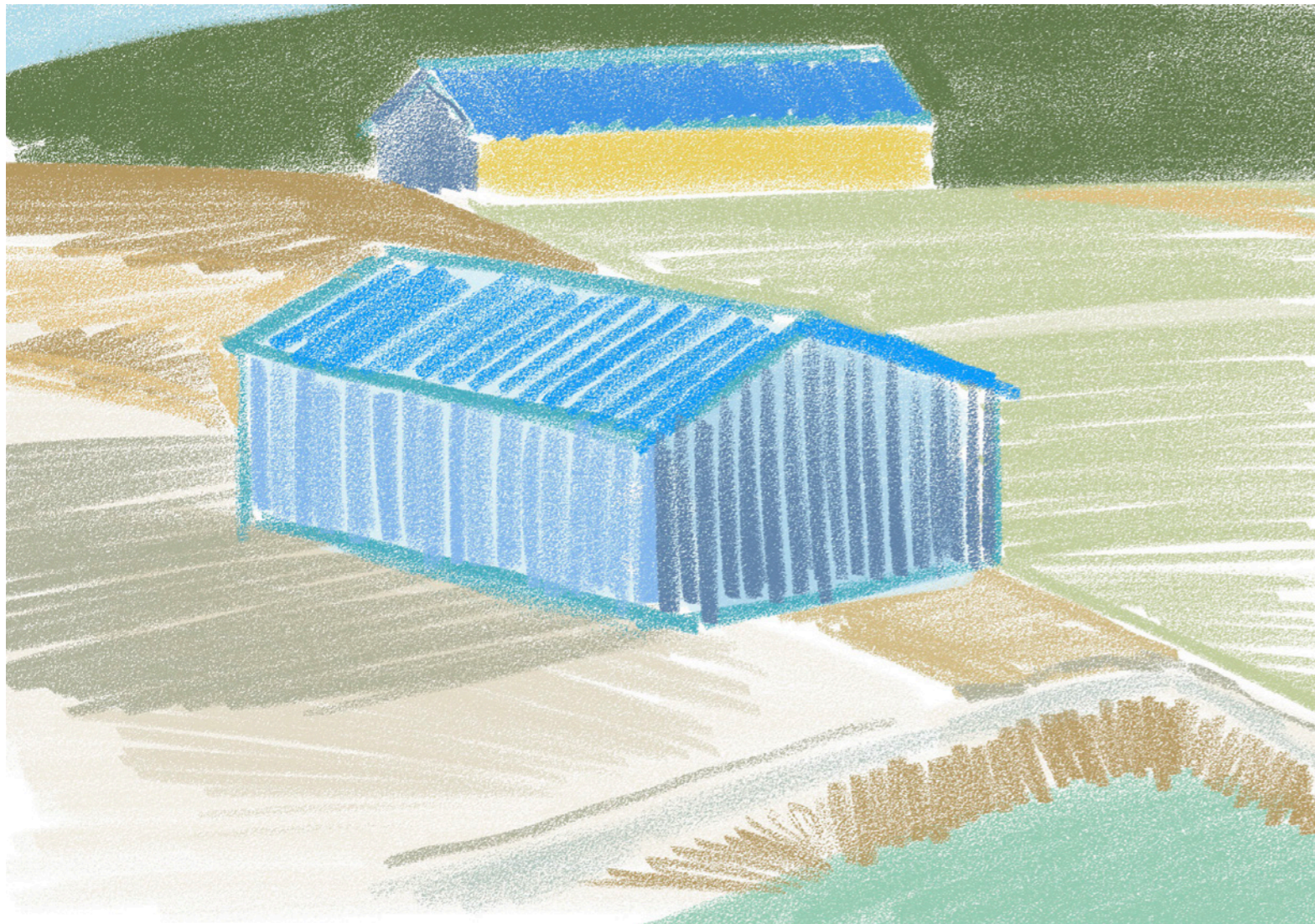
그냥 작업 활동을 위해서였어요.

스스로 불러온 고립이었나요?

그쵸.(웃음) 스블재(스스로 불러온 재앙)쵸. 작업이야 학교 다닐 때도 실기실에서 날마다 하긴 했었는데, 졸업을 하고 나니까 나를 받쳐주는 울타리가 없어진 느낌이 들어서 막연한 불안감이 있었어요. 가족들도 애가 어떻게 먹고 사나, 혼자 먹고 살 수는 있어야 될 텐데 취업은 안 하나 걱정하셨고, 친구들도 다 대학원에 가니까 저도 뭔가를 해야 되는데라는 걱정 때문에 힘든 시기였어요.

만약 프로젝트에 정해진 내용이 하나도 없었다면, 주로 뭘 하셨을 것 같아요?

숙소 앞에 풍경이 너무 멋지다고 생각했거든요. 해 뜨는 것부터 질 때까지 구경하고 주변을 둘러보러 다니던가, 그림을 많이 그렸을 것 같아요. 다른 분들과 대화하는 시간을 더 많이 가졌을 것 같고요.



숙소에서 내려다 본 풍경
그림 이유리

셋째 날 밤에 함께 시를 썼었죠. 그때 우리는 할머니에 관한 <꽃무늬>라는 시를 썼었고요. 그 시에 모두가 감동했던 장면이 생생해요. 혹시 할머니와의 특별한 추억이 있나요?

어릴 때 할머니가 키워주셨고, 초등학교 갈 때까지도 챙겨주셨어요. 근데 할머니가 대학교 1학년땠가, 2학년때 돌아가셨는데 정말 슬펐어요. 특히 할머니가 저녁때마다 해주셨던 계란후라이가 기억에 남아요. 제가 계란후라이를 좋아하거든요. 사실 그때는 엄마를 기다리느라고 할머니의 존재를 크게 못 느꼈는데, 지금 생각해 보면 되게 잘 챙겨주셨던 것 같아서 따뜻한 기억으로 남아 있어요.

3일 차 체류일지에서 “그림 그리면 돈 못 벌어요” 라고 말한 게 웃기면서도 짠했어요. 이런 생각이 유리의 작업을 방해하거나 가로막기도 하나요?

작업에 전반적인 영향을 미쳤죠. 처음에 그림을 시작하려고 했을 때는 전혀 상관이 없다고 생각했어요. 주변에서도 미술 하면 어떻게 먹고 사냐 했어도 흔들린 적이 없었고요. 유치원 때부터 화가가 되고 싶었고, 미술반, 미술학원에 예고에 미대까지 계속 미술만 해왔어요. 그러다 불안감이 점점 커졌어요. 그림을 어떻게 그려야 한다고 알려주는 사람은 많지만, 어떻게 먹고 살아야 하는지 알려주는 과정은 없었으니까요. 그래서 고등학교 때도 우울했던 것 같고, 대학교 때도 학년 올라갈수록 어떻게 먹고 살지 걱정하게 된 것 같아요. 제가 좋아하는 그림보다 대중이 좋아하는 그림이나 예뻐보이는 그림을 그려야 하나 싶기도 했고요. 그림 그리면 돈 못 번다고 했던 말은 미술을 시작하면 어차피 힘들 테니까 그런 고민이 할 바에는 시작도 하지 말라는 조언 아닌 조언 같은 거였어요.

어떨 때 가장 그림을 그리고 싶었는지, 뭘 가장 많이 그리고 싶었는지 궁금해요.

그동안 서울에만 살았으니까 고향처럼 땅만 있는 공간에 있던 적이 거의 없었거든요. 고향처럼 땅만 있는 공간에 있던 적이 거의 없었거든요. 그래서 좋아하고 잘 할 수 있는 그림으로 주변을 기록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는데, 일정이 빡빡하게 지나가기도 했고, 마음이 여유롭지 못 한 상태도 있었고 해서 많이 남기지 못한 게 아쉬워요. 멋진 풍경을 봤을 때 그림을 그리고 싶었어요. 좋은 감정을 느꼈을 때도 그랬고요. 일출, 일몰 보는 게 너무 멋졌어요. 하늘이

엄청 넓으니까 색도 예쁘고, 넓게 펼쳐진 평야도 멋있고, 물들이 출렁거리는 것도 예뻐요. 풍경이나 그곳에 있던 강아지들, 동물들도 많이 그리고 싶었습니다.

동물 이야기로 이어지는데, 본인이 생각할 때 본인은 어떤 동물과 비슷한가요? 만약 동물이나 자연물이 되어 마을에 머무를 수 있다면 어떤 게 되고 싶으세요?

굴이 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굴이 물을 정화하는 능력이 엄청 뛰어나다고 하더라고요. 이로써 영향을 줄 수 있는 생물, 그리고 고흥을 대표하는 생물이기도 하니까. 근데 아무에게도 발견되지 않고, 채굴되지 않는 굴이면 좋겠다.(웃음) 비슷하다고 생각하는 동물은 달팽이. 느리니까. 그리고 소도. 저는 가만히 바다 옆에 있고 싶어서 고흥에는 없지만 물개나 고래가 되고 싶어요. 며칠 전에 고래 다큐멘터리를 봤는데 너무 똑똑하고 멋지던데요. 넓은 바다를 헤엄치면 엄청 자유롭지 않을까요?

마을에 두고 온 것과 새롭게 가져온 것이 있다면요?

그곳에서 받았고, 떠남과 동시에 두고 온 것 같아요. 여유로움이요. 서울에 남아 있지 않으니깐요. 가져온 건 여행에 대한 욕망 같은 거라고 할까. 같이 지낸 분들이 여행을 워낙 많이 다녀오신 분들이셔서 얘기를 듣다 보니까 다른 곳으로 가도 여기(오취-사도마을)와 비슷한 느낌이지 않을까 싶었어요. 그래서 고흥 다녀온 직후에 해외 여행을 다녀오고 싶었어요. 연말 비행기표가 너무 비싸 못 갔지만.(웃음)

유리의 기억에 가장 오래 남는 한 장면이 있나요?

성민 님이 운전하는 차 안, 조수석에 앉아 풍경을 보며 노래 듣고 갈 때가 기억에 남아요. 복잡하고 어지러운 풍경이 없는, 사방이 뚫려 있는 곳을 달리니 내가 정말 다른 곳에 왔구나, 여기서 지금 휴식을 취하고 있구나 싶어서 행복했어요. 녹색과 황토색 커브길을 돌고 있고, 차 안에 탄 7명의 사람이 다 같은 노래를 들으면서 풍경을 관찰하고 있다는 사실이 좋았어요. 잔잔하게 행복했던 순간이 이때고, 또 하나를 말하자면 할머니에 대한 시를 썼을 때요. 사실 저는 시에 대한 감흥은 별로 없었고, 생각했던 걸 쓴 것

뿐인데 나머지 분들이 호응을 잘 해주셔서 그게 너무 감동적이었어요. 그동안 학교에서 어떤 걸 보여주면 부정적인 피드백을 같이 받아야 하니까 걱정이 되게 컸었는데 사람들이 박수치고 좋다고 이야기 해주니 따뜻함을 느꼈고 이게 다같이 있는 온기인가 싶기도 했어요.



소멸, 변화, 적막, 경계, 부조화 중 지금 유리의 상황에 적절한 키워드가 있나요?

소멸이요. 저희는 그곳을 열심히 기억하고, 남아있는 것들을 어딘가에 기록하려고 간 거였지만, 계속 소멸 중이고 언젠가 없어질 거라는 생각이 들어서 안타까운 마음이 들었어요. 오취·사도마을 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것들이 소멸하고 있는 게 아닐까 생각해요. 작업 주제와도 연관되어 있는데, 찰나의 분위기나 장면을 오랫동안 간직하고 싶어하고, 결국엔 사라질 거라는 게 슬퍼서 그런 이미지를 주로 작업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최근 소멸한 건, 뭔가 하나를 죽을 때까지 열심히 해야겠다는 열정? '갓생'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근데 요새는 또 '강생'이라는 말이 있더라구요.(웃음) 어릴 때부터 입시에, 시험에, 과제에, 지원사업 등등... 열심히 사는 삶에 좀 지쳤어요. 그래서 그냥 대충 살고 싶다는 마음이 있긴 한데, 계속 열심히는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저한테는 많은 감정들이 소멸의 상태로 간다고 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5일간의 경험과 시간이 어떻게 기억될 것 같나요? 앞으로 작업을 하는 데 쓸 만한 요소나 아이디어가 될 것 같은가요?

뭐 하나로 정리하기는 어렵고, 잔잔하게 모든 방면에 스며서 변화가 있지 않을까 생각하는데요. 처음으로 예술가분들과 함께 생활해 봤는데, 생각보다 자유롭고 편한 마음으로 살고 계신 것 같아서 영향을 많이 받은 것 같아요. 이렇게 살아도 되는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졸업 이후에 너무 불안했고, 주위 사람은 큰 걸 이뤄냈다는 생각도 들고, 이러다 나는 진짜 굶어 죽으려나 싶었거든요. 그런데 다른 분들은 그런 거에 연연하지 않고 자기가 하려는 것들을 더 열심히, 눈앞에 있는 일을 해나가고 계신 것 같았고, 그 모습에 큰 감명을 받았어요. 그리고 승완 님이 "어떻게든 다 살아진다"는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 말에 위안을 얻기도 했어요.

유리 님에게 오취·사도마을이란?

붕어빵 같은 존재. 겨울마다 붕어빵 생각나잖아요. 앞으로 겨울마다 생각날 것 같아요. 추운 마음을 따뜻하게 해준 소중한 곳이었어요. 물론 다시 갈 수야 있겠지만 그때 했던 경험은 다시 할 수 없는 거니까요. 힘들 때 다시 꺼내보고 싶은 마음이 들게 하는 곳이었어요. 음식도 맛있었고.

혼자 지낼 수 있는 기반시설이 생기면 좋을까요?

예술가 레지던시가 생기면 되게 좋을 것 같아요. 정부 지원도 받을 수 있고, 고흥을 알리는 기회도 되고, 예술가들을 끌어 모을 수 있는 거니까요. 예술가들이 작업실 구하기가 어려우니까 그런 걸 많이 찾거든요. 수요도 많을 것 같고, 주변 환경도 너무 멋지고요. 같이 지내면서도 개인 공간이 보장된 곳이면 좋지 않을까 싶네요.

모르는 사람들에게 오취·사도마을 주민 분들을 설명한다면요?

서울이랑 다르게 서로에게 관심이 많고 공동체를 느낄 수 있는 곳이라고 설명하면 되려나요? 거기는 마을을 대표하시는 분들이 한 분씩 계시잖아요. 도시도 그렇긴 하지만 행정상 필요해서 있는 느낌인데 거기는 구성원들이 서로서로 관심 있다는 느낌, 이장님이나 개발위원장님 보면 모두를 잘 이끌어서 마을을 살기 좋게 만들어보자 하는 느낌이 강했어요. 그런 면이 조금 불편할 수도 있을 것 같긴 한데 익숙해지면 따뜻함을 느낄 수 있는 곳이라고 생각했어요.



어촌계장님
그림 이유리

그런 이유는 뭐라고 생각하세요?

오래 같이 살아서기도 하고, 사람이 없어서 귀해서이기도 하겠죠. 그리고 할머니들이 밖에서 사람들을 계속 관찰하면서 앉아 계시는데요, 뭔가 그런 관찰이 마을을 굴러가게 한다고 해야 되나? 이 마을에 뭐가 일어나고 있는지 다 알고 계시니까. 서울은 그런 사람들이 별로 없잖아요. 일로나 하는 거지. 그게 오취마을의 특색인 것 같기도 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관찰자가 있다는 느낌, 그런 시선이 어떻게 느껴졌어요?

처음에는 내쫓고 싶어서 쳐다보시는 건가 했는데, 저희가 가까이 다가가면 먼저 말을 걸어주시고 관심 있게 보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궁금해하셨던 거구나 싶었어요. 관심이 감사하게 느껴지기도 했고, 더 재밌게 사셨으면 좋겠는 마음이 들기도 하고. 그때부터 인사도 먼저 드리고, 친근하게 대할 수 있었어요.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 있나요?

고흥 굴 또 먹고 싶다 이런 마음이 제일 커요.(웃음) 그때 좀 산다고 할 걸. 저는 제가 굴을 안 좋아하는 줄 알았거든요. 서울에서 굴은 되게 비리고 맛없다고 생각했었는데, 거기서 먹으니까 진짜 진짜 맛있었어요. 감칠맛이 엄청나고 계속 먹어도 질리지 않을 것 같은 맛있었어요. 바다의 맛.



굴 옮길 때
그림 이유리

이유리

그림 그리는 사람. 따뜻한 순간들을 담아요.

@yuri_painting_lee / yuronge@naver.com



껍데기 셋

위단비, 문학

인간의 내면은 언제 죽고, 어떻게 다시 살아날 수 있을까요?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 걸까요. 단비를 만날 때마다 이런 질문이 떠올랐습니다. 누군가는 쓰잘머리 없다고 여길 만한, 근원적이고 본질적인 질문들 말입니다. 단비는 사람은 사람 때문에 죽고 사는, 연약하기 짝이 없는 존재라는 걸 알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거야 누구나 다 아는 거라 할 수도 있겠지만,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이 점이 단비의 많은 걸 말해준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인지 그녀는 오롯이 자신으로부터 나온, 본인에게 '진짜'라고 생각되는 것들만 보여주고 싶어 하는 것 같습니다. 친동생이 붙여준 '인간 덕후'라는 별명답게, 진심과 사랑으로 임해준 단비와의 인터뷰입니다.

어떻게 지내셨어요?

이 프로그램을 통해서 활동비를 받았는데, 제가 예술 활동으로 돈을 받아본 게 처음이거든요. 그래서 안정감이랄까, 자신감이 생긴거죠. 막 떠들고 다니지 않으려고 하는데, 등단 준비하고 있어요. 얻은 게 많았던 것 같아요.

인터뷰를 시작할게요. 단비님은 낙관적인 사람인가요, 비관적인 사람인가요?

기본적으로 저는 걱정이 많고 우울에도 자주 빠져요. 근데 큰 그림은 결국 낙관으로 가요. 나중에 빈곤하고 어렵게 살게 될 수도 있잖아요. 그럼에도 나는 행복할 것 같다, 그런 이상한 낙관이 있어요.

고흥 오기 직전에는 어떠셨어요?

그때가 안정감에 접어드는 시기이기도 했어요. 안정감 있는 환경이 조성돼야 사람이 될 수 있거든요. 그게 갖춰지던 때에 채굴채굴을 만난거죠. 시기가 좋았어요.

어떤 걸 기대하셨어요?

사람들과의 연결과 경험을 기대했어요. 예술가라는 공통점이 있는 사람들을 만나 같은 목표를 가지고 활동한다는 경험을 하고 싶었어요. 그리고 제가 어른 울렁증 같은 게 있어요. 근데 고흥에는 어르신들밖에 없을 테니, 정면 돌파하고 싶은 마음도 있었죠. 제일 좋았던 게 마을 주민 인터뷰였어요. 도시와 시골, 세대 간 격차가 있잖아요. 그 격차에서 먼저 손을 내미는 경험을 한 거죠. 굴막에 들어갔다는 것 자체가. 그게 신기했고, 그동안 내가 겁을 먹고 있었구나 싶더라고요. 또 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단비님에게 일관된 화두는 소통과 연결, 관계인 것 같아요. 왜 그런 부분을 좀 더 생각하시는 것 같으세요?

저는 제 내면을 남들보다 예민하게 느끼는 것 같아요. 너무 쉽게 우울해하고, 너무 쉽게 기분이 좋아지는 경향이 있다 보니 제 세계 안에 갇혀 있었어요.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하는 호기심이 시작이었던 것 같아요. 6살 때, 맞은편에

왔은 애 생각이 너무 궁금한 거예요. 그래서 개가 늘 짓던 표정을 따라 지었어요. 그럼 내가 애 생각을 알 수 있지 않을까 하고요. 제가 이런 사람이다 보니까 소통이 어려웠죠. 곁에서부터 천천히 알아가야 친해질 수 있는 건데 처음부터 너무 깊게 들어가 버리니까.

친구를 많이 만들고 싶으세요? 아니면 일생일대의 소울메이트라거나?

소울메이트는 이미 있어요. 제 친동생. 근데 제 동생이 저한테 “인간 덕후다” 라고 했거든요. 덕질하는 마음으로 사람을 좋아한대요. 근데 덕질은 어떻게 보면 일방적이잖아요. 그래서 너무 일방적으로 사람한테 관심을 쏟는 건 아닌지 고민도 해요. 기본적으로 새로운 사람이 있으면 호기심이 있고, 그들에게 나를 알리고 싶어요. 나의 이야기를 말하고 싶은 마음이 제일 커요. 친구가 많냐 적냐 보다 사람들과 적당한 거리감을 유지할 수 있는 사람이 되고 싶어요.

<경계>(2021, 도서출판 부귀영화)라는 소설집 내셨잖아요. 저희가 첫날 뽑은 키워드 중에서도 경계가 있었죠. 단비 님이 말한 경계와 어떻게 같고 다를까요?

책에 “경계선에 서 있는 발이 (경계선에) 베어서 날카롭게 아프다” 이런 문장이 있거든요. 왜냐하면 저는 소속감을 느끼지 못하는 데에서 오는 아픔이 항상 있었어요. 고희는 이미 만들어진 소속감이 강해서 경계가 확실하게 구분되어 있고 사람들도 경계심을 갖고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그분들이 어떤 생각을 하고 어떤 경계선에 서 있는지 목격하고 싶었어요. 공동체 중심 사회에서 개인은 어떤 생각을 할까 하는.

단비 님이 말한 경계와 어떻게 같고 다를까요?

제가 목격한 거는, 그냥 삶을 받아들이는 것. 그러니까 내가 여기서 살았고 굴을 캘 거고 굴을 캐야 하고, 앞으로도 굴을 캘 거다 하는 것. 제 삶의 가장 큰 목표가 삶을 받아들이는 거거든요. 근데 그분들이 그렇게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주민 인터뷰 때 봤던 생금 할머니께 힘들 때 어떻게 하시냐 여쭙봤는데 “즐거울 땐 즐겁고.” 이리시길래, 제가 “힘들 땐 힘들고?” 그랬더니 대답이 없으시고 그냥 좋은 쪽으로 생각하시면서 받아들이시더라고요.

저는 현대 사회 사람들이 불안하고 힘든 이유가, 선택지가 너무 많기 때문인 것 같거든요. 도시에는 선택지가 너무 많다 보니까 뭘 선택해야 할지 모르겠고, 사회가 자신의 욕망에 파고 들 시간도 안 주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할 수 있는 건 엄청 많은데 그 안에서 공허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고희에 계신 분들은 선택권이 많지 않더라도 내 삶은 내 거지 어쩔 수 없지, 이걸 해야지 하면서도 나름대로의 개성을 표출하면서 살아가시는 게 인상적이었어요. 예전에 엄마가 “우리 때는 자연스럽게 나이 되면 결혼하고 아이 낳고 그러지 않았냐” 이런 말을 하셨는데 그 말이 엄청 큰 힌트라고 생각하거든요. 자연스럽게다는 게 자연이 스스로 그러하다는 뜻이잖아요. 어른들 말 들어보면 사춘기도 없었다고 그러잖아요. 그 말을 약간 다르게 생각해보면 내가 조금 어긋나거나 비틀거릴 때 누군가와 연결되어 있고,



의지할 사람이 있다는 그 감각이 나를 다시 자라나게 하는 거죠. 공동의 목표를 가진 나와 비슷한 누군가가 있다는 것 자체로 '굳이 다른 걸 할 필요 있나? 여기서도 편안한데.' 그런 마음을 주지 않나 싶어요.

**단비님이 생금 할머니한테 했던 질문을 저도 하고 싶어요. 힘들 때 어떻게 하시나요?
사람들이 어떻게 하면 덜 힘들게 살 수 있을까요?**

우선 본인이 처한 환경을 인지하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내가 가지고 있는 게 무엇인가를 인지하는 게 개인의 노력이고, 이 사회가 최소한의 환경을 조성해 주는 게 필요하다고 봐요. 저는 행복이 안정감이라는 단어와 거의 같은 말이라고 보거든요. 그게 어찌면 고흥 어머님들이 삶을 받아들인 이유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먹고 사는 일은 기본적인 문제지만, 내가 어떻게든 먹고 살 수 있겠다는 자신감을 갖게 되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는 내가 한 일에 대해 보상을 받을 수 있다는 사회에 대한 믿음이 회복이 돼야죠. 그런 신뢰가 회복된다면 사람들이 덜 힘들 것 같아요. 핵심은 존중이에요. 그래서 제가 소설을 써요. 나처럼 유별난 사람들, 남들처럼 사는 게 너무 힘들었던 사람들을 위해서, 남들처럼 살지 않아도 괜찮아라는 걸 말해주고 싶어서 제 이야기를 글로 써요.

마을에 두고 온 것이 있는지, 혹은 새롭게 채굴한 것이 있나요?

아까 말했던 것처럼 새롭게 가져온 건 안정감, 자신감 이런 것. 그리고 욕심을 좀 두고 온 것 같아요. 모두랑 잘 연결되고 싶다는 욕심이에요. 5일 동안 낯선 사람들과 단체 생활한 게 거의 처음이거든요. 모두와 같은 깊이로 연결될 수는 없구나, 내가 생각한 대로 잘 안 될수도 있구나 생각했어요. 우리는 각자 개성이 달랐지만 열려 있었고, 서로를 존중해 줬어요. 그래서 이런저런 시도를 할 수 있었던 환경이었던 것 같아요.

가장 기억에 남는 순간은요?

생금 할머니 만난 거요. 그중에서도 저한테 “결혼했나” 물으신 그 순간이 가장 기억에 남아요. 인터뷰에 대한 대답만 쪽 하시다가 대뜸 물어보셨거든요. 그렇게 경계하시다가 어떻게 이렇게 순식간에 결을 내주실까 싶었어요. 그래서 막 고민 상담하고, 나올 때는 굴 까주시는 거 받아먹고 앉아 있었어요.

소멸, 변화, 적막, 경계, 부조화 중에서 현재 단비 님에게 해당하는 키워드와 이유가 듣고 싶어요.

적막. 변화의 시기가 지나고 고요해진 느낌이 많이 들거든요. 항상 머리랑 마음이 시끄러웠는데 요즘은 그렇지 않아요. 고흥의 바다를 보고 있는 것처럼 편안해요. 좋아요.

5일간의 경험과 시간이 어떻게 기억될 것 같은지, 앞으로 예술 활동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 같나요?

저는 뭔가를 시도했을 때 잘 된 경험이 별로 없었거든요. 근데 채굴채굴에 신청할 때는 너무 자연스럽게 ‘이거 해봐야지’하는 생각이었어요. 체류일지도 초반에는 겁도 많고 두려워하다가 뒤로 갈수록 점점 차분해지더라고요. 고흥에서 보낸 시간들이 차분하고 편안한 분위기를 만들어 준 것 같아요. 실제로 제가 그렇게 변하기도 했고요. 풍경이 사람을 담고 분위기를 만들잖아요. 고흥의 산세는 날카롭지 않고 무던하면서도 광활한 느낌이 있었어요. 그게 사람을 안정감 있게 만드는 것 같아요. 예전에는 막 이걸 토해내지 못하면 참을 수가 없으니까 글을 썼어요. 그래서 아프고 날카롭고 자극적인 문장들이 나왔고, 글에 끌려다니는 경향도 있었어요. 근데 이제는 조금 더 편안한 마음으로 넓은 시야를 가지고 글을 쓸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안정감 있는 발걸음의 시작이 된 느낌이에요.

단비 님에게 오취·사도마을이란?

이거 되게 멋있게 답해야 될 것 같은데. (웃음) 욕심나. 낯설어서 더욱 서로를 품을 수 있었던 곳. 이름 자체도 너무 낯설잖아요. 이국적인 느낌도 들고요. 게다가 사람도 낯설고, 환경도 낯설고, 모두가 낯설었지만 그랬기 때문에 아무런 선입견 없이 서로를 있는 그대로 바라보고 존중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A와 B가 만나서 C가 되는 걸 느낀거죠.

혹시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이야기 있으세요?

계속 궁금했던 게 내가 쓰는 글이 프로그램 취지에 맞나? 하는 거였어요. 마을 아카이빙을 위한 건데, 마을을 기록하기보다 저의 변화를 쓴 것

같아서요. 제 의도와 상관없이 그렇게 되기도 했지만, 첫날에는 되게 거침없이 썼잖아요. 근데 다음 날 아침 풍경을 보는데 마음이 부드러워지다가 마지막엔 부처님처럼 평화로운 마음이 된 거죠. 그런 기록이 취재나 아카이빙으로서 가치가 있을까 걱정했어요. 근데 다들 잘 하고 있다, 편하게 하라고 말씀해 주셔서 위안이 되었습니다.



위단비

글을 통해 나를 비추고 사람을 비추는 작가
@yeply222 / lina0222@naver.com

마을에 서린 안개
사진, 한승완



껍데기 넷

한승완, 사진

매일 밤, 단체 메시지 방에 올라오는 승완의 사진을 보면서 우리는 모두 가당치도 않은 질투를 했습니다. 같은 곳을 보고 걸었는데 그는 저 먼 타국처럼, 아련하면서도 고운 빛으로 마을을 담아내고 있었습니다. 혼자서 다른 곳에 가 있는 것처럼, 승완은 바로 곁에 있었지만, 그의 시선은 마치 '상상 속의 고향'을 실제화하여 보여주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카메라를 눈에 가져다 댈 때는 프로 사진가 같다가도, 어르신들 앞에서는 영락없는 막내아들처럼 친근합니다. 그가 있는 곳이라면 프레임에 담기지 않는 순간조차 승완만의 필터를 통과하여 세심하고 아름답게 포착되어 현상될 것입니다. 고흥에 다녀온 후 사진집 작업에 열중하고 있다는 그를 만나고 왔습니다. 켜켜이 쌓아갈 그의 작업과 해사한 미소를 품고 영글어질 미래를 응원합니다.

승완님은 낙관적인 사람인가요? 비관적인 사람인가요?

저는 낙관적인 편인 것 같아요. 대책 없이 무모하게 잘 지르는 편이기도 하고요. 한 번 할 때까지가 힘든데 마음을 먹으면 하고 싶은 건 해야 되는 스타일이거든요.

채굴채굴에 어떤 걸 기대하고 오셨어요?

일단 나를 과연 뽑아줄까 걱정을 했고요.(웃음) 그리고 내가 여기 모인 예술가들과 잘 어울릴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가장 컸어요. 그리고 제 나이가 가장 많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했고요. 일정도 생각보다 짧아서 시간 안에 원하는 성과를 잘 낼 수 있을까라는 걱정도 있었어요. 저는 고향이 고흥이다 보니까 오히려 관심이 갔어요.

만약에 정해진 활동이 아무것도 없었다면 주로 뭘 하셨을 것 같으세요?

굴막을 다 돌았을 것 같아요. 굴막에서 일하시는 분들 모두의 사진을 찍었을 것 같아요. 저는 굴막이 좀 클 거라고 생각했어요. 일이 힘든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이분들이 생활하시는 모습을 집중적으로 담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근데 실제로 보니까 어떠셨어요?

(굴막이) 생각보다 소규모인 데다가 노동 집약적이잖아요. 저희 마을 주민 인터뷰하던 날, 오취어민회관에 계셨던 개발위원장님이 지역 조례에 따라서 마을 산업이 달라졌다는 말씀을 하셨어요. 완도 같은 경우 지역 조례가 잘 통과돼서 양식업을 다양하게 할 수 있는데 고흥은 그게 어렵다고 하셨거든요. 수산물 품질은 다른 곳보다 좋은데 여러 개를 하기 어렵다는 사실이 좀 안타깝더라고요. 지금은 1차 산업만 할 수 있는 상태잖아요. 3차 산업으로 넘어갈 수 있는데 안되는 거죠.

환경은 똑같은데, 완도에서는 되고 고흥에서는 안 된다는 말씀이시죠?

그렇죠. 완도군은 지역 조례를 거쳐서 어민들이 할 수 있는 사업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고흥군은 그런 부분이 구축되지 않았다는 말을 들으니까 인지도 측면에서도 그렇고 발전 가능성이 낮다는 점이 안타깝더라고요.



왜 오취·사도 마을에 가봐야겠다 생각하셨는지 궁금해요.

저는 고흥이라는 지역 자체가 좀 더 알려졌으면 하는 바람이 있어요. 이제는 고흥에서 살았던 시간보다 떠나 살았던 시간이 더 길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생각보다 고흥이 괜찮아요. 정말로요. 사진 찍는 친구들 데리고 몇 번 고흥을 다녀왔는데 다 좋다 그래요. 이런 풍경이 펼쳐진 동네가 있는지도 몰랐다고 하면서요. 먼 거 빼고는 다 좋다고 말하거든요. 고흥도 생각보다 크다 보니까 잘 안 알려진 데가 더 많아요. 오취·사도마을도 처음 들어봤거든요. 그래서 더 관심이 갔어요. 만약에 참여하지 못 했더라도 이 마을이 궁금해져서 한 번 와봤을 것 같아요.

고향을 생각했을 때 어떤 마음이 가장 먼저 드세요?

본가가 바닷가라서 그런가, 고흥을 생각하면 그냥 포근해요. 노동의 고단함도 떠오르고요. 바다에서 생활하시는 분들이 얼마나 힘들게 사시는 지 아니까요. 저희 아버지도 양식을 하시다가 태풍 때문에 완전 말아 먹었던 경험도 있고요. 바다가 잔잔하고 풍요롭게 보이지만 생업을 해결한다는 건 어려움이 크죠.

혹시 고흥에서 목격했던 표정 중에서 인상에 남는 게 있으세요?

바다를 바라 보면서 앉아 계셨던 할머니 두 분이 기억에 많이 남아요. 앉아 계신 자리가 방파제 때문에 바다를 온전히 볼 수는 없는 자리인데, 오후에 햇살 맞으면서 한가롭게 앉아 계셨던 모습이 계속 기억에 남더라고요. 처음에는 시간을 무료하게 보내고 계시구나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라 이곳에 앉아서 지나간 시절을 계속 돌이켜보고 계시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좀 더 애잔했다고 할까요.

마을에서 아직 못 본 게 있을까요? 있다면 무엇일까요?

저는 주민분들과 이야기할 수 있는 시간이 좀 더 많았으면 좋지 않았을까 생각해요. 사도마을에서 어촌계장님께 들었던 마을 이야기도 너무 재밌었어요. '당제'(마을 사람들이 마을을 지키는 신에게 공동으로 지내는 제사)를 지냈을 거라는 생각을 못 했어요. 근데 옛날에는 그런 문화가 많이 있었거든요. 특히 바닷가 쪽에는요. 예를 들면 배를 타시는 분들은 바가지도 뒤집어 놓으면 안 돼요.

왜요?

배 뒤집힌다고요. 물 푸는 바가지 하나도 습관적으로 똑바로 놓으려고 하시거든요. 바닷가에서는 그 배가 전 재산이잖아요. 혹시나 배가 뒤집어지면 집안이 망하는 거기 때문에. 이런 걸 습관이라고 해야 되나, 아니면 미신이라 해야 하나, 어쨌든 마을만의 독특한 문화나 습성을 찾아보려고 했다면 어땠을까 싶네요.



그런 부분은 진짜 볼 생각도 못했네요.

그런 건 그곳에 정말 오래 사신 분들만 아실 거고, 어디에 정리되어 있지도 않을 테니까요. 오로지 마을 분들의 이야기에만 의존해야 할 텐데, 그런 걸 추적해도 재밌었을 것 같아요.

프로젝트 사진 중에 가장 마음에 드는 사진과 그 이유는요? 아까 말씀하신 할머니 분들인가요?

네네. 그 할머니 두 분이랑 굴막에서 정말 쉽없이 작업하시는 분들요. 그 추운데 계속 쫓그려 앉아가지고 계속 작업만 하시잖아요. 그분들의 붉어진 손마디나 거친 손등 같은 신체 부위를 자세하게 찍어 본다거나, 일하시는 모습을 디테일하게 담을 수 있었다면 더 좋지 않았을까 싶어요.

왜 그렇게 마음에 드셨는지 이유를 좀 더 여쭙봐도 될까요?

어르신들은 햇살 받으면서 앉아 계시는 게 유일한 소일거리자 낙일 수도 있겠지만, 지나가는 사람들이나 풍경을 바라보시는 표정이 계속 변하는 느낌을 받았거든요. 그래서 더 애착이 가고요. 굴막에서는 겨우내 추위와 싸워가며 일을 하시는 거거든요. 한 철이 그들에게는 가장 소중한 시기니까요. 그런 모습을 보고 감명 받았습시다.

마을에 두고 온 것과 새롭게 가져온 게 있나요?

저는 마음을 두고 온 것 같아요. 그리고 뭔가를 해봐야겠다는 결심, 의지를 가지고 왔습니다. 사진을 계속 찍어도 이걸로 뭘 해봐야겠다는 생각을 구체적으로 안 했거든요. 근데 이걸 개인 프로젝트로 진행해 보고 싶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마음을 두고 와서 자꾸 어르신들하고 나눴던 대화가 계속 생각이 나요. 진짜 별거 아닌 소소한 이야기들인데 그게 계속.

왜 그런 결심을 하게 되셨나요?

기록을 남기고 싶다는 생각 때문이에요. 이분들은 살아온 날보다 살아갈 날이 더 짧잖아요. 한 컷이라도 더, 시간될 때마다 가가지고 찍어드리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마을이 소멸되어 간다는 이유가 가장 컸던 것 같아요. 기록하고 기억할 사람이 점점 줄어들 테니까요. 조금이라도 덜 사라지게, 더디게 사라지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무것도 아닌 사진과 풍경일지라도 찍어서 기록해두면 누구 하나는 보고 기억하겠죠.

기억에 남는 한 장면이나 잊고 싶지 않았던 순간은요?

사도마을에서 어촌계장님이 당제 보여 주셨을 때가 제일 기억에 남아요. 제를 지낸 지 워낙 오래되기도 했고, 잊혀지고 있던 공간이라 계장님도 잘 못 찾으셔서 물어 물어 올라가셨어요. 그 모습을 보면서 이분들이 마을에 진심이구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당제는 어떤 느낌이던가요?

잊혀졌지만 대단한 걸 보여주는 느낌이었어요. 조그마한 사당처럼 만들어 놓은 건데 사당도 아니야, 그냥 조그마한 방 한 칸이에요. 정말 허름해요. 그래도 예전에는 제를 지낼 수 있는 단상이라도 있었을 텐데, 지금은 사람이 3명 이상 나란히 서있을 수도 없더라고요. 아마도 그게 잊혀지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보여주고 싶으셨던 것 같아요.

저희가 설정한 5개의 공통 키워드 중에서 현재의 승완 님에게 적절한 키워드가 있나요?

변화가 가장 큰 것 같아요. 제가 작년이랑 올해 수술을 여러 번 하면서 활동을 거의 못 했거든요. 그랬는데 고흥 다녀오고 나서 뭔가 해야겠다는 생각이 구체적으로 들었어요. 자기 만족을 위해 사진을 찍었던 게 컸는데 이제는 밖으로 내봐도 되지 않을까 싶어요. 같이 지냈던 분들의 영향도 많이 받았던 것 같아요.

마을의 분위기나 풍경이 그렇게 만들었을까요?

사실 마을 풍경은 여느 시골 풍경이랑 크게 다를 거 없거든요.(웃음) 그것보다도 그냥 어르신들 만났던 게 좋았던 것 같아요. 골목에 사진 찍으러 갔을 때 “뭐더러 찍을라 한대” 하시면서도 찍으라 하시고, 굴 까는 거 구경하고 있으면 하나라도 까서 쥐어주시려고 하시고. 그런 모습들이 변화를 가져다 준 것 같아요.

승완 님에게 오취·사도마을이란?

새로운 고흥을 만나게 해준 곳. 저는 고흥에서도 녹동이라는 지역에 살았기 때문에 이 마을에 대해 전혀 몰랐어요. 두 번째 날에 귀촌하신 분 만나러 갔잖아요. 그분이 연포항에서 일을 하신다는데, 저 연포도 몰랐거든요. 이번 경험을 통해서 고흥 안에서도 내가 몰랐던 동네를 찾아보고 싶어졌어요.

하고 싶으신 말씀이나 제안하실 거 있으세요?

이 프로젝트가 장기적으로 진행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곳은

계절마다 하는 일이 다르니까 사계절로 작업해 봐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리고 마을의 역사를 만들어 가셨던 분들을 계속해서 인터뷰 하는 것도 좋지 않을까요?

승완 님이 보시기에 이 마을의 가장 큰 특징이 있다면요?

딱히 없어요. 특징이 없는 게 특징이죠. 특징이 없어서 오히려 사람들끼리 유대감이 생기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떤 특징이 생기면 집단이 만들어지고, 그 외 사람들은 소외되잖아요. 그런 게 없으니까 마을분들끼리 좀 더 친밀함이 있지 않나 싶어요.

공평하다는 느낌인가요?

그렇기 보다 뭐가 없어서 그래요. 녹동이랑은 또 다른 거죠. 녹동은 향이 엄청 크게 있고 배 크기부터 차이가 나요. 같은 어업인데도 천차만별이고 수확량이 다르니 버는 돈도 차이가 커요. 근데 오취·사도마을 보면 굴막이 다 고만고만하잖아요. 한 집에서 하는 느낌이잖아요.

듣고 보니 신기한 부분이네요. 마을에 관해서 더 하실 말씀 있으세요?

시골 어촌 마을을 내가 모르는 것도 아니고, 거기서 거기겠지 싶었는데 좀 더 정이 가요. 사람들이 거기를 떠나는 이유도 알겠고 오고 싶어 하는 마음도 알겠어요.

어떤 이유에서 떠나고 싶거나 오고 싶을까요?

할 게 없으니까요. 근데 또 떠나있으면 가장 생각이 나서 오고 싶을 것 같아요. 못 떠나는 이유는 사람들 때문 아닐까요? 유대감이 잘 형성되어 있으니까요.

1월 초에 가서서 뭘 담아오실 예정이세요?

기회가 된다면 어르신들 노는 모습 찍고 싶어요. 굴 수확철도 끝났고, 12월 말에 김장까지 마치면 조금 한가해지실 것 같아서요. 쉼 때 화투도 치시고, 술도 드시고 하실텐데 그런 편안한 모습을 담을 수 있으면 좋겠네요.



한승완

빛과 감정이 일치하는 순간을 담은 포토라이터
@iphotowriter / iphotowriter@gmail.com



껍데기 다섯

연옥, 문학

다시 만난 연옥은 고흥에서 봤을 때보다 훨씬 단단해져 있었습니다. 무례하고 선을 넘는 사람들의 말에서, 자기 자신을 괴롭히던 완벽주의와 강박에서 벗어나 “이제 정말, 예술가라고 말해도 될 것 같아요”라고 확신에 가득 찬 목소리로 선언하듯 말해주었습니다. 짧은 시간에 이렇게까지 사람이 변화할 수도 있구나 싶어 새삼 놀랐습니다. 동해를 거쳐 서울로, 고흥을 지나 통영에서 펼쳐 나갈 그녀의 이야기가 기대됩니다. 매일 밤 자정에 하던 걸 멈추고 책상 앞에 앉아 오늘 하루를 정리하는 습관은 예술가를 꿈꾸는, 이미 예술을 하고 있지만 알아차리지 못한 과거의 연옥 같은 사람에게 좋은 변화를 가져다줄 듯합니다. 인터뷰를 읽으신 그날 밤부터 한번 가볍게 시도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

연옥님은 낙관적인 사람인가요, 비관적인 사람인가요?

비관에 더 가까운 것 같아요. 비관적으로 사는게 정신적으로 타격을 덜 받지 않나라는 생각을 항상 했고요. 학교를 그만둔 후로 적지 않은 시간동안 삶이 썩 잘 풀리지 않는다는 느낌을 받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기대를 덜 하고 실망도 덜 하는 편이 낫다고 생각해온 것 같아요.

고흥에 오실 때 무엇을 기대하고 오셨는지 좀 더 듣고 싶어요.

가게 될 마을이 제 미래랑도 직결된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물론 오취·사도마을처럼 작은 마을로 귀촌할 생각은 아니지만, 어쨌든 연고가 없고 서울과 정반대인 곳이잖아요. 그런 곳에 막연히 갈 생각만 하고 있었는데, 적지 않은 기간 동안 지내면서 소멸하는 지역 자체에 대해 생각해 보고 싶었어요. 그리고 혼자서는 할 수 없는 활동들을 해볼 수 있는 기회라서 지원했던 것 같아요.

만약 아무것도 정해진 게 없었다면 주로 뭘 하며 시간을 보냈을 것 같으세요?

인터뷰를 더 많이 하고 싶었을 것 같아요. 거기 계신 주민분들을 중심으로 아카이빙을 한다고 하면 결국 사람이랑 인터뷰를 해야 하는 건데, 방법을 좀 알았으면 좋았을 것 같거든요. 물론 저희는 나름 최선을 다해서 이런저런 질문을 드렸지만, 사전에 교육을 듣던가, 최소한 인터뷰에 친숙한 상태로 가서 하루 걸러 하루는 인터뷰를 한다던가, 인터뷰가 중심이 되었으면 좋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면 주민 한 분 한 분이랑 그런 대화를 못한 게 되게 아쉬울 정도로 너무 좋았거든요. 인터뷰에 대해 잘 모르고 무작정 궁금한 것들만 질문했다 보니... 그분들을 조금 더 알아갈 기회가 있었더라면 좋았겠다 싶어요. 아카이빙 의미와도 잘 어울리는 것 같고요.

말씀하신 걸 가져오셨는지, 두고 온 것은 무엇인지 궁금해요.

걱정을 많이 내려놓고 온 것 같아요. 말씀하신 것처럼 예술가로 살아도 괜찮겠다는 확신을 가지고 왔고요. 사회에서 정해준, 소위 좋다고 생각되는 학교나 직장에 계속 소속되어 있다가 갑자기 그게 없어진 상태가 되니까, 최소한 거기에 준하는 수준으로 돈도 벌고 내 직업이 이거다라고 말하면서

내밀 명함 하나는 있어야 하지 않나, 그런 미련을 못 내려놔던 것 같아요. 나는 뭘 하는 사람이지, 놀고 먹는 한량인가 생각이 들었거든요. 막연하게 예술을 업으로 한다는 사람을 볼 때 항상 들었던 생각이었나 봐요. 주변에 예술만 하는 친구들이 없으니까 예술 한다는 사람들을 보면 집에 돈이 많은가 보다, 돈 걱정이 없으니까 저렇게 사는 거겠지 부럽다, 이런 생각밖에 안 했어요. 나는 저럴 여유가 없으니까 저렇게 살 수도 없고 질투도 나고요. 그런데 아무리 생각해도 성향이나 지향점, 나를 표현하는 방식이 예술가가 맞는 것 같은데 내가 나를 예술가로 불러도 될까, 경제적으로 준비된 것도 없고 전문적인 교육을 받은 것도 아니고. 하지만 하고 싶었던 것, 회사 나와서 지금껏 했던 것들을 돌이켜보면 결국은 다 예술이었어요. 예전에는 주변에 제가 “저 작가예요”라고 말을 못하고 다녔거든요. 그렇게 살아도 될까라는 걱정을 하다가 채굴채굴 신청해서 간 거거든요. 예술가의 시선에서 아카이빙 하는 걸 필요로 하는 곳이 있네, 그게 좀 희망이 됐던 것 같아요. 그리고 오히려 서울을 떠나면 예술가로 사는 게 더 편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내가 뭐 하고 사는지 사람들이 별로 관심이 없을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서울이랑 되게 다른 곳이라 이질적인데 나같이 이질적인 사람이 가니까 나름 잘 어울리네라는 생각이 들었던 것 같아요. 또 하나는 문자 그대로 그냥 자연처럼 자연스럽게 산다는 게 그렇게까지 어렵거나 힘들게 생각할 게 아니구나 싶더라구요. 그전에는 내가 하고 싶은 것과 상관없이 의무와 책임을 다해야 된다고 생각했어요. 도시에 살면서는 항상 달을 듯 말 듯한 것들을 계속 보면서 나를 계속 발전시키고 더 나은 사람으로 성장시켜야 된다는 압박이 있었거든요. 근데 자연에서는 어쩌다가 생겨난 것들이 그냥 거기 계속 살잖아요. 이렇게 자연스럽게 살아도 문제가 없겠구나 싶어서 마음이 되게 활가분해졌어요.

프로젝트 기간 중 가장 기억에 남는 한 장면은요?

3개 있어요. 많네요. 첫 번째는 굴 따다가 어쩌다가 달려와서 어이없이 죽는 생명체를 봤던 거. 처음에는 개네를 안 밟으려고 노력을 많이 했거든요. 근데 불가능하더라고요. 자기 의사랑 상관없이 태어나가지고 이렇게 허무하게 죽을 수도 있는 게 생명이구나, 무슨 대단한 이유가 있어서도 아니라 자연스럽게다는 게 이런 거구나, 자연스러움에 대해 생각해 본 계기였어요. 두 번째는 밤에 잠깐 산책 나갔을 때, 가로등 말고는 거의 불빛이 없었거든요. 그때 물이 다 차



있는 갯벌에 뒤에 있는 산이 물에 거울처럼 떠있었는데, 그 장면이 보여주는 정적이 너무 좋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세 번째는 인터뷰했을 때. 인터뷰했던 어르신이 그 마을에서 태어나서 평생 사신 분이셨거든요. 그런 분을 만난 게 태어나서 처음이었던 것 같아요. 직접 만나보지 않았다면 상상도 못했던 분을 만났던 게 굉장히 겸손해지는 경험이었어요. 80년이 넘는 세월을 다 가지고 계신 그분의 얘기가 너무 궁금했어요. 그게 마을이랑 같이 사라지는 게 너무 아쉬웠고요. 그래서 말씀드렸듯이 인터뷰를 많이 하고 싶었던 게 그런 거를 하나하나, 그분들이 돌아가시고 이제 아무도 그걸 들을 사람이 없어지기 전까지 기록을 해두면 너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소멸, 변화, 적막, 경계, 부조화 중에서 지금 연옥 님의 상황에 적절한 키워드가 있나요?
있다면 그 이유는요?

변화인 것 같아요. 가기 전과 돌아온 나 사이에 정말 많은 변화가 있었거든요. 가기 전에는 혼란과 걱정이 많았고 자신감이 없었는데, 돌아와서는 그래도 서울 밖에서 내가 만들려는 삶에 대한 어떤 확신이 좀 생겼어요. 그런 모습이 되게 낯설게 느껴질 정도로 큰 변화거든요. 책을 낼 때도 전업 작가로 전환해야지 하는 생각이 아니었어요. 직장인들이 회사 다니면서 취미생활하듯이 해본 거였거든요. 근데 그게 너무 좋았고, 재미로 가볍게 생각했던 일인데 공명해 주는 사람들이 있고, 제가 글 쓰는 걸 정말 좋아한다는 사실을 오랜만에 깨우쳤어요.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까지 장래희망이 작가였더라고요. 그걸 엄청 오랫동안 잊고 살았던 거예요. 불현듯 생각이 나면서 나는 왜 회사를 나와서도 계속 경제활동을 하는 사람으로만 나를 정의하려고 했지, 왜 나를 한 번도 작가라고 생각해 본 적이 없을까라는 생각을 했죠. 그런 상상도 했어요. 요즘 뭐 해 물었을 때 “나 예술해”라고 답하면 어떻게 보일지, 남들의 시선이 되게 두려웠던 것 같아요. 근데 그곳에 걱정을 두고 왔다. 이 정도로 설명이 됐을까요?

같이 지낸 분들의 영향도 받으신 걸까요?

맞아요. 저는 사실 스스로 예술가라고 말하는 분들만 모여 있는 데는 처음 가봤어요. 그래서 이렇게 살아도 되는구나라는 확신이 들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저는 매일 회고할 때 너무 좋았거든요. 제가 하는 회고는 회사에서 업무 보고서 쓰듯이 하는 거였는데, 하면서 확실히 예술 하는 분들은 뭐가 다르구나 느꼈거든요. 각자의 시선과 생각이 너무나 솔직하고 투명하게, 다양하게 나타난 걸 보면서 이런 거에 대한 갈증이 컸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던 것 같아요. 내가 만든 작품을 보고 사람들이 멋있다, 신기하다, 용기 있다라는 얘기는 해도 이거 너무 좋다는 말은 듣기 쉽지 않았던 것 같거든요. 항상 뭔가 사람들은 예술가를 동물원에 있는 동물 보듯이 “너처럼 사는 거 되게 신기해”, “나도 그렇게 살고 싶어”, “한량같이 살아서 좋겠다”라는 말만 자주 하는데, 그런 얘기를 듣는 게 어떤 기분인지 정확히 아는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서로의

작품에 진지하게 관심을 기울여주는 것도 큰 도움이 됐던 것 같아요.

그런 시간이 연옥 님에게 어떻게 기억될 것 같은지, 앞으로 작업을 하는데 적용할 만한 아이디어가 생겼는지 궁금해요.

자연을 많이 보고 싶어졌어요. 한 명의 인간, 생명체로서 자연을 가까이 하는 게 얼마나 큰 회복과 많은 영감을 주는지를 한번 겪어보니 알겠더라고요. 심적인 여유가 되게 많이 생긴 것 같아요. 그리고 또다시 회고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 저희가 했던 회고는 잘하고 못하고를 나누는 게 아니라 순수하게 느낀 그대로를 다양한 방식으로 이야기한 거잖아요. 결국 그게 예술의 본질이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예전에는 예술이라는게 전문성을 가진 사람이 대단한 작품을 보여줘야 되는 거 아닌가, 학위가 없으면 어디 가서 예술가라 말 못하는 거 아닌가 했는데 그게 아니라 그냥 내 안에 있는 그대로를 내놓는 사람이 예술가구나, 그런 이해를 많이 하게 되었어요.

연옥 님에게 오취·사도마을이란?

상상 속의 고향 같은 느낌. 나한테 고향이라는 게 있었다면 이런 곳이 아닐까. 저는 고향이라고 딱히 생각하는 곳이 없거든요. 물리적으로 어린 시절을 보냈던 사전적인 정의로서 고향이지. 근데 마을에 있으면서 되게 환대 받았던 것 같아요. 마음이 많이 힘들 때 편안했거나 평화롭다고 느꼈던 기억을 떠올리려고 하거든요. 그중에 하나가 더해진 것 같아요. 장소랑 결부된 건 이번이 처음인 것 같네요.

연옥 님의 활동이 많은 사람들에게 용기가 될 것 같은데, 정작 본인은 어떤 마음인지 궁금했어요.

그냥 있는 그대로의 자연스러운 나를 계속 보여주는 것, 설령 듣고 싶어 하는 사람이 없어도 내 얘기를 솔직하게 하는 것, 그게 지금 자세인 것 같아요. 뭔가 계속 만들어서 내놓다 보면 더 많은 사람들이 좋아하는 이야기를 골라서 하고 싶다는 욕심이 생겨요. 그러다 보니 자꾸 남이 듣고 싶어 하는 얘기로 치우쳤던 것 같거든요. 근데 그냥 나를 좋아해주는 소수의 사람들이랑만 짹짹하면서 평생 살아도 좋겠다는 마음가짐으로 바뀌었어요.



연옥님의 첫 책 제목을 빌려온 질문입니다. '지워지는 나를 지키는 일'이 있다면요?

매일 자정이 되면 휴대폰이 잠겨요. 그럼 내려놓고 책상 앞에 앉아서 하루 회고를 해요. 쓰는데 진짜 3분도 안 걸려요. 이걸 매일 해요. 신기하게 오늘 했던 일만 정리하는 건데도 창작의 영감을 되게 많이 얻어요. 칸이 좀 남으면 그림도 그리고, 쓰다보면 그림 더 그리고 싶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것만 쓰다가 루틴이 하나 추가됐어요. 네컷 만화를 그려요. 부담 없이 5분 타이머 맞춰놓고 딱 거기까지만 그려요. 그렇게 하루 마무리하고 자요.

마지막 날 체류일지에 이런 문장이 있었죠. "나는 누구를 위해 여기에 와서 기록을 남긴 걸까? 소멸을 마주한 장소를 스쳐 지나가는 이방인의 역할과 가치는 무엇일까." 약 한 달이 지난 지금, 이 질문에 대한 답을 한다면요.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은 계속 관심을 가지는 것. 예전에는 기사나 다큐를 보고 느끼는 정도였을 텐데 이젠 진짜 짧게나마 생생하게 느꼈으니까. 그리고 저는 그런 동네로 이주할 생각이 있는 거잖아요. 일단 통영으로 잠정 확정했고, 4년 뒤에 이사 갈 생각인데 통영이 소멸 위험 지역*으로 지정되었더라고요. (*2022, 통계청) 주변 이웃이 없어지고, 가게가 문을 닫고, 빈집이 많아지는 게 내 삶에 지대한 부분이 될 텐데, 그 일부로 살아가면서 소멸을 막을 방법은 없어도 최소한의 역할이 있지 않을까, 살다 보면 또 답이 보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거랑 별개로 제가 그렇게 썼던 이유는 솔직히 주민분들에게 부끄럽기도 했거든요. 유명처럼 스쳐 지나가는 사람들 같았어요. 마을이랑 유의미한 관계를 맺거나, 뭔가를 남기고 오기엔 터무니없이 부족한 시간이었어요.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씀이나 제안하실 게 있다면요?

일단 저는 아카이빙의 주체가 예술인이 된다는 기획이 너무 좋았어요. 앞으로도 계속해서 이런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떠날 때 소장님한테 워케이션 센터 지어달라고 장난 섞어 말했었잖아요. 저는 사람들이 워케이션 왜 가는지 몰랐거든요. 똑같이 일할 거면 집에서 하지, 이런 느낌이었는데 진짜 다르구나, 내가 어느 공간에 있는지에 따라서 같은 일을 하더라도 다를 수밖에 없구나를 느꼈어요. 제가 참여하는 것과 별개로 소멸 지역의 관계 인구를 만들어 나가는 데 있어서 그곳에 머무는 사람들에게 실질적인 기여를 할 수 있는 방법, 뭐라도 보탬이 될 수 있는 게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어요. 저희가 뭐 일을 도와드리겠어요, 그분들 입장에서는 손해죠. 이걸 농활 하면서 진짜 많이 느꼈거든요. 우리가 안 가는 게 농사 돕는 거죠. 그럼에도 농활이 있는 이유는 그게 봉사의 의미만 있는 게 아니라 농민 학생 연대 활동에서 시작한 거잖아요. 그분들 인생에 대해 알지 못하면 연대든 뭐든 아무것도 있을 수가 없잖아요. 작은 마을에서 사는 나이 드신 분들, 그렇게만 생각하니까. 그걸 넘어서 한 분 한 분과 연결된 느낌을 받으려면 인터뷰만 한 게 없는 것 같아요. 훗날 그분들이 돌아가시고 마을에 아무도 남지 않은 날이 왔을 때도 기록을 해뒀던 게 도움이 될 거잖아요. 구술 생애사라는 분야가 있더라고요. 그런 걸 심층적으로 해봐도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연옥

경계에 선 불편함을 이야기하는 작가, 편집자, 기획자
@yournokok / yournokok@gmail.com



낮선 곳으로

단비의 편지
승완의 편지
유리의 편지
연옥의 편지
시호의 편지

「고흥을 겪을 사람들에게」
「미지의 하이커에게」
「이곳에 남겨진 산들에게」
「소멸에게」
「신동이에게」



고향을 겪을 사람들에게 보내는 편지

당신에게 처음으로 묻고 싶은 질문은 이것입니다. 어떤 사연으로, 어떤 이유로 이 곳에 오게 되었나요? 모두가 다른 사연을 품고 오겠지만 그 어떤 사연도 가볍지 않을거라 생각합니다.

이렇게 편지를 남기기 민망하게도 저는 5일만 머물다 다시 돌아갑니다. 그렇어도 고향이 정이 쌓였어요. 사랑안이 아닙니다. 바다도, 하늘도, 산도 제게 정을 나누어줬어요. 잠깐 스쳐가는 인연에도 정을 많이 주는 마을이어요.

또한 상처가 많은 마을이어요. 어쩌면 처음에는 자신을 지키기 위해 조금은 딱딱한 모습을 하고 있을 지도 몰라요. 그러나 실은 여린 속살을 품은 마을입니다. 과미를 주어주는 할머니처럼, 호수같이 잔잔한 바다처럼 말이에요.

이곳에 머물다 보면 나 자신을 보게 됩니다. 삶에 대한 수숙끼리로 가득 차있던 저는 힌트를 얻었어요. 당신도 이곳에 머물다 보면 수숙끼리의 힌트를 얻을 지도 모를 일이지요. 저는 이제 다시 길을 떠납니다. 다시 들수 있을지 약속은 못하지만 이번이 마지막이라 할지라도 제 마음에는 발자국

하나가 찍혔어요. 지켜지지 않을 발자국 말입니다. 겁 먹지 마세요. 그렇다고 공격하셔도 말아주세요. 굳껍질 안의 여린 속살 같은 마을이니 말이에요.

그저 인사해주세요. 고맙다고, 감사하다고.

단비의 편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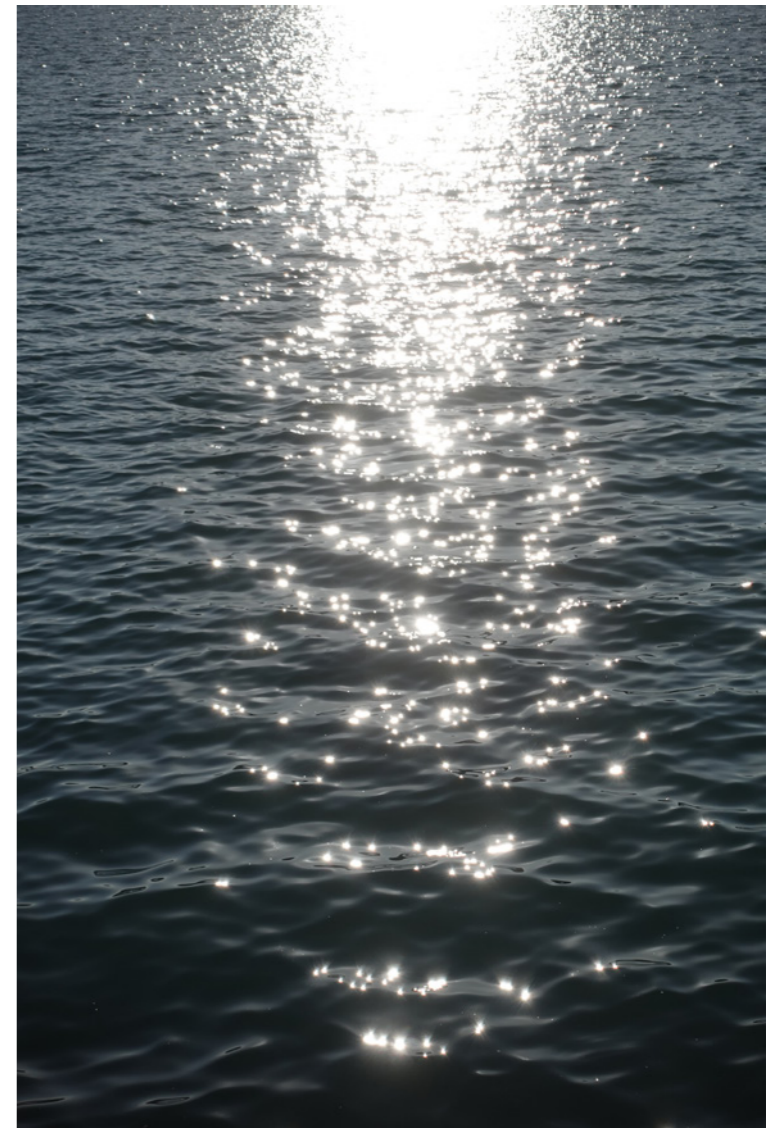
당신에게 처음으로 묻고 싶은 질문은 이것입니다. 어떤 사연으로, 어떤 이유로 이곳에 오게 되었나요? 모두가 다른 사연을 품고 오겠지만 그 어떤 사연도 가볍지 않을 거라 생각합니다.

이렇게 편지를 남기기 민망하게도 저는 5일만 머물다 다시 돌아갑니다. 그럼에도 겹겹이 정이 쌓였어요. 사람만이 아닙니다. 바다도, 하늘도, 산도 제게 정을 나눠주었어요. 잠깐 스쳐 가는 인연에도 정을 많이 주는 마을이에요.

또한 상처가 많은 마을이에요. 어쩌면 처음에는 자신을 지키기 위해 조금은 딱딱한 모습을 하고 있을지도 몰라요. 그러나 실은 여린 속살을 품은 마을입니다. 고구마를 쥐여주는 할머니처럼, 호수같이 잔잔한 바다처럼 말이에요.


이곳에 머물다 보면 나 자신을 보게 됩니다. 삶에 대한 수수께끼로 가득 차 있던 저는 힌트를 얻었어요. 당신도 이곳에 머물다 보면 수수께끼의 힌트를 얻을지도 모를 일이지요.

저는 이제 다시 길을 떠납니다. 다시 올 수 있을지 약속은 못하지만 이번이 마지막이라 할지라도 제 마음에는 발자국 하나가 찍혔어요. 지워지지 않을 발자국 말이죠. 겁먹지 마세요. 그렇다고 공격하지도 말아 주세요. 굴뚝질 안의 여린 속살 같은 마을이니 말이에요. 그저 인사해 주세요. 고맙다고, 감사하다고.



윤슬
사진 위단비



 . 미지의 하이커에게...

다도는 가늠할 수 없는 시대를 기록하는
이야기를 속삭이던 바닷이 건 해안의
이야기를 뒤흔어 전하는 여섯.

리진 바다가 너그러 보이는 조형한 시냇바람의
조그마한 재가이 없어 이로운 갑판이 있는
근호한 아늑함을 느껴 보시길 바랍니다.

자연이 만들어낸 아름다운 신항이 두드러지게
보이는 스리유니 마을을 가뻛게 두니보이며
부분 부분한 연막사이에서 사운은 바다로
있으면 잔 바닷바람이 마음을 어루만져 주며
전하는 말으로도 훌륭함임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 가뻛게 걷는 말으로도 헤아릴 수 없는
풍요로움을 반복하기 되겠습니다.

변하는 계절과 선물, 수줍은 흐름이 따라
수리 숲의 리듬도 변하기 되듯이
여섯에서 여섯 새롭게 생각되는
새로운 캔버스를 만났습니다.

먼저 색과 덩크색으로 하늘은 움직이는
눈은 우리에게 마음의 비시스를 선사하는
각은 여섯 마리도 따뜻함으로 여섯이 됩니다.

그런 여섯의 소중한 흐름을
이곳에서 만났습니다.

파도는 가능할 수 없는 시대를 초월하는 이야기를 속삭이고 바람이 먼 해안의 이야기를 실 새 없이 전하는 이곳.

거친 바다가 내려다보이는 조용한 시골 마을의 조그마한 정자에 앉아 이곳을 감싸고 있는 고요한 아름다움을 느껴 보시길 바랍니다.

자연이 만들어낸 아름다운 교향곡이 부드럽게 볼을 스치고 마을을 가볍게 둘러보며 구불구불한 언덕 사이에서 마을을 바라보고 있으면 짠 바닷바람이 마을을 어루만져주어 걷는 것만으로도 힐링이 되는 곳입니다.

그저 가볍게 걷는 것만으로도 헤아릴 수 없는 풍요로움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변하는 계절과 썰물, 구름의 흐름에 따라 우리 삶의 리듬도 변하게 되듯이 이곳에서 매일 새롭게 그릴 수 있는 새로운 캔버스를 만날 수 있을 거예요.

오렌지색과 핑크색으로 하늘을 물들이는 노을은 우리에게 마음의 오아시스를 선사하고 작은 대화들마저도 따뜻함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그런 일상의 소소한 즐거움을 이곳에서 담아갈 수 있기를...

노을
사진 한승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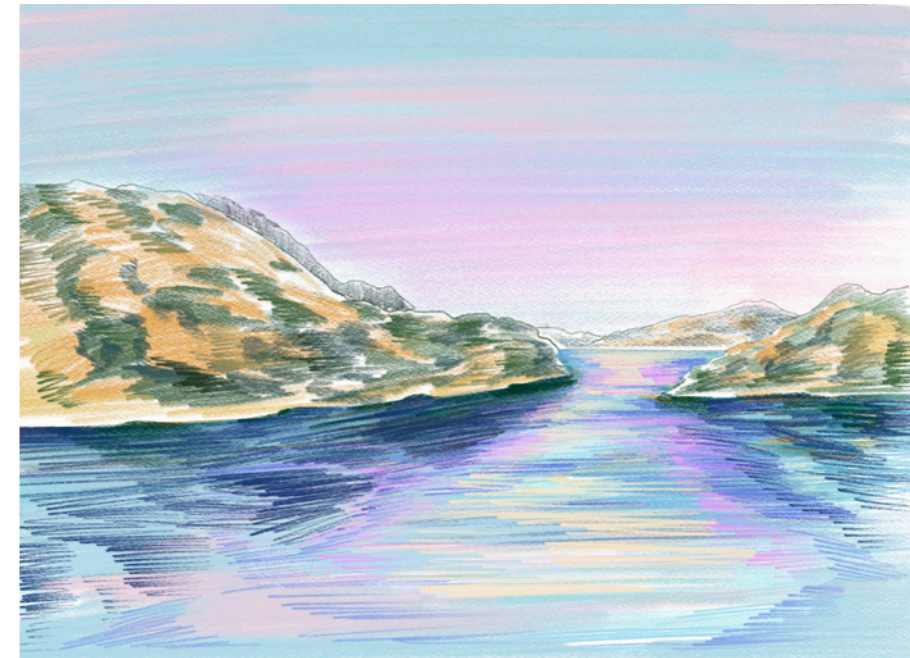
유리의 편지

- 이곳에 남겨진 산들에게 -

너희는 지금까지와 같이 계속 거기에 있겠지. 지금까지 그래왔듯 50년이고 100년이고 그 자리에 있을거야. 그동안 바라본 우리는 꽤 많이 바뀌었어. 그리고 이제 점점 사람들이 줄어들고 있지. 어쩌면 곧 이 마을에는 사람들이 사라지고 말거야. 아무도 너희를 바라보지 않아도 너희 앞바다를 향해하지 않아도 너무 슬퍼하진 마. 그간의 기억들이 모두 모여 물 위의 반짝이는 빛으로 남아 있을 거야. 매번 새로운 형태로 우리는 계속 만날 거야. 그러니 잊지 말고 우리를 기억해주렴.

2023. 11. 23. 유리

너희는 지금까지와 같이 계속 거기에 있겠지. 지금까지 그래왔듯 50년이고 100년이고 그 자리에 있을 거야. 그동안 바라본 우리는 꽤 많이 바뀌었어. 그리고 이제 점점 사람들이 줄어들고 있지. 어쩌면 곧 이 마을에는 사람들이 사라지고 말 거야. 아무도 너희를 바라보지 않아도 너희 앞바다를 향해하지 않아도 너무 슬퍼하진 마. 그간의 기억들이 모두 모여 물 위의 반짝이는 빛으로 남아 있을 거야. 매번 새로운 형태로 우리는 계속 만날 거야. 그러니 잊지 말고 우리를 기억해주렴.



해질녘 바다풍경
그림 유리



손끝에게 -

네가 도착했을 때 마을에는 몇 명이나 남아있을까?
세월을 이기지 못하리 허탈해지는 빈 집, ~~빈~~ 인적이 느껴지지 않는 골목은 얼마나 스산할까? 그걸 생각하면 너무 끔찍하네.
네가 영영 오지 않을 바리게 널 정돈. 내가 마지막으로 목격한 마을의 모습 그대로, 조금은 조용하지만 여전히 동네를 살아 움직이게 하는 주민들의 흔적이 남겨진 그대로, 벽자 속 사진처럼 보충할 수 있을 바쁘네.

하지만 공평한 시간의 흐름 앞에서 이런 기억은 걸지 않는 편이 현명하네는 걸 안다. 그래서 사실은 이 편지로 무언 부탁하거나 당부할 필요가 있을지 잘은 모르겠네. 그럼에도, 거스를 수 없는 세월 앞에서 외치고 싶은 말 한마디를 오늘 찾아내기 말하지 않을 수 없네. '자비롭길'. 마지막 글막이 문을 열고 마지막 주민이 숨들 거릴 때, 이 마을에서 보낸 수많은 시간이 ^{신명처럼} 원망스럽게 ^{어둠처럼} 거북하게 거북하는 일은 없길.
그래도 우리는 최선을 다했고 작아지는 마을 속에서도, 그 오랜 노동 기운 네가에게도 종종 웃을 일이 많았음을 기억하길.

그 기억이 마을과 함께 사라져 영영 잊혀지지 않고, 누군가 진실 어리게 취를 기록해 영천 속에 기록되어 전해지길.
그런 충분한 기회와 시간 속에서 마을이 천천히 사라지는 동안, 당신은 조용히 기다려주길. 그렇게 평범하고 자비로운 끝을 선물해주길 바쁘네.

장소에는 시간이 있네. 모든 집과 그 앞을 지나는 골목과 지나가는 바깥 한 쪽에는 누군가의 추억이 껍질이 쌓여있다. 누군가에게는 치열한 삶이 터전이자, 벗어날 수 없는 노동의 대물림이자, 거기서부터 자녀를 국제하고 싶기 했던 사랑이 마을을 만들었다. 오늘 나는 그 앞에서 숙연함을 느꼈네.
이 거대한 기록과 시간의 집합체가 필연적으로 사라질까봐 자명한 사실 앞에서 무너갈 듯 느껴졌네. 하지만 내가 아무리 아쉬워할지언정 네가 마을을 찾아 ~~오~~ ^{이 마을의 끝까지} 날을 막을 수는 없겠지. 그래서 이 편지를 쓴다. 시간을 통리하는 작은 미물과 영혼을 낳아.

2023. 11. 23.

연옥

네가 도착했을 때 마을에는 몇 명이나 남아있을까? 세월을 이기지 못하고 허물어지는 빈집, 인적이 느껴지지 않는 골목은 얼마나 스산할까? 그걸 생각하면 너무 끔찍하다. 네가 영영 오지 않길 바라게 될 정도로. 내가 마지막으로 목격한 마을의 모습 그대로, 조금은 조용하지만 여전히 동네를 살아 움직이게 하는 주민들의 흔적이 남겨진 그대로, 액자 속 사진처럼 보존할 수 있길 바란다.

하지만 공평한 시간의 흐름 앞에서 이런 기대는 걸지 않는 편이 현명하다는 걸 안다. 그래서 사실은 이 편지로 무얼 부탁하거나 당부할 필요가 있을지 잘은 모르겠다. 그럼에도, 거스를 수 없는 세월 앞에서 외치고 싶은 말 한마디를 오늘 찾았기에 말하지 않을 수 없다. ‘자비롭길.’ 마지막 굴막이 문을 닫고 마지막 주민이 숨을 거둘 때, 이 마을에서 보낸 수많은 시간이 원망스럽거나 소멸의 운명을 억척스럽게 거부하는 일은 없길. 그래도 우리는 최선을 다했고 작아지는 마을 속에서도, 그 고된 노동 가운데에서도 종종 웃을 일이 많았음을 기억하길.

그 기억이 마을과 함께 사라져 영영 잊혀지지 않고, 누군가 진심 어리게 귀를 기울여 경청하고 영원 속에 기록되어 전해지길. 그럴 충분한 기회와 시간 속에서 마을이 천천히 사라지는 동안, 당신은 조용히 기다려주길. 그렇게 평화롭고 자비로운 끝을 선물해 주길 바란다.

장소에는 시간이 깃든다. 모든 집과 그 앞을 지나는 골목과 지나가는 바람 한 점에도 누군가의 추억이 겹겹이 쌓여있다. 누군가에게는 치열한 삶의 터전이자, 벗어날 수 없는 노동의 대물림이자, 거기서부터 자녀를 구제하고 싶어 했던 사람이 마을을 만들었다. 오늘 나는 그 앞에서 숙연함을 느꼈다.

이 거대한 기억과 시간의 집합체가 필연적으로 사라질 거란 자명한 사실 앞에서 무력감도 느껴졌다. 하지만 내가 아무리 아쉬워할지언정 네가 마을을 찾아올 날을 막을 수는 없겠지.

그래서 이 편지를 쓴다. 이 마을의 곁에서 시간을 통과하는 작은 미물의 염원을 담아.





어이, 너. 이리타바. 그래 너. 신동이 맞지?

꼬리가 살짝 말린걸 보니까 맛구만워. 마리네 막내.

내가 누구지 알지? 나는 이 오치마을에서 자그마치 18년이나...

어허, 벌써 놀라긴 일러. 옛헛.

여하튼 이곳에서 내고 자란 오리지널 고흥농이님이시다.

그렇지. '고양이'가 바로 나야. ^{네가 사는} 오도마을의 대뺑은 송실이지?

당연히 아따마다.

나랑은 어릴때부터 형동생하는 사이라구. 그나저나 여긴 웬일이냐?

응? 오늘이던가? 맞 차차.. 그랬군. 그랬어.

그게 ~~어찌~~ 어쩐지 안보이던 애기들이 하나 둘씩 보인다 했더니만

~~어찌~~ 느그들 오치마을 견학이 오늘이구만. 깜박했네.

자자자. 그럼 저 멀리 흠어진 아그들쯤 모아타바. 이제

등어 시작할라니까.

자. 노랭이, 호랭이, 우들이.. 송실이 다 왔구만. 그럼 출발하자.

우선 여기 죽육 들어선 감정집들은 「글막」이다.

나와같은 나잇대의 어머님들이 매일 글을 쓰는 곳이야.

아버님들은 배를 타고 나가 글을 따 오시고, 그걸 새벽부터

하루 쯤-일 끼는거지. 그리고 이걸 팔아 생계를 이어가신다.

지나가면서 봐겠지만 이걸까는게 손도 시렵고 보통 힘든게

아니야. 그러니 혹시나 고요한 냄새에 균형이 돌아도

절대로 어떤 건드리지 말기로 약속한다. 알겠지?

다음은 '귀여움 받기'인데, 이건 우리의 취미생활이라고

할 수 있지. 다들 각자의 방법이 있겠지만, 보통은

'미야오 -'로 시작한다. 그리고는 반응을 보는거야. 뭐?

아니지 아니지, 멍멍이 냄새를 맡는것은 사람들이 좋아하는

방법이 아니야. 그보다는 가만히 다가가서 그들의 손에

슬쩍 머리를 기대보는 편이 좋아. 그다지 싫어하지 않는듯

하면, 그 이후부터의 어리광은 자유다.

아, 특별히 나무나 낮은 의자에 기대어 앉은 오래된 어른들을

보게 된다면 꼭 발연에 ~~응크리~~ 응크리고 시간을 함께 보내길

추천해. 많은 이야기, 그리고 많은 사랑을 가지신 분들이셔.

~~응크리~~. 그리고 언제나 이야깃거리가 끊이지 않으시지.

너무 신나지? 그러니 꼭 눈을 크게 뜨고 그들을 찾아봐.

다른 사람들과는 달리 이 분들은 우리와 꽤 오랜 시간을 함께
해 주실거야. 머리가 전부 검은 어린 사냥들은 늘 바쁘고,
바퀴달린 들것에 실려 이리저리 허둥대지만 이들은 달라.
다리가 두개일 때도, 바퀴와 함께 일때도 있는데,
걷는 속도가 우리와 비슷해. 감사한 일이지.
함께 고품의 해살을 느끼다보면, 분명 믿는게 있을거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야. 궁금한 점 있나?
아니, 나무에 두개 달린 건 따지 않아. 우리 것이야
까치들, 새들의 법이야. 명심하고.
더 궁금하게 된다면 자유로이 노닐다 가도록 해. 이곳 오치는
사도보다는 조금 더 포용하고, 차들이 적어.
마음껏 누리고 가도록, 오게 있어야 보이니까.
그럼, 해산 !!

2023 11월 24 일 고양이 시호

신동이에게

시호의 편지

어이, 너 이리 와 봐. 그래 너, 신동이 맞지? 꼬리가 살짝 말린 걸 보니까 맞구만 뭐.
마리네 막내. 내가 누군지 알지? 나는 이 오취마을에서 자그마치 18년이나... 어허,
벌써 놀라긴 일러. 옛험.

여하튼 이곳에서 나고 자란 오리지널 고흥냥이님이시다. 그렇지. '고냥이'가 바로
나야. 네가 사는 오도마을의 대빵은 솜실이지? 당연히 알다마다. 나랑은 어릴 때부터
형, 동생하는 사이라구. 그나저나 여긴 웬일이냐? 응? 그게 오늘이던가? 앗차차.
그랬군, 그랬어.

어쩐지 안보이던 애기들이 하나둘씩 보인다 했더니만 느그들 오취마을 견학이
오늘이구마는, 깜빡했네. 자자, 자, 그럼 저 멀리 흩어진 아그들 좀 모아와 봐. 이제
투어 시작할라니까.

자. 노랭이, 호랭이, 우물이, 솜실이 다 왔구만. 그럼 출발하자.

우선 여기 주욱 늘어선 검정집들은 '굴막'이다. 나와 같은 나이대의 어머님들이 매일
굴을 까는 곳이야. 아버님들은 배를 타고 나가 굴을 따 오시고, 그걸 새벽부터 하루
종-일 까시는 거지. 그리고 이걸 팔아 생계를 이어가신다. 지나가면서 봤겠지만 이걸
까는 게 손도 시럽고 보통 힘든 게 아니야. 그러니 혹시나 고소한 냄새에 군침이
돌아도 절대로 이걸 건드리지 말기로 약속한다. 알겠지?

다음은 '귀여움받기'인데, 이걸 우리의 취미생활이라고 할 수 있지. 다들 각자의
방법이 있겠지만, 보통은 '미야오-'로 시작한다. 그리고는 반응을 보는 거야. 뭐?
아니지, 아니지, 엉덩이 냄새를 맡는 것은 사람들이 좋아하는 방법이 아니야.
그보다는 가만히 다가가서 그들의 손에 슬쩍 머리를 기대보는 편이 좋아. 그다지
싫어하지 않는 듯하면, 그 이후부터의 어리광은 자유다.

아, 특별히 나무나 낡은 의자에 기대어 앉은 오래된 어른들을 보게 된다면 꼭 발 옆에 웅크리고 시간을 함께 보내길 추천해. 많은 이야기, 그리고 많은 사랑을 가지신 분들이셔. 그리고 언제나 이야깃거리가 끊이질 않으시지. 너무 신나지? 그러니 꼭 눈을 크게 뜨고 그들을 찾아봐. 다른 사람들과는 달리 이분들은 우리와 꽤 오랜 시간을 함께해주실 거야. 머리가 전부 검은 어린 사람들은 늘 바쁘고, 바퀴달린 들것에 실려 이리저리 허둥대지만 이들은 달라. 다리가 두 개일 때도, 바퀴와 함께일 때도 있는데, 걷는 속도가 우리와 비슷해. 감사한 일이지. 함께 코끝의 햇살을 느끼다 보면, 분명 얻는 게 있을 거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야. 궁금한 점 있나? 아니, 나무에 두어 개 달린 건 따지 않아. 우리의 것이 아니라 까치들, 새들의 밥이야. 명심하고.

더 궁금한 게 없다면 자유로이 노닐다 가도록 해. 이곳 오취는 사도보다는 조금 더 조용하고, 차들이 적어. 마음껏 누리고 가도록. 오래 있어야 보이니까.

그럼, 해산!!







부록

박시호

p.24

굴막
시

p.36

아침 아홉시
시

p.46

체류일지
일기

p.54

굴1
시

p.77

굴껍데기
사진

p.86

체류일지
음성텍스트, 23.11.22

p.90

체류일지
일기, 23.11.23

p.96

마을주민 인터뷰 - 강상임
인터뷰

p.99

강상임 할머니
사진

p.117

마을주민 인터뷰 - 오취마을 부녀경로당
인터뷰

p.130

껍데기 하나
인터뷰

p.211

신동이에게
편지

연옥

p.26

체류일지
일기

p.174

깍데기 다섯
인터뷰

p.30

뿌리의 증명
시

p.204

소멸에게
편지

p.58

체류일지
일기, 23.11.20

p.66

굴 깍데기
시

p.77

굴깍데기
사진

p.104

체류일지
일기, 23.11.22

p.108

체류일지
일기, 23.11.21

p.111

체류일지
일기, 23.11.23

p.114

마을주민 인터뷰 - 정문수
인터뷰

p.117

마을주민 인터뷰 - 오취마을 부녀경로당
인터뷰

위단비

p.26

체류일지
일기, 23.11.21

p.27

마을의 일출
그림

p.28

뿌리의 증명
시

p.29

마을의 일출
사진

p.42

체류일지
일기, 23.11.22

p.68

체류일지
일기, 23.11.20

p.69

굴껍데기
사진

p.72

마을주민 인터뷰 - 이생금
인터뷰

p.81

체류일지
일기, 23.11.23

p.117

마을주민 인터뷰 - 오취마을 부녀경로당
인터뷰

p.152

껍데기 셋
인터뷰

p.188

고흥을 겪을 사람들에게
편지

p.189

윤슬
사진

이유리

<i>p.30</i>	마을풍경 그림
<i>p.31</i>	체류일지 일기, 23.11.20
<i>p.45</i>	체류일지 일기, 23.11.21
<i>p.46</i>	오취마을 개발위원장님, 경로당 할머니 그림
<i>p.48</i>	체류일지 일기, 23.11.22
<i>p.49</i>	탁 트인 도로 그림
<i>p.67</i>	바다에서 올라오는 굴 그림
<i>p.78</i>	꽃무늬 시
<i>p.79</i>	굴 까는 할머니 그림
<i>p.89</i>	임영애 할머니 그림

<i>p.114</i>	마을주민 인터뷰 - 정문수 인터뷰
<i>p.117</i>	마을주민 인터뷰 - 오취마을 부녀경로당 인터뷰
<i>p.141</i>	껍데기 돌 인터뷰
<i>p.142</i>	숙소에서 내려다 본 풍경 그림
<i>p.147</i>	어촌계장님 그림
<i>p.149</i>	굴 옮길 때 그림
<i>p.199</i>	이곳에 남겨진 산들에게 편지
<i>p.199</i>	해질녘 바다풍경 그림

p.25 굴막 안에서 바라보는 마을의 바다
사진

p.32 오취·사도마을의 풍경들
사진

p.34 체류일지
일기, 23.11.21

p.38 노을지는 갯벌의 윤슬
사진

p.43 굴 캐시는 할머니
사진

p.44 물고기 낚시
사진

p.50 체류일지
일기, 23.11.22

p.51 어선 위 오취마을 어촌계장님
인터뷰

p.52 굴에도 나이트가 있다
시

p.53 캐내어낸 굴
사진

p.56 굴 까는 할머니
사진

p.61 굴 까는 할머니들
사진

p.62 돌아오는 배
사진

p.70 앉아계신 할머니들
사진

p.76 위로 올려다보는 할머니
사진

p.80 굴막에서 작업중인 할머니들
사진

p.82 남겨진 도구들
사진

p.83 체류일지
일기, 23.11.20

p.84 체류일지
일기, 23.11.23

p.88 임영애 할머니
사진

<i>p.91</i>	정채례 할머니 사진
<i>p.94</i>	손 인사하는 서경엽 할머니 사진
<i>p.102</i>	사도마을 어촌계장님 사진
<i>p.107</i>	고양이 사진
<i>p.110</i>	떨어지는 굴 한 알 사진
<i>p.113</i>	손 인사하는 할머니들 사진
<i>p.114</i>	마을주민 인터뷰 - 정문수 인터뷰
<i>p.116</i>	오래된 가게 사진
<i>p.117</i>	마을주민 인터뷰 - 오취마을 부녀 경로당 인터뷰
<i>p.123</i>	오취마을 부녀 경로당에서 사진

<i>p.138</i>	갯벌 위 갈매기 사진
<i>p.150</i>	어선 위에서 사진
<i>p.160</i>	마을에 서린 안개 사진
<i>p.162</i>	껍데기 넷 인터뷰
<i>p.172</i>	굴막 사진
<i>p.182</i>	풀 사진
<i>p.194</i>	미지의 하이커에게 편지
<i>p.195</i>	노을 사진

시로 만든 질문과 편지로

발행일	2024년 1월 00일
펴낸 곳	해변의 카카카, 지역자산화협동조합
출판등록	2019년 4월 1일 제 543-2019-000003호
기획 및 디자인	해변의 카카카
ISBN	979-11-968936-3-7(03600)

본 책자의 저작권은 지역자산화협동조합과 해변의 카카카에 있으며, 무단 사용 및 복제 또는 배포 시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본 책자는 비매품입니다.